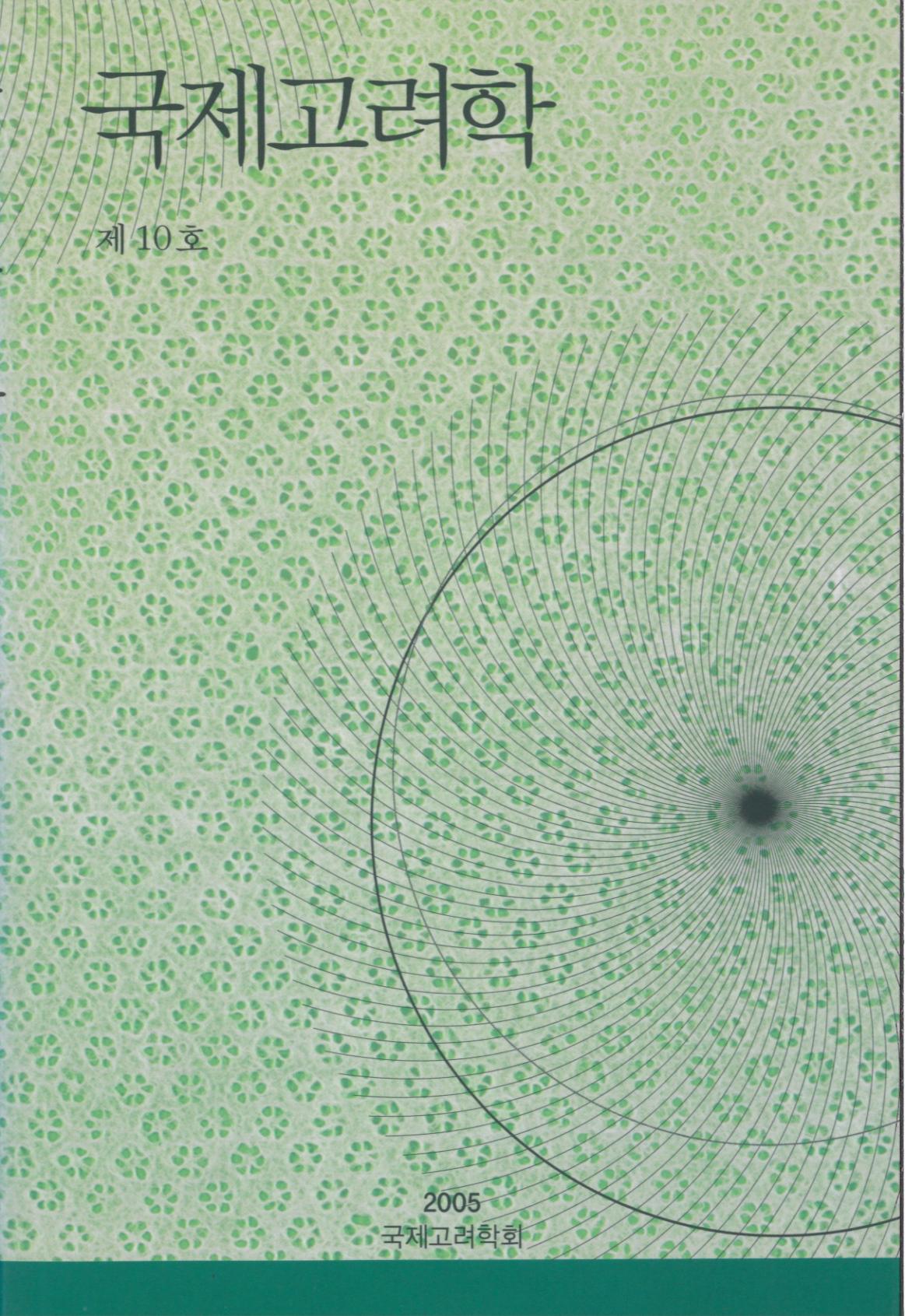


국제고려학

제 10 호



2005
국제고려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송재목(大阪經濟法科大學)

편집위원

김정영(조선사회과학원)

최광식(고려대학교)

이길상(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윤정수(梅花女子大學)

연재훈(SOAS, University of London)

편집간사

배룡, 김홍수, 진영숙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10호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

제10호

차례

서 읊

한국 고전서사 문학에 나타난 주인공의 신이한 탄생
~영웅군담소설을 중심으로~

임 치 균 8

하이퍼텍스트-새로운 예술의 패러다임

김 병 선 29

평 양

현진건의 역사소설에 대한 간단한 고찰

한 중 모 58

시조의 명칭과 시학적특성에 대한 고찰

박 길 남 77

백운거사 리규보와 서사시 《동명왕편》

정 흥 교 95

삼국시기~10세기초 조선어발전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최 정 후 113

조선어의 민족성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국어사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심 병 호 130

17~19세기 조선말의 모음조화변화에 대한 고찰

김 인 호 157

일 본

Progressives in Korean, Japanese and Mongolian

송 남 선

송 재 복 178

유 럻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피동문의 특성과 한국어

연 재 훈 204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 10 호

서울

Seoul

한국 고전서사 문학에 나타난 주인공의 신이한 탄생

-영웅군림소설을 중심으로-

임 치 균

한국학중앙연구원

I. 서론

일반적으로, 한국의 고전소설은 김시습의 「금오신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후 이른바 전기소설(傳奇小說)들이 소설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우리의 소설사는 점차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이 창작될 기틀이 마련되었다. 문제는 전기소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고전소설의 정확한 작가와 창작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솔직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고전소설의 전개와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연구자들은 한국 고전소설의 흐름의 대강을 바로 잡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¹

그러나, 한국 고전소설의 전개에 있어서 ‘주인공의 일대기’ 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전기소설, 몽유록계(夢遊錄係) 소설이라고 불리우는 초기의 작품들은 주인공의 일생에 있어서 어느 한 시기의 사건

¹ 예를 들어, 이전에는 영웅군림소설이 장편소설보다 앞서 출현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새로운 자료와 연구의 측면으로 그 반대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 고전소설의 전개와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겠다.

을 다루고 있다. 이들 작품들은 작품 주인공이 이미 성장을 하고 난 후 그의 작중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생한 사건을 취급한다. 「금오신화」가 이러하고, 「원생몽유록」 등의 작품이 이러하다. 여기에서는 주인공의 탄생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고전소설은 주인공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전 일생에 걸친 다양한 사건을 다루게 된다. 한국 고전소설에서 인간의 탄생과 삶의 과정을 다루게 된 것이다. 이것이 가문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인간은 모두 세상에 태어나서 일정 기간 삶을 살아가다가 죽는다.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난에 처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것에 좌절하기도 한다. 그에 따른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이러한 인생의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대량으로 문학사에 나타났던 대개의 한국 고전소설은 이러한 사람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 한국 고전소설은 인간 삶의 과정을 재현하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 고전소설은 주인공의 탄생을 다룬 탄생담, 삶의 과정에서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그린 고난담과 해결담, 그리고 그후의 일과 죽음을 서술한 후일담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친편일률적인 구성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각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 고전소설에서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반드시 극복하여 행복한 인생을 누린다는 점에서 대체로 공통적이다. 한국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을 지향한 것이다. 이들의 결말은 대체로 ‘자식을 많이 낳고 현세에서 잘 살았다, 또는 잘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의 민담 등에서 ‘그래서 주인공은 행복하게 살았다’는식의 결말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이러한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이 한국인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²

2 서대석,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 『한국어문연구』 3, 1978. 서인석, “고전소설의 결말구조와 그 세계관”,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한국 고전소설의 주인공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에는 바로 주인공의 신이 한 탄생이 있다. 신이하게 태어난 인물이기에 현세에서 부귀영달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고전소설 가운데 특히 이러한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유형이 영웅군담소설이다. 이른바, “영웅의 일대기”³라고 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는 영웅군담소설에서는 무엇보다도 주인공의 신이한 탄생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후 신이 한 탄생은 기타의 한국 고전소설에도 광범위하게 수용된다. 결국 신이한 탄생은 한국 고전소설이 가지는 매우 특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바로 영웅군담소설을 중심으로, 한국 고전서사문학에 표현되고 있는 주인공의 신이한 탄생의 양상과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소설 시기 이전의 영웅의 탄생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영웅군담소설 주인공의 탄생에 연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웅군담소설은 조선 후기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작품군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수용되었던 신이한 탄생은 당시의 독자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것은 대부분 태몽을 지니고 태어난 현대의 한국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주인공의 신이한 탄생이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설 시기 이전에 나타난 주인공의 신이한 탄생

거시적인 측면에서 서사문학의 흐름을 살펴볼 때, 소설 시기 이전에는 신화와 전설이 있다. 신화와 전설 가운데 주인공의 신이한 탄생이 드러나고 있는 경우는 건국 신화, 아래자전설, 인물 전설 가운데 일부가 있다. 건국 신화와 아래자전설들은 새로운 국가나 왕조를 창건하거나 새롭게 왕위에 등극한 인물 또는 그러기 위하여

³ ‘영웅의 일대기’는 조동일에 의하여 정리되었다.(조동일, “英雄의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동아문화』 10, 1971)

노력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반면, 인물 전설은 특출한 업적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신화나 전설로 포장되어 있지만, 주인공들은 실제로 존재하였던 인물들인 것이다.

이것들에게서 “신이한 탄생”은 주인공들이 이룩할 성과를 담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소설의 주인공이 신이하게 태어남으로써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과 상통한다. 따라서 소설에 드러나고 있는 신이한 탄생이 전단계의 서사 양식에서 영향받았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신화나 전설, 소설 사이에 존재하는 양식적, 시대적 상이함에 따른 내용적 차이는 당연히 존재한다.

현전하는 우리나라의 신화에서 주인공의 신이한 탄생이 특히 강조되는 것이 건국신화이다. 단군신화(고조선 건국신화), 동명왕 신화(고구려 건국신화), 박혁거세 신화(신라 건국신화), 김수로 신화(가락국 건국신화)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주인공은 모두 천상(天上)의 혈통을 가지고 탄생한다. 단군은 천제(天帝)의 아들 환웅과 지산적(地神的) 존재인 웅녀(熊女)의 사이에서, 동명왕은 천제인 해모수와 지신인 유화(柳花)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박혁거세와 김수로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이다. 신(神)과 신(神)의 결합 속에서 태어난 인물, 하늘에 낸 인물(人物), 이들의 이러한 혈통은 그후에 이루어지는 건국(建國)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건국신화는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더 이상 신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삼국은 멸망하였고, 뒤를 이어 고려가 건국되었다. 고려는 또 자신들의 신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고려사』에 실려 있는 “고려국조신화”가 그것이다. 이 신화는 왕건의 육대조(六代祖)를 그리고 있다. 이때,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신이한 혈통의 이어짐이다. 육대조인 호경(虎景)에서부터 왕건에 이르기까지 부계 또는 모계가 모두 신이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호경은 산신과 혼인을 하고, 진의(辰義)는 당나라 숙종과, 작제건(作帝建)은 용녀(龍女)와, 용건(龍建)은 동부인(夢夫人)과 혼인을 한다. 물론 영웅적 활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활동은 혼인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을 뿐이다. 작제건이 자신의 활솜씨를 바탕

으로 용왕을 도와주며 영웅성을 발휘하지만, 결국 용녀와의 혼인을 이루는 데 그치는 것과 같은 것이 한 예이다. 이러한 혈통은 왕건의 역사적 행위의 정통성을 확보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 이전에 존속하였던 신라의 건국신화는 신이한 혈통을 중시하고 있다. 신라의 건국신화에서는 시조(始祖)인 박혁거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하고 있다. 고려가 통치해야 할 백성들은 신라 사람들이었다. 신라인들은 자신의 시조가 신이한 혈통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가 건국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려면, 고려의 건국 혈통 역시 신라 못지 않게 신이하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고려의 “고려국조신화”에서 혈통을 중시한 것은 신라를 의식한 결과인 것이다.⁴

주목할 점은 신이한 혈통을 부여하는 방식이 이전의 건국신화와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이다. 특이하게도 “고려국조신화”에서는 부모 가운데 한 쪽이 반드시 인간(人間)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전의 신화들처럼 천제의 아들이니, 하늘에서 내려왔느니 하는 식이 아니다.

이는 고려시대가 더 이상 신화시대가 아니라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이미 시간이 흘러 그 이전의 건국신화와 같은 방식의 혈통 부여는 가능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의 인지(認知)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 옛날에는 혹시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인공들에게 신이한 혈통을 부여하기 위한 다른 방식의 탄생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야래자전설(夜來者傳說)’이다.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璋)이다. 어머니가 홀로 경사(京師) 남지(南池)가에 집을 짓고 살다가 용(龍)과 교통하여 낳았다.⁵

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임치균, “세종대의 서사문학”, 『세종시대의 문학』, 태학사, 2001 참고.

⁵ 武王……第三十武王 名璋 母寡居築室於京師南池邊 池龍交通而生。(『三國遺事』卷2, 武王)

무왕의 어머니는 과부로 서울 남지가에서 살았는데 밤마다 불그스름한 옷을 입은 사내가 와서 자고 가는데 몰래 바늘을 뜸에 꽂아 정체를 살피니 이룡이었다. 과부는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비범하고 도량이 넓었다.⁶

또 고기(古記)에 말하기를 옛날에 한 부자가 광주(光州) 북촌(北村)에서 살았다. 한 딸이 있었는데 자태가 단정했다. 아버지에게 '매일 자색 옷을 입은 남자가 침실에 들어와 자고 갑니다'라고 하자 아버지가 '너는 긴 실을 바늘에 매어 그 옷에 꽂아라' 하였다. 아침에 그 실을 북쪽 담 아래에서 찾았는데 바늘은 구인구(蚯蚓)의 허리에 꽂혀 있었다. 후에 그로 인하여 임신하여 사내를 낳으니 십오 세가 되어 스스로 견훤이라고 하더라.⁷

한 부호에게 과년한 딸이 있었다. 밤마다 청년이 들어와 딸의 방에서 자고 가는데 뜸에 바늘을 꽂아 정체를 살피니 수달이었다. 딸은 아들을 낳았는데 청나라 태조가 되었다.⁸

호경(성골장군)이 돌아와 평나군에 고해 9인을 장례 지낼 때 먼저 산신에게 제사 드리니 그 신이 보고서 '나는 과부로써 이 산을 주재하다가 다행히 성골장군을 만났으니, 함께 부부가 되어 신정(神政)을 하고 싶으니 이 산의 대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뒤 호경과 함께 사라졌다. 군인(郡人)들이 호경을 대왕으로 봉하여 사당을 세워 제사 지냈고 9인이 함께 죽었기에 산 이름을 구룡(九龍)이라고 고쳤다. 호경이 옛 처를 잊지 못해 밤마다 꿈처럼 와서 교정(交情)하여 자식을 낳으니 이름이 강충이다.⁹

6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p.120.

7 後百濟甄萱 ……又古記云 昔一富人 居光州北村 有一女子 姿容端正 謂父曰 每有一紫衣男 到寢交婚 父謂曰 汝以長絲 貫針刺其衣 從之 至明尋絲於北牆下 鈎刺於?洞之腰 後因姪生一男 年十五 自稱甄萱……(『三國遺事』卷2, 後百濟 甄萱)

8 최상수, 전계서, p.467.

9 ……虎景遺告平那郡 來葬九人 先祀山神 其神見曰 予以寡婦 主此山 幸遇聖骨將軍欲與爲夫婦 共理神政 請封爲此山大王 言訖 與虎景九隱不見 郡人因封虎景爲大王 立祠祭之 以九人同亡 改山名曰 九龍 虎景不忘舊妻 夜常如夢來合 生子曰 康忠(『高麗史』「世系」)

이들 이야기의 공통 화소는 다음과 같다.

- 1) 밤마다 한 여인의 방으로 남자가 찾아온다.
- 2) 남자의 몸에 바늘을 끓여 찾아가 정체를 살피니 신이(神異)한 존재(存在)이다.
- 3) 여자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비범(非凡)한 인물이 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이물(異物)에 대한 해석이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물을 ‘신격을 갖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는 마지막에 예로 든 성골장군(聖骨將軍)과 강충(康忠)의 경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성골장군이 산신과 함께 사라진 후, 밤마다 옛 치를 찾아 왔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기본 구도는 야래자전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불확실했던 부계가 분명해진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밤에 찾아온 성골장군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었던 성골은 이미 제향(祭享)을 받는 신격(神格)을 갖게 된 인물이다. 야래자전설의 이물이 신격을 갖춘 아버지로 치환된 것이다. 이는 결국, 당대 사람들이 야래자전설에 등장하는 이물은 곧 신성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신이한 부계를 가진 아이는 비상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 이 이야기에서 탄생한 인물이 모두 왕이 되거나, 창업주(創業主)가 된다는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관심을 기울일 것은 모두 부계가 신이한 인물로 설정된 반면에 모계는 확실히 일반인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 정도에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를 매개로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화시대처럼 신과 신의 결합을 통한 영웅의 탄생을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미 신화시대는 한참 지났기 때문이다. 고대 건국신화 이후, 더 이상 영웅의 탄생담에서 부모 모두를 신으로 설정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의 신이한 혈통을 담보해주는 탄생담으로 등장한 것

이 ‘야래자 전설’인 것이다.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은(모두 부계父系) 신이한 존재로 설정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변모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과는 별도로,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에 대한 탄생담에는 태몽이 등장하기도 한다. 대체로, 왕이나 창업주의 탄생에는 ‘야래자 전설’이 동원되지만, 그 외의 뛰어난 인물에 대해서는 태몽이 탄생의 신이성을 담보해준다.

태몽이란 어떤 인물을 임신하기 전에 부모가 꾸는 꿈을 지칭하는 것이다. 태몽은 그 인물이 탄생할 것이라는 초월적이고 비현실적인 암시를 준다. 한마디로 태몽은 해당 인물이 그냥 막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그 꿈이 있었기에 그 인물이 탄생하였다라는 등식을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 뛰어난 인물의 탄생에 부여된 태몽은 그들의 현실에서의 활약에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태몽은 더 이상 부모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신적(神的) 존재로 설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고대 위인들의 탄생과 관련된 태몽의 다양한 양상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숙종조)』 등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⁰ 이상의 자료에서 드러나는 태몽은 이인형(異人型), 사물형(事物型), 점지형(點指型)으로 나눌 수 있다. 이인형은 어떤 인물과 관계된 꿈을, 사물형은 꽃, 별과 같은 사물과 관계된 꿈을 가리킨다. 점지형은 꿈속에서 누군가 나타나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알려주는 형태이다.

○ 이인형(천이인 見異人)

그 어머니가 꿈속에서 뺨이 있는 사람을 보고 임신하였다.¹¹

10 이상의 자료에 나타난 태몽을 살펴는 데는 장덕순 교수의 ‘說話分類表’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장덕순, 『한국 설화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부록 참고.).

11 其母夢見人有角而姍姍……(『三國史記』 卷46, 強首,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4, ‘충주 인물’에서도 보인다. 이하 『신증』으로 한다.)

만명(萬明)이 또한 신축(辛丑)날 밤에 꿈속에서 동자가 금빛 갑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임신하였는데……¹²

꿈속에서 거사가 방으로 들어오는데 아내도 같은 꿈을 꾸었다. 하도 이상해서 이튿날 사람을 보내 거사의 안부를 물었다. ……(중략) …… 거사가 죽는 날이 꿈을 꾼 날과 같은 날이었다. 공이 ‘아마도 거사께서 우리 집에 태어날 모양이요’라고 했는데 아내가 꿈 꾼 날부터 임신하였다.¹³

처음에 순우의 어머니 박씨(朴氏)가 정원에 불 밝히고 하늘에 자식 낳기를 비는데, 홀연히 꿈속에 조그만 아이가 동주에서 내려와……¹⁴

어머니가 오색 구름 속에서 여러 사람에게 둘러쌓인 청의 동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슴에 안기는 꿈을 꾸고 임신하였다.¹⁵

○ 사물형

처음에 어머니가 푸른 구슬을 삼키는 꿈을 꾸고 임신이 되었다.¹⁶

일찍이 꿈에 포룡(浦龍)이 와서 베속으로 들어가니, 놀라 깨어나 부모에게 말하였다
데……¹⁷

12 萬明亦以辛丑之夜 夢見童子衣金甲乘雲入堂中尋而有娠 (『三國史記』卷41, 金庚信, 『신증』 권 32 김해 인물에도 보인다.)

13 夢見居士入于堂中 室家同夢 驚怪尤甚 翌日使人問居士安否 ……(中略)…… 其死與夢同日矣 公日殆居士 誕於吾家爾 妻氏自夢之日有娠 (『三國遺事』卷 2, 孝昭王代 竹旨郎)

14 初純佑母朴氏 點燈庭中 祈嗣于天 忽夢有小兒 從燈柱而下 奉而懷之……(『高麗史』列傳 12, 李純佑)

15 母夢五色雲間 有象環推一青衣童 自天墮懷中遂有娠……(『高麗史』列傳 16, 金慶孫)

16 初母夢吞青色珠而有娠……(『三國遺事』卷 5, 明節神印)

17 試夢浦龍來入腹中 警覺而語父母……(『신증』, 卷 35, 羅州牧 佛宇 惠宗)

방경의 어머니가 임신할 때 자주 구름과 놀을 먹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일찍이 남들에게 밀하기를 ‘구름의 정기가 내 입과 코에 있으니 아이는 반드시 신선 중에서 오리라’고 했다.¹⁸

어머니 이씨가 임신이 될 때 꿈속에서 난초를 품었다가 홀연 떨어뜨렸다.¹⁹

어머니가 홀연 별이 떨어져 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하니……²⁰

서현(舒玄)이 경진(庚辰)날 밤에 형혹(熒惑) 진(鎮) 두 별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꿈을 꾸었는데……²¹

처음에 어머니가 유성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하였다.²²

아버지가 큰 별이 집에 떨어지는 꿈을 꾸고 마침내 서를 낳았다.²³

어머니 고씨가 명성(明星)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현을 낳았다.²⁴

어머니가 해가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하였다.²⁵

처음에 어머니가 하늘이 아주 빨갛게 된 데서 해가 붉은 기운을 갖고 품속에 들어오

18 初方慶母有娠 厲夢餐雲霧 詞語人曰雲氣常在吾口鼻 兒必神仙中來……(『高麗史』列傳 17, 金方慶)

19 母李氏有娠 夢拘蘭盆忽墮……(『高麗史』列傳 30, 鄭夢周)

20 母忽夢星墮入懷 因而有娠……(『三國遺事』卷 4, 慶藏定律)

21 舒玄庚申之夜 夢熒惑鎮二星 降於已(『三國史記』卷 41, 金庚信)

22 初母夢流星入懷 因有娠……(『三國遺事』卷 4, 元曉不羈)

23 父夢大星墮其家 遂生瑞……(『高麗史』列傳 18, 趙仁規 中 趙瑞)

24 母高氏夢明星入懷 中 生台鉉……(『高麗史』列傳 23, 金台鉉, 『신증』 권 35, 光山縣 人物에도 보인다.)

25 母夢日入懷 因有娠……(『高麗史』列傳 18, 趙仁規)

는 꿈을 꾸고 임신하였다.²⁶

임신할 때 부부인(府夫人)이 달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²⁷

○ 점지형(점지點旨)

그 달 15일에 꿈속에서 하늘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작은 부인으로 하여금 남아를 낳게 하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왕이 깨어나 군신에게 이르기를 …… (중략) …… ‘내게 소후가 없으니 어찌한다’고 하더라.²⁸

우리의 익조와 정숙 왕후가 하늘에 후사를 점지해 줄 것을 빌었는데 밤에 꿈속에서 어떤 가사 입은 스님이 와서 고하기를 ‘반드시 귀자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선래라고 하라’고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도조께서 탄생하셨다. 이름을 선래라고 하였다.²⁹

이상의 태몽에서 주목할 것은 부모 모두에게서 신성(神性)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부모는 모두 우리와 같은 일반인에 지나지 않는다. 왕이 태몽을 꾸기도 하지만, 이때의 왕은 지위를 가진 것일 뿐, 일반인과 다른 특수성을 갖춘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뛰어난 인들에게는 그만큼 신이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의 전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역사 속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

26 初母夢天爛赤 日輪帶赤暉入懷中 因有娠……(『高麗史』列傳 21, 金怡, 『신증』 권 24, 안동 인물에도 보인다.)

27 檟姫之時 府夫人夢月入懷……(『朝鮮王朝實錄』肅宗 14년 9월)

28 是月十五夜 夢天謂日吾今汝少后 生男勿憂 王覺語君臣曰 ……(中略)…… 而無少后奈 何……(『三國史記』卷 16 上山王 7년)

29 我翼祖與貞淑王后 賽此祈嗣 夜夢有一衲衣僧來 告曰必生貴子 其名善來 未幾 度祖生 遂以善來名之 (『신증』 권 44, 양양佛字)

는 무엇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즉, 우리와는 무언가 다르게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이미 부모를 신성화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따라서 부모를 신성화하는 일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인물이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낼 수 있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바로 태몽이라고 생각한다.³⁰ 위에서 제시한 태몽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그 인물의 탄생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태몽을 통하여 신이함을 부여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소설 시대 이전의 신이한 탄생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체로 부모의 성격이 신(神) – 신(神), 신(神) – 인(人), 인(人) – 인(人)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두 경우는 부모에게서 신이한 혈통을 당연히 물려받는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별도의 문학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일반인이 부모인 마지막 경우에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태몽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태몽과 신이한 혈통은 영웅군담소설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3. 영웅군담소설 주인공의 신이한 탄생 양상과 의미

조선 후기에, 훌륭한 기문의 중로부부(中老夫婦)에게서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후 현실 속에서 고난에 처하지만 결국 전쟁에서의 활약을 통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인공의 일대기를 그런 작품들이 많이 산출되었다. 이를 작품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었던 듯하다. 현존하는 작품 수도 만만치 않

³⁰ 태몽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이라는 논의가 있다(김석하, “고대소설 주인공에 나타난 Supernatural Birth에 관한 고찰, 『단국대 논문집』 3, p.14). 그러나, 꿈이라는 보편적 현상이 중국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몽 역시 신이한 혈통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을 뿐만 아니라, 각 작품마다 가지고 있는 이본의 양도 대단하다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일군의 작품들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영웅소설 또는 군담소설로 지칭되고 있다. 그런데, 영웅소설은 이른바 ‘영웅의 일대기’ 구조³¹에 바탕을 둔 용어이다. 반면, 군담소설은 작품의 소재인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조동일이 영웅소설을 규정하는 데 근거로 삼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는 특별히 ‘전쟁’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다. ‘고난 극복 여부’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굳이 전쟁을 통한 극복이 아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숙향전」, 「춘향전」 등도 영웅소설의 범주에 들게 된다.³² 이럴 경우, 심각하게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영웅’의 성격이다. 서대석의 지적대로 영웅은 집단의 가치를 우선하여 실현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다.³³ 그렇다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숙향이나 춘향과 같은 주인공을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작품의 소재인 ‘전쟁’의 존재 여부로 이름 한 군담소설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군담소설이라는 용어에서는, 일단 구조적인 면이 고려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단지 ‘전쟁 서술’을 명명(命名)의 근거로 한다면, 여기에 속하는 작품의 외연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대장편소설에서도 전쟁은 가문의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곤 한다. 이 경우, 이들 작품도 군담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대석은 군담소설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각 작품의 순차 구조에 바탕을 두고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³⁴ 그 결과 현재 학계에서는 ‘군담소설’이라고 하면 영웅소설 가운데 전쟁을

³¹ ‘영웅의 일대기’는 조동일에 의하여 정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귀한 혈통을 가진 인물이다. 2) 비정상적으로 임태되거나 출생했다. 3)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 났다. 4) 어려서 죽어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5) 救出·養育者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6) 자라서 다시 위험에 부딪쳤다. 7)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조동일, “英雄의一生, 그文學史的展開”, 『동아문화』 10, 1971).

³² 상기 논문에서 두 작품을 영웅소설의 범주에서 다투고 있다.

³³ 서대석, “英雄小說의 전개와 변모”, 『古小說史의 諸問題』, 集文堂, 1993, p. 331.

소재로 하는 작품까지를 포함하는 용어라는 사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웅소설과 군담소설은 대체로 작품을 공유하지만, 서로 자기 영역에만 해당하는 각각의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의 입론을 따를 때, 「유충열전」은 영웅소설이면서 군담소설일 수 있지만, 「춘향전」은 영웅소설일지는 몰라도 군담소설일 수는 없다. 본항에서는 이들 작품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고난 극복의 수단으로 전쟁이 등장하는, 즉 영웅소설과 군담소설이 공유하는 작품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영웅군담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영웅군담소설은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 주인공의 신이한 혈통에 관심을 집중한 유형이다. 이미 조동일의 연구에 의하여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고구려 건국신화인 ‘동명왕 신화’에 바탕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제기된다.

영웅군담소설은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유형인데, 그때 고구려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이다. 주지하다시피,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의 신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전승될 수 없다. 실제로 고구려는 통일신라 이전에 멸망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시대의 문학에 고구려의 건국신화의 구조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이 이유는 고려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는 고구려를 이었다고 친명한 나라였다. 이 때문에 다른 신화와는 달리 고구려 건국신화는 고려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전승될 수 있었다. 고구려 건국신화가 전승되고 있었던 고려 후기의 정황을 이규보의 『동명왕편』 서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한 일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서, 비록 어리석고 미친한

34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대 출판부, 1985.

35 이하, 연구자들이 영웅군담소설 또는 군담소설로 지칭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고에서 정의한 범위에 포함될 경우, 영웅군담소설로 통칭할 것이다.

남녀들까지도 자못 그 일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³⁶

어리석고 미천한 남녀들까지 동명왕의 신이한 사적을 다 알고 있을 정도라는 서술을 통해 볼 때, 고려 후기까지 고구려 건국신화가 활발하게 향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조선시대에 발생한 영웅군담소설이 '동명왕 신화'의 구조에 바탕을 둘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영웅군담소설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인공의 탄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명문 가문의 중노부모(中老父母)

2) 무자(無子)

3) 기자치성(祈子致誠)

4) 태몽(胎夢)

5) 신이(神異)한 해복(解腹)

6) 영웅적(英雄的) 기상

이 과정은 일반적인 서술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명문 가문의 나이든 부부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탄식하던 중에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치성을 드린 후, 밤에 태몽을 꾸고는 아이를 갖는다. 10달(작품에 따라서는 20달도 있음)이 지나 아이를 출산하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해산을 돋는다(또는 향기가 가득하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비범함을 보인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태몽이다. 태몽은 자식이 없던 상태가 자식이 있는 상태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영웅군담소설에서 영웅적 주인공의 탄생에 태몽을 이

³⁶ 世多說東明王神異之事 雖愚夫?婦亦頗能說其事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3, 東明王篇 幷序)

용한 것은 인(人) – 인(人)의 관계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물에게 신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소설 시기 이전의 태몽을 응용한 것이다. 그런데 태몽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별기를 다한 후에 만심고대하던 차에 하루는 한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생기면서 한 선관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 말하기를 ‘나는 청룡을 차지한 선관인데, 익성이 무도하여 옥황상제께 아뢰어 익성을 다른 곳으로 귀향을 보냈더니 익성이 그것에 앙심을 품었다가 백옥루 잔치에서 나와 싸움을 벌인 뒷에 죄를 얹어 인간 세상에 내쫓기게 되어 갈 곳을 몰랐는데 남악산 신령이 부인 집으로 가라고 지시하기에 왔으니 부인은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색 구름 사이로 보내며 후일 너를 다시 찾을 것이라고 한 후 부인 품으로 달려들거늘 부인이 놀라 깨니 꿈이었다.³⁷

(현대어로 바꾼 것은 필자가 하였음. 이하 같음)

한 어린아이가 푸른 옷을 입고 들어와 절하며 말하기를 나는 남해 용자인데 부왕을 모시고 천궁에 갔다가 태백과 승부를 다투다가 죄를 입었다. ……(중략)…… 나를 인간 세상에 내치시는 바람에 어디로 갈지 몰라 주저하고 있었는데 마침 남해 중림사 관음보살이 여기로 가라고 지시하시기로 왔습니다.³⁸

하늘로부터 푸른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운무에 쌓여 내려와 절하고 말하기를 나는 동해 용자로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내쳐지게 되어 갈 곳을 알지 못하다가 금불암부처가 지시하여서 왔습니다.³⁹

이상의 작품 외에도 「장익성전」, 「홍계월전」, 「왕장군전」, 「장국진전」 등 많은 영

37 「유충렬전」, 「경인 고소설 판각본 전집」 2 (김동우편, 인문과학연구소, 1973) 이하 ‘판각본 전집’이라 함.

38 「광해룡전」, 「활자본 고소설 전집」 1 (김기동 편, 아세아 문화사, 1976) 이하 ‘활자본’ 전집이라 함.

39 「어룡전」, 「활자본 전집」 4

웅군담소설들이 유사한 태몽 양상을 보여준다.

이들 태몽은 “저는 ○○인데 ○○의 내침을 받고 ○○의 지시로 귀택에 왔다”는 공통된 서술을 보인다. 그런데, 이때 부모는 수동적이다. 주는 것을 받을 뿐이지 자신이 선택할 여지가 없다. 주인공의 부모를 중로부부로 설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로부부는 사실상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아이를 출산하기 힘든 존재이다. 중로부부는 주인공의 탄생에서는 단순히 몸만 빌려주는 존재일 뿐이다. 자신들이 치성을 드린 대상의 지시로 온 인물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못한다. 중로부부는 소설의 주인공에게 영웅성을 부여하는 것이 신화나 전설에서 보이는 부모의 신성성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설정인 것이다. 주인공의 신이성은 태몽 속에서 부여된다.

앞에서 예로 든 태몽의 서술에서 보면 주인공은 인간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는 모두 천상적 존재이거나 천상적 존재와 관련된 인물이다. 주인공이 천상적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건국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영웅군담소설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천상적 혈통은 건국신화와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의 단서는 영웅군담소설의 기본 구조가 ‘동명왕 신화’에서 보이는 ‘영웅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명왕은 천제인 해모수(解慕漱)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천상적 혈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명왕 신화’의 이러한 모습이 영웅군담소설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영웅군담소설이 등장한 소설 시대는 부모를 신적인 존재로 설정할 수 없던 시기이다. 이미 이때에는 위대한 인물의 탄생에 태몽이 보편화된 시기이다. 이런 이유로 영웅군담소설은 주인공의 탄생에 일반 독자들에게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는 태몽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역사적 위대한 인물의 탄생에 수반되고 있는 태몽의 방식으로는 주인공이 신이한 혈통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기에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웅군담소설에서는 태몽 속에서 천상의 성(星)이거나 용자(龍子), 선녀(仙女)였던 존재들

을 의인화시켜 자신의 신분을 직접 표출하게 함으로써 천상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당시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던 태몽을 이용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혐의를 벗으면서 동시에, 영웅의 원형도 깨뜨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영웅소설에 드러나는 태몽에 있어서의 천상적 이미지는 바로 신화적 신성의 소설적 치환 형태인 것이다.⁴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논쟁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영웅군담소설의 주인공에게 주어진 ‘명문거족출신’이라는 것이 신화적 영웅에게서 드러나는 고귀한 혈통과 관련이 있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⁴¹ 그러나 주인공이 천상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태몽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해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⁴²

작품 속에 설정되어 있는 명문거족은 주인공의 탄생과 유기적인 관련성이 없다. 주인공은 기자치성에 의한 태몽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지, 그 집안이 명문거족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인간 세계의 부모들은 그저 다가오는 주인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어디에서도 명문거족이라는 배경이 탄생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영웅에게 영웅성을 부여하는 것이 ‘신이한 혈통’이라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명문거족이 ‘고귀한 혈통’의 변형태라고 한다면, 영웅군담소설의 주인공은 명문거족의 혈통에서 영웅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⁴⁰ 물론 영웅 소설 중에서도 단순히 태몽만을 차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홍길동전」, 「이대봉전」) 태몽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조옹전」, 「유문성전」, 「권익증전」)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거의 다 민속적인 기원이거나 집단적 기원일 경우, 처음에 작가는 자기 기능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다만 그런 주제를 작품화 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태몽을 차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태몽이 없는 작품의 경우에는 서사 진행 속에서 주인공이 천상적 신분의 고귀한 혈통임을 밝히고 있어, 영웅군담소설의 주인공이 천상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본고의 논의에 부합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치균, “영웅군담소설 연구·탄생과 투쟁을 중심으로”,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85, pp. 52-56 참고.

⁴¹ 조동일은『한국 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 1977)에서 영웅의 일생 중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항목에 영웅군담소설에 드러나고 있는 “부모가 명문 귀족임”을 대입시켰고, 서대석은『군담 소설의 구조와 배경』(이화여대출판부, 1985)에서 주인공이 명문거족에서 태어나는 것이 신화에서의 고귀한 혈통에 영향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⁴²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자에 의하여 오래 전에 이루어진 바 있다(임치균, 전계논문). 본고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은 이 논문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웅군담소설에 설정된 명문거족은 주인공에게 영웅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작품 속에서의 명문거족은 초월적 지시자의 지시에 의해 천상적 존재가 적강하는 환경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명문거족은 주인공의 고귀한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문거족이 주인공 탄생의 배경으로 설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명문거족이라는 배경은 단순히 주인공의 고난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영웅군담소설에서 주인공이 탄생하고 나면, 명문거족의 가문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몰락함으로써 주인공을 고난에 처하게 한다. 천상의 혈통을 가지고 명문거족에 태어나 행복하게 생활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주인공이, 가문의 몰락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독자들은 그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게 된다. 더욱이 기자치성(祈子致誠) 끝에 간신히 얻은 귀한 외아들이라는 사실은 독자들의 이러한 연민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주인공이 겪는 고난을 안타까워했을 것이고, 그의 행적을 주시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고난의 극대화는 결국 고난 극복을 이룩한 주인공의 행위를 더욱 극적이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간신히 얻은 이러한 문학적 장치는 영웅군담소설이 조선 후기의 소설 가운데 가장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이 짙은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한 동력인 것이다.

태몽을 통하여 확인된 신이한 혈통은 그후 주인공이 고난에 처했을 때에 초월적 인 조우(助佑)을 정당화하고, 주인공으로 하여금 영웅성을 갖게 한다. 그와 함께 작품 결말 부분에 이루어지는 국가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전쟁에서 주인공이 승리하여 개선하는 것을 당연하게 한다. 이를 위하여 영웅군담소설의 작가는 전쟁에 앞서 주인공의 전신분(前身分), 즉 주인공이 천상적 존재임을 재차 강조한다.⁴³ 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군담소설의 주인공은 그 동안 한 개인으로 존재하던 모습에서, 집단을 지켜내고 집단의 가치를 우선 실현하는 집단의 영웅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전쟁 수행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웅군담소설에서 주인공이 활약하게 되는 전쟁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다. 주인공이 이러한 전쟁에서 활약하여 개인적인 영달을 이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인공은 집단의 가치와 이념을 수호한 영웅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영웅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다.⁴⁴

다른 유형의 작품에서도 영웅군단소설과 같은 모습의 태동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서는 주인공 개인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4. 결론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산부와 대화할 때, ‘임신할 때 무슨 꿈을 꾸었나?’는 질문을 종종 한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매우 진지하고 흥미롭게 듣는다. 나아가 그 꿈의 내용을 바탕으로 태아의 성별을 추측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탄생과 관련된 ‘태동’을 알고 있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태동은 사실상 신화적 영웅에게 부여되었던 신이한 혈통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 전승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위대한 인물에 부여되었던 태동이 지금은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의 탄생의 징조로 확대되어 수용된 것이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장치들이 모범적인 선례나 규칙으로 통용되는 순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공식적이고 관습적인 어떤 것이 되는 것이다. 태동의 확산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확산된 데에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애정과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식은 위대한 인물과 마찬가지로 태동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매우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태동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결코 태동의 확산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이

⁴³ 대표적으로 「조옹전」, 「유문성전」, 「유충렬전」 등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임치균, 전개논문, pp. 53~55에 자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⁴⁴ 건국신화의 주인공이 바로 그 집단의 영웅인 것과 상통한다.

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최소한 두 가지 의식을 포착할 수 있다.

첫째, 인간에 대한 평등의식이다.

위대한 사람의 탄생의 조짐으로 드러난 것이 태몽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것은 결국, 누구나 위대할 수 있다는 사고의 결과이다. 탄생이라는 출발선상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은 평등의식이다.

둘째, 인간에 대한 존엄의식이다.

남녀가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과학적 사고이다. 그러나, 남녀의 성적 결합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아이가 그때마다 생기는 것은 아니다. 태몽을 믿는 사람들은, 아이를 선택된 존재로 생각한다. 선택되었기에 태몽을 통하여 아이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라고 본다. 인간은 함부로 세상에 태어난 것 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라는 인식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존엄의식의 극치이다.⁴⁵

이러한 의식이 담겨 있는 태몽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 부모로부터 자기의 탄생과 관련된 태몽을 들은 아이들은 그전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신이한 혈통의 전통은 지금도 살아 있는 현재태(現在態)인 것이다.

⁴⁵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고 한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10개월을 생명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인간존엄의식의 한 표현일 것이다.

하이퍼텍스트—새로운 예술의 패러다임

김 병 선

한국학중앙연구원

1. 정보시대의 문학사회학

‘문학(文學)’을 뜻하는 영어 단어 ‘literature’는 ‘문자(文字, letter)’라는 말에서 비롯되었고, 한자의 ‘문(文)’ 역시 글월(글자와 문장)을 뜻하는 말이다. 문자는 정보 전달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반드시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매체와 공생하고 있다.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록 매체를 발전시켜온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개혁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심지어 ‘종교개혁은 인쇄술의 자녀’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소수의 성직자에 의해 독점되던 ‘책’과 그에 담긴 정보 내용이, 구매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면서, 종교적 도그마(dogma)의 권위가 무너져내렸던 것이다.¹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통사회에서 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웠던 일이었다. 웬만한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책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책을 읽어 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수련이 필요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책을 내기는 더

1 부뤼노 블라셀(1999)의 『책의 역사: 문자에서 텍스트로』(권명희 역, 시공사), pp. 73~74)에 따르면, 1520년에 발행된 루터의 ‘독일 국민의 고귀함에 대하여’라는 팜플릿 4,000부는 며칠 만에 동이 나버렸고,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서의 경우 1522~1546년 사이에 무려 430쇄를 인쇄할 정도였다고 한다.

육 힘들어서 한 사람의 저작집을 당대에 출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적어도 3대, 4대가 힘을 모아야만 할아버지의 문집을 낼 수 있었다. 그러니 책을 내는 일은 정말 거룩한 뜻을 가진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것은 봉건사회를 밀어낸 산업사회, 시민사회의 개막과 함께 시작되는데 그러한 산업사회, 시민사회는 근대적 출판과 유통의 뒷받침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출판 과정이 수월해지고, 유통망이 형성되면서 비록 독자층은 크게 확장되었지만, 저작 활동이 출판으로 연결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비록 출판에 소요되는 비용이 봉건사회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저작물은 출판사의 외면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무언가 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관행은 아직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어찌 보면 산업 사회에서 문학이 그 신성함을 유지해왔던 것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던 작가 입문의 과정이었다고 본다. 작가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난한 수련 과정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1년에 몇 명밖에 뽑히지 않는 신춘문예의 관문이나, 문예지의 추천을 거쳐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시인, 소설가, 수필가의 칭호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외국에서처럼 출판사의 출판 계획에 따라 작가로 데뷔하는 일은 드물다.

그런 과정을 겪고 막상 작가가 되었다고 해도 국가에서 녹을 주는 것도 아니요, 문인협회나 문예진흥원 등에서 고정된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다. 신문이나 잡지의 지면을 할애받아야 하고, 출판사의 눈에 들어야 한다. 문학상이라도 하나 받으면 앞길이 트이게 되는데 그것도 거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입문의 과정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 과정을 도중하차한 사람, 아예 작가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작품을 자비로 출판해서 주변의 친지 친구들과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여튼, 문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일종의 거룩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한편 문학의 거룩성은 작품의 출판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출판으로 완결되는 저

작물은 유통의 과정에서 변경되지도 않고 또 변경될 수도 없다. 한 번 출판되면 그 뿐이다. 따라서 작가와 편집자는 그러한 출판물의 완결성을 위해 여간 정성을 쓸지 않는다. 때로 작가와 편집자는 자구 하나, 토씨 하나, 심지어는 문장부호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며, 그 과정에서 다툼도 발생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저작물은 작가의 분신이나 다름이 없고, 그러기에 누군가가 도용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에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작품을 자신의 분신, 즉 하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산업사회를 대체하기 시작한 정보사회(information oriented society)는 문학과 그것을 둘러싼 소통 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직전의 산업 사회까지 유지되던 문학의 신성성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작가를 등용하기 위한 장치가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러한 장치가 아닌 새로운 장치를 통하는 작가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의 등용문이 문학잡지나 일간지 등 발표지면을 쥐고 있는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장치는 발표지면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래의 독점적 발표 수단을 무너뜨린 새로운 장치, 새로운 발표지면이란 무엇인가? 바로 컴퓨터와 그것을 연결해주고 있는 통신망을 매개로 하여 만들어진 가상세계(virtual world)의 매체(media)다.

아마도 전통적인 저작 - 출판의 과정에 익숙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 매체가 세상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고 있으며, 때로는 기존 매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선 이상한 사람들이 작가로 등장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밟았던 지난한 입문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아니다. PC통신 게시판에 글을 연재하다가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작가 대접을 받은 것이다. 자신들이 수없이 많은 원고지를 축내며 습작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그러한 젊은(더러는 어린) 나이에, 이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라서기도 한다. 그들이 쓰는 작품이란 어떤 것인가? 과학기술의 발달을 소재로 한 환상적인(fantastic) 것으로서 작품에 대한 비평에서 논의되는 ‘인물(character)’의 성격과 ‘구성(plot)’을 위해 크게 고민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날마다 자기들의 작품에 쏟아지는 독자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즐기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독자들과 더불어 작품을 이끌 어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작가나 글 쓰는 계층의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글 읽는 자 역시 크게 달라져 있다. 글 쓰는 자는 또한 글 읽는 자이기에, 글 읽는자의 변신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X세대니 N세대니 하여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다. 새로운 세대는 영상 매체 활용의 천재들이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TV 앞에서 생활해 왔으며, PC 방에서 게임에 몰두해 있고, 음성 통신용 이동전화로써 문자통신을 즐기는 세대이다. 그들은 잡지책을 뒤적거리는 것보다 인터넷 서핑(surfing)을 즐기며, 두껍고 무거운 백과사전의 설명보다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찾은 내용을 더 신뢰한다.²

작품의 제작자와 향수자 뿐만 아니라 작품의 소통 방법도 달라졌다. 인터넷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책으로 작품을 출판하던 기존 작가들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소위 전자책 사업에 뛰어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출판사들이 온라인 구매를 지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둘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산업으로의 업종 변환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컴퓨터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이다. 그저 전자책(e-book) 한 권을 들고 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유명 작가의 연재소설을 다운로드(download)할 수 있으며, 잔디밭이나 공원의 벤치 그리고 침대 위에 드러누워서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인쇄 품질의 화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사회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급격하게 이행하면서, 사회 모든 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문학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의 근본 방식이 바뀌고 있는 마당에 문학의 창작과 출판 그리고 독서 과정까지의 모든 현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학의 토양을 이루는

² 그래서 오늘날의 아이들을 '영상 아이들(video kids)'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의 아이들이 신문을 보는 유일한 이유는 TV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컴퓨터, TV와 보낸다.

사회의 변화는 문학사화학 연구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하이퍼텍스트는 새로운 예술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2. 언어는 원래 디지털이었다

컴퓨터에서 구현되는 것을 가리켜 흔히 디지털 세계(digital world)라 한다. 모든 것을 디지털로 치환하여 표시하고, 계산하고, 처리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디지털’ 이야기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도서관도 디지털 도서관(전자도 서관), 작가도 디지털 작가, 음악도 디지털 음악,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³…… 모든 것에 디지털이라는 수식어만 붙이면 정말 ‘최신의’, ‘첨단의’, ‘깔끔한’ 등의 이미지를 풍긴다. 기존의 것에 디지털의 수식어를 붙이면서, 기존의 것을 디지털화하면서, 아니 아예 디지털로만 된 것을 만들어내면서 세상은 새로운 경지로 진입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망설이고 주저한다. 그러면서 모든 과도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부각시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세계가 가져다줄 아름다운 미래에의 꿈에 젖어서,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어떠한 태도로 즐길 것인지, 나이가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

과연 디지털 세계는 무엇인가? 그저 컴퓨터가 사용되는 것만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로 나타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보기로 한다.

디지털(digital)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숫자형’, ‘수치형’이라는 용어로 번역되

³ 국내의 어떤 전자제품 회사는 아예 디지털(digit all)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디지털(digital)이라는 말을 재치 있게 변형한 것이다.

기도 하는데, ‘연속형’이라고 번역되는 아날로그(analogue)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어떻게 ‘수치형’과 ‘연속형’이 대립되는 개념이 될 수 있는가? ‘수치형’은 그러니까 ‘연속형’의 부정개념인 ‘비연속형’과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형’이라는 것은 정보의 표현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수치형은 모든 정보를 수치로 재현한다. 연속형은 현상의 변화하는 모습을 연속되는 정보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자. 이를 수치형으로 나타내려면 지정된 시간 간격마다 온도를 채서 다음과 같은 표(table)로 나타낼 수 있다.

시각 오전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전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온도	20°	24°	27°	30°	32°

표1 디지털 정보 표현의 한 예

만일 연속형으로 나타낸다면, 온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측정의 결과를 다음과 같은 그래프(graph)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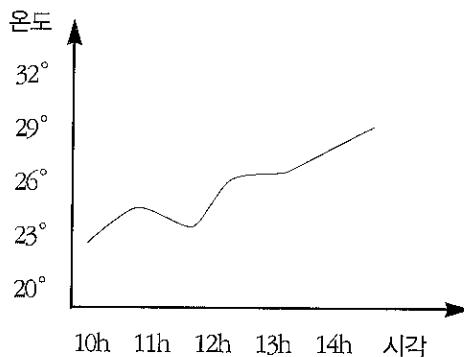


표2 아날로그 정보 표현의 한 예

온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자연 현상은 본질적으로 연속형(analogue) 정보이다. 그러니까 연속형 정보를 연속형으로 재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울 것이 없으나, 그것을 수치형으로 재현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이 두 가지 정보 표현에서 우리는 수치형과 연속형의 차이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표1>은 일정한 시간 단위

로 측정한 결과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표2>에서 보이는 온도 변화의 구체적 양상을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은 측정 단위를 더 작게 만드는 일이다.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온도 측정을 하고 그것을 수치로 보여준다면 우리는 실제의 온도 현상의 변화를 거의 근사하게 나타낼 수 있다.

오늘날 음악예술의 중요 재현 매체로는 레코드판이 아니라 컴팩트디스크CD가 있는데, 레코드판LP판이 연속형 저장 매체라면, CD는 바로 수치형 저장 매체다. CD라는 것은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부터 일상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초기의 디지털 매체인데,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음의 특성을 숫자로 나타낸다. 만일 1초 단위로 음의 특성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소리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 CD에서는 44KHz, 즉 1초에 44,000여 번이나 음파를 추출하여 음을 나타낸다. 우리의 청각은 그 정도로 소리를 잘게 나누면 그 소리가 연속되고 있다고 착각한다.⁴ 우리의 시각은 청각보다는 더 예민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막상 1/24초를 넘어선 것이면 연속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1초에 30프레임을 보여주는 영화는 인간의 그러한 시각적 착각 현상(착시현상)을 노린 것이다.

디지털 표현은 모든 수치를 0과 1이라는 2진법의 숫자로 표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진법을 사용하든, 10진법을 사용하든, 16진법을 사용하든 숫자로 나타내면 디지털 데이터(digital data)가 된다. 그런데 왜 유독 2진법을 고집하는 것일까? 그건 단지 처리의 편리함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전기로 작동되며 모든 수치는 전기의 값으로 치환되어 움직인다. 전기의 값은 물론 볼트 값(voltage)이나 전류 그리고 주파수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가장 오차 없이 확실한 것은 켜지고on 꺼지는 off 상태인 것이다. 그것을 숫자 1과 0에 대입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수치형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0과

⁴ 이날로그 LP 음반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디지털 CD 음반에 맛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청각적 착각에 속지 않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가상적으로 그러한 청각적 착각에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다. 아무리 원음과 가깝게 샘플링(sampling)했다고 하더라도, 비록 인간이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를 귀로 들어分辨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CD의 디지털 음은 0과 1의 연속으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의 단순 값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 등의 정신현상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신체 내의 어떠한 물질의 분비 혹은 움직임이며, 따라서 그것을 측정할 수만 있다면, 수치형으로 나타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그냥 생각만으로도 컴퓨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일이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는 과연 인간의 감정과 정서, 이성적 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술적 저작활동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인간이 창작을 한다는 것은 상상력으로 창조한 세계를 적절한 매체를 통해서 재현(representation)하는 일이다. 문학의 경우에는 이때 언어, 더 구체적으로는 문자를 사용한다. 인간의 언어는 재현의 도구이자 직접적인 현시(presentation)의 도구는 아니다. 이 언어야말로 일차적인 디지털화의 관건이다. 하나의 작품 내부에 들어 있는 세계는 언어적 번역(verbal translation)의 과정을 거쳐서 독자에게 전달되며, 한 번 이러한 언어적 번역이 일어난 작품이라면, 그것의 디지털화는 단순히 컴퓨터의 문자 코드 체계만 결정하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더 간단히 말한다면, 문자화된 작품은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악 혹은 소리의 디지털화를 포함한 모든 자연 현상의 디지털화와 언어의 디지털화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언어 자체가 이미 일종의 디지털화 과정을 겪은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디지털화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음악은 애초에 아날로그 데이터형이었던 것이, 컴퓨터로 입력되면서 디지털형으로 바뀐 것이고, 문학은 문자로 되어 있어 애초에 그것이 디지털이었기 때문이다. 문학의 매체가 되는 언어가 비록 0과 1의 2진법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진법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세계의 0과 1이 실재의 연속성을 허물어버린 것처럼, 언어는 그것이 등장한 아래로 실재의 연속성을 허물어버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의 언어는 그것이 사물 그 자체였지만, 이미 사물이 아니고, 하나의 기호 혹은 개념일 뿐이다.⁵

예를 들어 색채감을 표현하는 말들을 가지고 따져보자. 무지개의 색을 표현하는 것은 언어마다 그 언어의 색채어가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것과 그것을 표현하는 관습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무지개의 색을 ‘빨주노초파남보’라고 배웠고, 그렇게 일곱 가지 색상으로 인식한다.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에는 무지개를 단지 두 색으로만 표현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지개는 광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시광선이 광장에 따라 연속적으로 표시되는 스펙트럼(spectrum)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색채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언어로써 정확하게 재현해낼 도리가 없다. 단지 관습상, 해당 언어가 가진 색채어의 다양성에 따라 재현될 뿐이다.

우리말에는 색채 현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 많이 있다. 가령 ‘붉다(red, 赤)’라는 색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붉다. 불그스름하다. 붉그데네하다. 별겋다. 뺨쫑다. 시뻘겋다. 붉으레하다. 붉으죽죽하다. 붉으스레하다. 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색채어로도 모든 색채 현상을 재현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 우리말에서는 ‘푸른 하늘’, ‘푸른 들판’이라 하여 청(blue, 青)과 녹(green, 緑)을 확실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어쨌든지 색채이라는 것은 색상의 스펙트럼에 대한 임의적 구획을 통한 명명일 뿐이다. 따라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에는 7진법을 사용하는 꼴이고, 무지개 색을 단 두 가지로만 표현하는 사람들은 2진법을 사용하는 꼴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이미 다소간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싱이 도입되던 초창기에 사람들이 혼히 가졌던 생각, 즉 ‘컴퓨터로 글을 쓰면 딱딱하다, 기계적이다, 정서적 표현이 어렵다’ 등등은 일시적 오해였을 뿐이라는 것이 손쉽게 해명된다. 단지 새로운 필기도구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다. 사실상 새로운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향유하는

⁵ 따라서 컴퓨터로 문학 작품을 쓰고, 컴퓨터의 세계를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파리의 지적은, 광장 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족어를 근간으로 하는 문학이 개인의 신화를 꿈꾸고 있다면, 2진 부호로 이루어지는 컴퓨터는 개인의 차 이를 분쇄하며, 전자가 깊이를 이룬다면, 후자는 넓이를 확대하고, 문학이 점착적이라면 컴퓨터는 휘발적인 것이다. —정파리(1995), 문학의 코메르루지즘, 『문학동네』 1995 봄, p. 23.

사람이 디지털화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다. 그림물감을 사용해서 풍경화를 그리는 화기가 물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것을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작 문제는 언어가 우리의 상상적 세계를 나타내기에 충분한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가 자리잡게 되는 공간, 즉 문서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적 세계 표현에 충분한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앞의 문제는 언어가 우리의 정서적 등가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며 기존 단어의 범주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과 관계가 있고, 뒤의 문제는 책을 만드는 관습이 우리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저작활동을 제약한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3. 컴퓨터 문학과 e-Book의 등장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시작된 정보사회에서 예술적 저작활동(artistic authoring activities)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 저작활동을 새로운 매체에서 실현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였을 때, 그러한 매체에 기존 예술 양식을 적용하려는 시도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기 마련이다. 우리가 흔히 '컴퓨터 문학' 혹은 'PC 통신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저작활동은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한다.

어떤 의미에서 PC통신에 연재되는 작품의 성격은 종래의 신문 연재소설과 유사하다. 단지 매체만을 신문지면에서 PC통신 게시판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이러한 연재물들은 여전히 독자의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종래의 신문연재소설이 독자들의 반응에 대해 비공식적이고 제한적으로 반응하였다면, PC통신의 연재소설은 아예 독자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공식적으로 무제한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는 점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문학 양식이 과도기적이라는 점은 PC통신의 인기 작품들이 결국에는 책으로 출판되어 마무리되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⁶

물론 PC통신에 연재되었을 때와 책으로 출판되었을 때, 그리고 영화로 제작되었

을 때의 텍스트를 비교하여 매체적 특성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여지는 있겠지만, 신문연재소설도 최종적으로는 단행본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그리고 영희화되는 일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우리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최근에 부쩍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자책(e-book)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러한 전통적 문학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예 새로운 매체에 적합한 저작활동을 하는 일이다. 물론 종래 매체에서의 저작활동과 맥락이 달는 일이긴 하겠지만, 이것은 혁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동시대의 거장 백남준의 경우를 말할 수 있다. 그의 비디오 예술(video art)은 매체적 특성으로 보면 시각적 성분으로는 비디오(video)와 설치 미술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청각적 성분으로는 소리(sound)와 음악(music)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에서의 저작 방식은 주로 편집적인 형태다. 이러한 형태의 예술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다. TV 모니터와 VTR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예술이다.

문학과 관련해 본다면 혁신적인 문학적 저작활동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이퍼미디어 예술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퍼미디어(hyper media)란 하이パーテ스트(hypertext)가 구현될 수 있는 매체(media)라는 뜻이며, 멀티미디어(multimedia)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술 양식은 우리에게 낯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예술 형태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본래부터 다매체적 존재이지 단매체적 존재가 아니다. 유기체로서 우리의 감각은 연계가 되어 활동한다. 우리는 모든 감각을 동시에 열어놓은 상태로 아름답고 고귀한 어떤 현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향내를 맡으며, 손으로 감촉

⁶ 이우혁의 『퇴마록』 1993년, 하이텔의 광포를 게시판인 SUMMER란에 연재했던 것으로, 이 작품이 인기를 얻자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인터넷에는 퇴마록에 대한 팬클럽도 운영되고 있다.

하고, 혀로 맛본다. 예초에 예술은 종합예술 형태가 아니었던가? 문자의 발명은 그러한 다매체적 예술적 현상을 단매체적으로 환원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매체적 괴리 때문에 인간은 많은 연상 작용(act of association)의 신세를 져야만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다매체예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적인 자연스러운 예술 활동의 연장일 뿐이며, 우리가 '원시종합예술'이라 부르는 예술 형태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매체로 인해 분리와 갈등의 시절을 겪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매체의 도움을 받아 통합과 조화의 시기를 회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예술 내부에서 새로운 예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서 새로운 예술 양식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가들인 바르트, 푸코, 테리다는 컴퓨터를 잘 알지 못했지만, 기존 텍스트에 대한 불만과 기존 텍스트의 피로감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주장 대부분이 묘하게도 하이퍼텍스트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⁷

4. 하이퍼텍스트 저작과 체험의 문법

하이퍼텍스트는 무엇인가? 그것은 종이문서에 의한 저작활동에 대한 하나의 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이퍼텍스트는 언어예술로서의 문학의 선형성(linearity)을 부정한다. 테드 넬슨(Ted Nelson)은 이 하이퍼텍스트란 말을 바로 하이퍼텍스트의 비선형적(nonlinear) 혹은 비연쇄적(nonsequential) 공간을 묘사하기 위해 창안했던 것이다. 정보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하이퍼텍스트는 비선형적 정보 조직(Nonlinear organization of information)으로 정의된다. 비선형적이라는 것은 조직된 정보가 순서적인 연쇄관계(sequentiality)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이퍼텍스트는 연결(link)과 접점(node)으로 구성된다.⁸ 이것을 하이퍼텍스트의 문법

⁷ 이에 대해서는 배식환(2000)의『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책세상) 제6장 하이퍼텍스트와 포스트모더니즘(pp. 103~119) 부분을 참고하시오.

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

$$\text{Hypertext} = G(N, L)$$

* N: nodes, L: links, G: Grammar

링크(link)란 개념적인 요소들 사이의 연결선을 말하며, 노드(node)는 지식베이스(knowledgebase) 안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및 관계된 정보를 말한다. 하이퍼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컴퓨터 내의 혹은 인터넷 망의 비선형적인 각 미디어 객체(media object)에 접근할 수 있다.⁹

하이퍼텍스트의 이러한 특징은 저작활동의 지평을 개방적, 상호작용적, 확장적으로 넓혀놓았다. 그러면서 사실상 책을 만드는 관습에 얹매여 있던 작자들을 해방시켜주었다. 뿐만 아니라 선형적 독서 행위를 대신하여 완벽한 소통 기술을 향한 혁신적인 진전을 가져왔다.¹⁰

시간 자체를 조직한다는 점에서 시간예술적인 특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음악과는 다르지만 문학 역시 선형적으로 재현되기 때문에 일부 시간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매체 자체의 특성 때문에 문학이 오히려 더 시간예술적인 특성을 가진다. 음악에서는 이중창(duet)이 가능하지만 문학에서는 동시 대사는 없다.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글로 옮기기 위해서는 부득이 '한편'과 같은 말을 사용하여,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어떤 한 일을 먼저 서술하고, 다른 일을 그 다음에 쓸 수밖에 없다. 즉, 실제 사건의 시간과 서술의 시간에 간극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작가에게는 모든 것을 한 줄로 늘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8 배식한은 그의 책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책세상, 2000)에서 link를 '끈'이라, node를 '마디'라 표현했다.

9 미디어 객체를 흔히 문서라 부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문자적으로 표현된 정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오늘날 컴퓨터상에서 표현되는 각종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하이퍼텍스트라 하고, 그러한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매체적 특성을 가리켜 하이퍼미디어(hyper media)라 부른다.

10 Ilana Snyder(1997), *Hypertext: The electronic labyrinth*,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서문(preface)

음악이 아니면서도 음악적 감상 태도를 요구하던 종래의 문학 교육에 하이퍼텍스트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다. 하이퍼텍스트에서 독자는 종래의 텍스트에 대하여 수동적인 입장을 벗어나 아주 능동적인 입장이 될 것을 요구한다. 로버트 쿠버(Robert Coover)는 ‘선(line)의 횡포로부터 해방’ 될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종래의 텍스트에 의해 만들어진 독서 행위의 관습은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독서에 있어서도 선 만들기를 요구한다. 스나이더(Snyder)는 언어를 사용한 설득(intelligibility in language)을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연쇄(sequence)가 필요하다는 멀스롭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하이퍼텍스트를 경험하는 일을 비선형적(non-linear)인 경험이라기보다는 다중선형적 혹은 디중연쇄적 경험이라고 말했는데, 필자의 생각에도 그녀의 주장이 옳다.¹¹ 즉, 하이퍼텍스트의 하위 문서들 자체에 대한 독서 체험은 분명히 선형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어를 매개체로 한 정보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텍스트 노드들을 연결할 때 생기는 것인데, 다중선형적 경험은 점점(node)들에 대한 연결(link)로써 만들어지며, 그러한 연결점의 선택에 대하여 저자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독자는 그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은 이러한 독서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하이퍼텍스트 구조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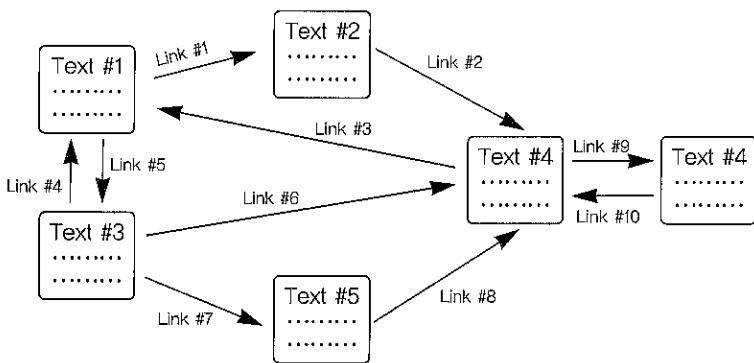


표3 하이퍼텍스트 구성 도표(예)

¹¹ Ilana Snyder(1997), Hypertext: The electronic labyrinth,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 46.

이 하이퍼텍스트 문서는 모두 6개의 하위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집합이며, 각 하위 문서는 각각 몇 개의 점점(node)을 가지고 있다.¹² 한편 각 점점은 다른 문서와 연결(link) 관계를 가진다. 이 문서의 경우는 주로 Text #1에서 읽기를 시작하게 되어 있다(전체 문서 구조에 대한 정보를 가진 문서가 별도로 있을 경우, 아무리 저자가 첫 문서에 대한 암시를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부터 읽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독자가 선택하기 나름이다.).¹³

하이퍼텍스트는 그것을 보게 해주는 소위 뷰어(viewer)를 동반하게 되며, 뷰어 자체가 지원하는 선긋기 가능성과 하이퍼텍스트의 구조에 따른 선긋기 가능성이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하이퍼텍스트 체험 양식이 생겨난다.¹⁴

① 서핑(surfing): 인터넷의 사이트와 사이트, 인터넷 문서와 문서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정보 수집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인터넷 문서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문서의 위치를 검색하여 접근하거나, 문서에 마련된 연결 점점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주로 온라인 독서 행위, 즉 인터넷의 정보 수집 행위와 관련이 있다.

② 항행(navigation)¹⁵: 대체로 단일 주제에 대한 문서들을 중심으로 하이퍼텍스트 문서와 문서, 연결 점점을 사이를 오고가는 비교적 좁은 범위의 하이퍼텍스트 독서 행위를 말한다. 문서에 마련된 연결 점점 및 브라우저에 마련된 네비게이션 버튼 및 프레임 메뉴에 제시된 연결 버튼 등을 사용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독서 행위

12 로버트 쿠버(Robert Coover)는 이를 ‘조각 문서(text segment)’라 부르고 있고, 〈Storyspace〉에서는 이를 ‘쪽(page)’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말한 ‘헥시아(hexia)’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3 하이퍼텍스트를 체험하고 있는 일을 독서(reading)라고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러한 체험 행위의 주체를 독자(reader)라고 부르는 것이 좋은지, 사용자(user)라고 부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14 위에서 예로 든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경우는 순전히 문서에 제시된 점첨만을 연결한 것이므로, 브라우저 자체 혹은 프레임 메뉴 등을 통해서 이동할 때 만들어지는 점첨은 별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

15 ‘네비게이션(navigation)’을 ‘항해’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필자는 일반적인 선박의 이동을 뜻하는 ‘航海’ 보다 ‘航行’을 제안한다.

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접점 연결(node linking): 단일 주제로 작성된 하이퍼텍스트 문서들에 대해서만, 문서에 주어진 연결 접점을 선택하여 읽는 하이퍼텍스트 독서 행위를 말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독서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항행 체계에서 마지막의 접점 연결 행위로 범위를 좁혀본다면, 앞에서 제시한 하이퍼텍스트 문서에서는 모두 10개의 연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독서로(讀書路, reading path)는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 ◊ Text #1에 마련된 접점은 다음 두 개다. 독자는 자신이 읽으려 하는 접점을 선택하여 전혀 다른 독서로를 만들어갈 수 있다.¹⁶
 - 접점(node) 1 – 1: 연결(link) #1을 통해서 Text #2에 이어진다.
 - 접점(node) 1 – 2: 연결(link) #5를 통해서 Text #5에 이어진다.
- ◊ Text #2에는 하나의 접점(node) 2 – 1만 마련되어 있고, 연결(link) #2를 통해서 Text #4에 이어진다.
- ◊ Text #4는 일종의 결말과 같은 기능을 하는 문서로 보인다. 이 문서에는 모두 4곳의 문서로부터 연결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접점이 있다.
 - 접점(node) 4 – 1: 연결(link) #9를 통해서 Text #6에 이어진다. Text #6은 일종의 주석 같은 것으로서 단지 Text #4에서만 호출하고 연결 #10을 통해서 Text #4로만 돌아갈 뿐이다.
 - 접점(node) 4 – 1: 연결(link) #3을 통해서 Text #1으로 돌아간다. 말하자면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 ◊ Text #3에는 세 개의 접점이 있다.

¹⁶ 접점은 다른 문서에서 들어오는 것(inward node)과 다른 문서로 나가는 것(outward node) 등 두 가지 형태를 가진다. 물론 단일 문서 내에서 연결되는 접점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흔히 책갈피(bookmark)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다른 문서로 나가는 접점(outward node)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 접점(node) 3 – 1: 연결(link) #7을 통해서 Text #5에 이어진다.
- 접점(node) 3 – 2: 연결(link) #6을 통해서 Text #4에 이어진다. Text #5에서 접점 5-1을 통해 연결 #8로써 Text #5에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결 #6은 Text #5를 거치지 않고 결말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접점(node) 3 – 3: 연결(link) #4를 통해서 Text #1에 이어진다. 접점 1 – 2에 설명하고 접점 1 – 1을 다시 선택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하이퍼텍스트의 구성 원리를 적용한 소설 작품을 우리는 하이퍼픽션(hyper fiction)이라 부른다. 하이퍼픽션이란 하나의 소설 속에 수십, 수백 가지의 다양한 줄거리 전개가 가능한 컴퓨터 전용 전자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는 소설의 시작에서부터, 그리고 이야기의 고비마다 그때그때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줄거리를 읽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예컨대 스튜어트 멀스롭(Stuart Moulthrop)의 1993년작 하이퍼픽션 『승리의 정원』에는 1,000개 가까운 조각문서(text space)가 있으며 2,800개 이상의 연결점이 있다고 한다. 컴퓨터 화면에는 번호가 정해진 페이지가 없으며 어떤 특정한 순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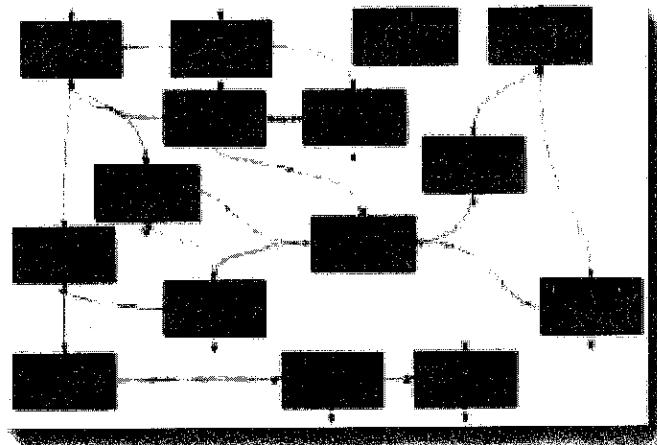


표4 <Storyspace>로 작성된 <Cyborg>의 구성과 연결 양식

텍스트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하이퍼텍스트를 경험하고 있는 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독서로를 만들고, 독서의 시작과 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하이퍼텍스트에서 만들어 질 수 있는 독서로의 종류는 문서의 수와 점점의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여기에 항행과 서핑까지 결합하여 독서로를 만들어간다면 독서로의 가능성은 얼마나 커질 것인지는 이루 측정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하이퍼텍스트는 저자에 의해 가능성의 일부분만 제시될 뿐이고, 결코 완성된 결과로서 나타날 수는 없다. 독자는 그러한 가능성의 거미줄(web)에서 자신의 실을 뽑아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이퍼텍스트에서 독서 행위의 능동성은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독자는 자신의 고유한 독서로를 가지게 되며, 한 사람이 같은 하이퍼텍스트를 읽는다 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독서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하이퍼텍스트에서는 저자와 독자가 글 속에서 결합하여, 독자의 결정 구조 자체가 텍스트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하이퍼텍스트의 성격은 물입과 감동을 기본 원리로 하는 창작의 방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마이클 조이스의 하이퍼텍스트 소설인 『오후, 이야기(Afternoon, a story)』에서는 독자에게 끊임없이 경로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로의 전체 구조가 표시된 페이지가 노출된다면 독자는 자신이 항행의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즉, 독자는 사건의 액자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액자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전(canon)으로서의 텍스트는 이미 무너져버린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하이퍼텍스트는 모두 6개의 하위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 관계도 하위 문서 내에서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이퍼텍스트는 오프라인, 즉 CD-ROM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배포될 수 있다. 오늘날 선보이고 있는 전자책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5. 하이퍼텍스트 저작 및 활용 도구

하이퍼텍스트 저작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하이퍼텍스트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구현해내기가 아주 어렵다. 비록 데리다가 『조종』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 인쇄된 텍스트로써 하이퍼텍스트를 구현해보고자 애를 쓰긴 했지만, 책이라는 것은 순차적 정보 기록의 도구가 아닌 다른 정보의 기록을 위해서는 적합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

사실 컴퓨터에서 문서들이 하이퍼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 도구보다도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기능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뷰어가 필요하다. 사실상 하이퍼텍스트는 문서의 텍스트 성분과 문서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 문서의 시각적 형태를 나타내는 표지가 기술되어 있는 표준적인 텍스트 문서일 뿐이고, 만일 여타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사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멀티미디어 파일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 저작을 위해서 하이퍼텍스트의 문법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텍스트 에디터(예를 들면 MS Windows의 notepad.exe 같은 텍스트 에디터)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 문법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 에디터만으로 하이퍼텍스트의 기능을 다 구현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하이퍼텍스트 저작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의 하이퍼텍스트 저작 도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 하이퍼링크 기능: 문서 내부의 연결을 지원하는 채갈피 기능 및 외부 문서 연결 기능
- 멀티미디어 지원 기능: 외부 멀티미디어 자료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기능
- 텍스트 에디터 기능: 문자를 써넣을 수 있는 기능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하이퍼텍스트 저작도구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종류가 사용될 수 있다.

① 전용 하이퍼텍스트 저작 도구



그림1 Storyspace

미국 Eastgate사의 〈Storyspace〉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Storyspace〉는 규모가 크고 복합적이며 도전적인 하이퍼텍스트 저작을 위해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다른 저작 도구들이 주로 시각적 표현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Storyspace〉는 글쓰기, 연결하기 및 조작하기를 강조하며 그것을 손쉽게 하도록 지원한다. 게다가 〈Storyspace〉는 하이퍼텍스트의 구성 내용을 생생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강력한 그림의 모습으로 보여준다.¹⁷ 이 외에도 OWL International Inc에서 만든 〈Guide〉, Apple사에서 매킨토시 컴퓨터용으로 만든 〈HyperCard〉, Voyager사에서 만든 〈Expanded Books〉 등이 있다.

② 웹에디터

웹에디터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생성하는 도구이다. 흔히 홈페이지를 만드는 도구로 알려져 있다. 문서의 연결과 멀티미디어 정보의 연결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웹에디터에는 사이트 관리 도구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이트 관리 도구들은 문서들의 연결관계 등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MS의 〈FrontPage〉, Macromedia의 〈Dreamweaver〉, 나모인터랙티브의 〈나모 웹에디터〉 등이 대표적이다.

¹⁷ 미국의 학교에서는 전자작문교실인 OWL(Online Writing Lab)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이퍼텍스트 저작을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1인용이 \$295인데, 10인용은 \$695, 100인용은 \$4,995에 팔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Eastgate사의 홈페이지(<http://www.eastgate.com>) 참조.

③ 워드프로세서

최근의 워드프로세서들은 대부분 책갈피라는 이름의 내부 접점과 다른 워드 문서 혹은 하이퍼텍스트 문서에 대한 외부 접점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략하나마 멀티미디어 저작 기능도 지원하고, 문서의 저장시에 HTML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한다. 따라서 워드프로세서 자체를 하이퍼텍스트 저작 및 뷰어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HTML 파일을 생성하여 웹브라우저로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워드프로세서를 통한 하이퍼텍스트 저작은 전문적인 저작 도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④ 프리젠테이션 도구

대부분의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도구가 멀티미디어 저작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하이퍼링크 기능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 도구를 하이퍼텍스트 저작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¹⁸ 일례를 들면, MS의 〈PowerPoint〉에서는 제작한 슬라이드 쇼를 HTML 문서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렇게 저장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특히 기본적으로 두 단계의 깊이를 가지는 목차 프레임을 만들어주어, 책갈피 사용도 원활하고, 문서에 링크된 다른 문서 혹은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단 〈PowerPoint〉 자체가 지원하는 애니메이션 기능 등이 아직까지는 다이내믹 HTML(DHTML)로 구현되지는 않는다. 이 외에도 Macromedia의 〈Director〉, 화이트 미디어의 〈Cocktail〉 등이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하이퍼텍스트답게 보여주는 것은 하이퍼텍스트 뷰어 프로그램들이다. 하이퍼텍스트 저작 도구들은 나름대로 하이퍼텍스트 뷰어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뷰어 도구는 다음과 같다.

¹⁸ 워드프로세서조차 프리젠테이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한글〉 〈훈민정음〉 등)

① 전용 포맷 뷰어들

대표적인 것이 Adobe사의 Acrobat Reader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그림 파일로 보여주지만 텍스트에 대한 검색, 계층적인 목차 구조 등을 보여준다. 일반 책을 전자책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같은 회사에서 출시된 〈Glassbook Reader〉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본격적인 전자책e-Book 뷰어라고 할 수 있다.¹⁹

② 웹브라우저

대표적인 것이 MS의 Internet Explorer, Netscape의 Navigator 등이다. 웹브라우저(Web Browser)라고 불리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상에서 표준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을 지원하며,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하이퍼텍스트를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웹브라우저에 특정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플러그인(plug in)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하이퍼텍스트 활용 기능을 뒷받침해 주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Adobe사의 Acrobat Reader다.

6. <하늘길>-하이퍼텍스트의 현황과 과제

하이퍼텍스트의 저작은 종래의 종이책을 전제로 한 저작 활동과는 그 기본 원리부터 다르다.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작문의 절차나 원리 등을 알고 보면 종이책 출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하이퍼텍스트 저작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원고지 사용법은 활판인쇄 문화의 출발점에 위치해 있다. 원고지의 한 칸은 인쇄소에 있는 전각활자 1자를 상정하며, 우리가 숫자나 알파벳을 원고지 한 칸에 2자 혹은 3자씩 쓰라고 권장하는 것은 활자를 조판할

¹⁹ 이 회사에서 말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자책 구매와 내려설기 지원, 두 쪽씩 보여주기, 개인적인 전자책, 전자문서 도서관을 유지해주기, 화면이 선명하고, 색상이 풍부한 Adobe PDF 전자책, 본문에 적합한 인라인 주석 처리, 본문 강조하기, 검색과 책갈피, 노트북컴퓨터를 위해서 화면 돌려 보여주기, LCD 화면을 위한 적절한 텍스트 화면 처리.

것을 전제로 물리적 편집의 오차를 최소화하려는 데서 생겨난 관습인 것이다.

우리가 작품의 절차로 흔히 거론하는 방법(주제 정하기—자료 모으기—구상하기—집필하기—퇴고하기) 역시 고쳐 쓰기 어려운 원고지 저작활동의 특징을 감안한 작품 방법인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에서 워드프로세싱으로 작품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지켜지던 직선적인 5단계식 작품법이 아니라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한 순환적인 저작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싱을 이용한 저작 스타일이 원고지 저작 스타일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인쇄문서라는 최종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컴퓨터를 타자기 대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는 비록 그 저작도구로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종이문서의 관습을 타파하고 있다. 이제 저작은 하나의 건축 행위와 유사한 것 이 되었다. 건축가는 건축 공간을 여러 구역으로 구획하고, 각 구역에 적절한 기능과 업무 내용을 적용하여 공간을 배치하고, 각 공간 사이의 소통을 위한 통로를 필요에 따라 배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이퍼텍스트 저작자는 전체 문서 공간을 인식 가능한 문서 단위로 나누며, 나누어진 텍스트끼리의 역할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결(link)시킨다.²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저작과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체험의 세상에 들어섰다. 종이책의 출판사는 전자책 출판을 생존의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자책(ebook)을 출판하는 회사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종이책 저작 활동에 종사하던 작가들도 전자책 저작자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

그림2 이문열의 전자책 〈하늘길〉 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최근 출시된 이문열의 전

²⁰ 하이퍼텍스트 이론가인 Snyder 여사는 자신의 책『Hypertext』의 부제를 'The electronic labyrinth(전자 미로)'라 붙였는데, 하이퍼텍스트에서의 연결선들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그러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자책 『하늘길』(everbook.com, 2000)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전자책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해보기로 한다.

『하늘길』은 전자책 전문출판사인 에버북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이 출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verbook.com>)에서 3,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즉시 판매본을 독자의 컴퓨터로 내려실을 수 있다.²¹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버북에서 제공하는 뷰어 프로그램인 〈Glassbook〉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 책을 과연 전자책이라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책은 컴퓨터로 저작되어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컴퓨터에서 전용 뷰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자책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뷰어 프로그램인 〈Glassbook〉의 가능 덕분에 전자책 단말기에서처럼 화면을 돌려서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portrait 방향)의 책처럼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자책의 핵심은 그것이 하이퍼텍스트를 구현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인쇄된 책을 스캐닝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럼이 들어 있어서 멀티미디어적 요소가 있다고 변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림을 넣은 것으로 종이책을 압도할 수는 없다.

이 책이 진정한 전자책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책의 뷰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이 책의 뷰어 프로그램인 〈Glassbook〉은 하이퍼링크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 내부에서는 그 흔한 항행 표지(navigation mark) 하나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단지 뷰어에 내장된 앞(previous), 뒤(next) 버튼만 있고, 하단에 특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표시가 있을 뿐이다. 독자는 책을 읽을 때 페이지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 아주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따라서 종이책을 읽을 때보다도 훨씬 더 부자연스러운 독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책의 목차 부분에서는 하이퍼링크를 지원하는 듯한

²¹흔히 Download라 부르는 행위를 필자는 '내려신기'라 부른다. 이 말은 문화관광부의 전산용어 순화작업에서 제안된 말로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커서가 나타나지만 그것 작자소개 정도만 가리키고 있으므로 링크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그것도 <그린 이에 대하여> 링크는 되지 않는다). 소설의 내용의 서술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선형적 이야기 문법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니까 텍스트 점점(node)이라든지, 연결(link)과 같은 전형적인 하이퍼텍스트 개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²² 어쩌면 이 책의 광고 카피처럼 ‘대표적인 아날로그 작가 (이문열)가 디지털 네트워크로 보내는 첫 신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솔직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전자책다운 소설책, 하이퍼텍스트다운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²³ 단지 종이책으로 출판하지 않고, 전자매체만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거래된다는 특징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다. 하이퍼텍스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창작의 문법에 아직 무지한 것이다. 이인화가 기대하듯이 ‘소설가들은 금방 전자책에 맞는 새로운 서사(敍事)의 문법을 발견하게 될 것’²⁴ 인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오히려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에 익숙해 있는 세대들에게 창의적인 예술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더 가능성 있는 일이다. PC 통신과 인터넷망에서 팬픽이라든지 환상 문학을 연재하는 친구들에게 하이퍼링크의 무한한 세계를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하이퍼텍스트 시대는 ‘새로운 문해능력(文解能力, literacy)○]란 무엇인가?’라는

22 <Glassbook>은 Adobe사의 PDF 문서를 지원하는데, <Acrobat Reader>보다는 높은 해상도를 자랑한다. 그런데 PDF 포맷의 또 다른 이점인 검색 기능 및 사전 연결 기능도 <하늘길>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23 진정한 하이퍼텍스트 문학을 만나기 위해서는 미국의 Eastgate의 간행물을 접해야 한다. 이 회사는 하이퍼텍스트 문학 전문 출판사로서 마이클 조이스(Michael Joyce)의『오후(Afternoon)』등 오늘날 하이퍼텍스트 문학의 고전을 출판했고, 하이퍼텍스트 저작 도구인『스토리스페이스(Storyspace)』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http://www.eastgate.com> 참조.

24 이인화(2000), 디지털시대 소설가도 변해야, <동아일보> 2000. 9. 6.

25 필자는 ‘文盲’의 반대 개념인 리터러시(literacy)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곤란을 겪었다. 일부에서는 ‘文解’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文知’ 혹은 ‘文智’라는 말도 생각해 보았지만 단지 ‘안다’라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文能’이라는 말을 제안한다. 이 말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외래어인 채로 ‘리터러시’라는 말을 병용하기로 한다. 한편 ‘컴퓨터 문맹’을 가리키는 속어로 ‘컴맹’이란 말이 쓰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컴능’이라는 말이 사용될 수 있겠다.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²⁵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국어를 익히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국어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해능력은 형성되어 왔으며, 문해능력의 기본 교과서로 종이책을 정전(canon)처럼 받아들여 왔다. 그러하기에 오늘날과 같은 전자 환경에서, 하이퍼텍스트가 등장하여 정전이 붕괴되는 가운데 새로운 학습의 방법, 새로운 저작의 방법이 문해능력의 요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문자에 의한 텍스트 저작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활용하고,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새로운 예술 장르에 적응할 것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선(1995), 기술정보시대와 문학의 장래,『정신문화연구』6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병선(1997), 정보시대의 글쓰기의 혁명,『한국어문화논고』, 태학사.
- 김병선(1998), 하이퍼텍스트 저작환경에서의 민족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21세기 정보화시대의 한국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인호(2000), 디지털 시대의 개방성과 소설의 미래,『내러티브』제2호, 한국서사연구회.
- 류현주(1999), 하이퍼텍스트 문학 이론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현주(2000),『하이퍼텍스트 문학』, 김영사.
- 배식환(2000),『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책세상.
- 삼성SDS컨설팅사업부(1998),『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 을파소.
- 서정남(2000), 멀티미디어 매체환경과 서사의 새로운 지평,『내러티브』제2호, 한국서사연구회.
- 이인화(2000), 디지털시대, 소설가도 변해야,〈동아일보〉2000. 9. 6.
- 정파리(1995), 문학의 크메르루지즘,『문학동네』, 1995 봄.
- 최병우(2000), 매체별달과 서사문학의 변화,『내러티브』제2호, 한국서사연구회.
- 최유찬(2000), 게임의 서사,『내러티브』제2호, 한국서사연구회.
- 최혜실 편(1999),『디지털시대의 문화 예술: 통합의 가능성을 꿈꾸는 KAIST 사람들』, 문학과지 성사.
- 최혜실(2000), 새로운 소설의 가능성 – 하이퍼텍스트 소설의 미학,『내러티브』제2호, 한국서사연구회.

- 볼츠, 노르베르트(2000),『구텐베르크 – 은하계의 끝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상황들』(윤종석 역, 문학파지성사).
- 블라셀, 부루노(1999),『책의 역사: 문자에서 텍스트로』(권명희 역, 시공사).
- 플루서, 밀렌(1999),『디지털시대의 글쓰기: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윤종석 역, 문예출판사).
- Cubitt, Sean(1988), *Digital Aesthetics*,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Landow, George P. ed.(1994), *Hypertext The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andow, George P.(1997), *Hypertext 2.0: The Convergence of Contemporary Critical Theory and Technolog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Ong, Walter J.(1982), *Orality and Literacy*, London: Methuen.
- Smith, Peter D.(1990), *An Introduction to Text Processing*, Cambridge: The MIT Press.
- Snyder, Ilana(1996), *Hypertext: The electronic labyrinth*,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 10 호

평양

Pyongyang

현진건의 혁사소설에 대한 간단한 고찰

한 중 모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조선소설문학의 발전역사에서 20세기 전반기는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시기이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선의 소설문학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중세소설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1920~30년대에 조선 소설문학은 초기근대소설의 미숙성을 극복하고 근대 및 현대소설의 면모와 특징을 확고히 갖추게 되었다.

지난 세기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창작활동을 진행한 빙허 현진건은 조선에서의 근대 및 현대문학의 발전과정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작가의 한 사람이다. 현진건은 20여년의 창작활동기간에 언론출판부문에서 사업하면서도 현실주제와 혁사주제의 수많은 우수한 소설작품들을 집필발표함으로써 광복전 조선의 근대 및 현대문학사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였다.

현진건의 작가생활과 창작활동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볼수 있다. 그는 작가생활의 전반기라고 할수 있는 1920년대에 현실주제의 단편소설들을 위주로 창작하였다면 창작활동의 후반기에 해당하는 1930년대말~1940년대초에는 장편소설을 창작하는데로 나아갔으며 특히 장편혁사소설들을 집필하는데 주력 하였다.

1920년에 처녀작을 세상에 내놓은 현진건은 작가생활의 초기부터 우수한 사실주의단편소설들을 집필발표하였으며 1920년대말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개성적특성

과 창작적재능을 보여주는 사실주의작품들을 련이어 써내여 이 시기 조선에서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사조의 형성발전에 이바지하였다.

1920년대에 창작발표된 현진건의 소설작품들 가운데는 당시의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하고 사회적모순을 폭로비판한 사실주의적인 작품들만 있는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신변잡사와 애정생활을 기교본위로 그린 자연주의적소설들도 있다.

일부 평론가들과 문예학자들이 현진건의 소설문학을 자연주의적인것으로 특징지으려고 한것은 이러한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현진건의 소설문학에 사실주의 작품들과 함께 자연주의작품들이 있는것은 그의 세계관과 인생관, 문예관과 미학관이 가지고있는 모순과 약점, 제한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현진건의 소설문학에는 자연주의작품들이 더러 있지만 거기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주의 작품들이며 그의 작가적면모와 문학사적위치는 바로 사실주의작품들에 의하여 규정되고 특징지어진다. 현진건은 1922년에 문예동인지 『백조』와 관계를 가진바 있다. 그의 작품들에 가끔 엿보이는 퇴폐주의적요소는 『백조파』의 영향과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현진건은 소설창작에서 『백조파』의 애상적이며 상징주의적인 랑만주의경향과는 달리 사실주의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이 시기 조선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현진건은 창작초기에 자신의 생활체험에 토대하여 지식인들의 생활을 묘사하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렸다. 현진건의 초기작품들인 단편소설 『빈처』(1921)와 단편소설 『술 권하는 사회』(1922) 등은 그가 가난하고 땀심적인 지식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생활고와 정신적고통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묘사하면서 당시 사회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형상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진건은 이 무렵 무위도식과 향락만을 일삼는 유산층청년을 부정인물로 등장시켜 사치와 허영에 들뜬 공허하고 무의미한 생활을 풍자적으로 야유조소한 단편소설 『피아노』(1922)와 같은 작품도 써내였다.

창작활동의 초기에 주로 자신의 생활체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식인들의 생활세계를 묘사하는데 많은 관심을 돌렸던 현진건은 1920년대 중엽에 들어와서 작가적

시야를 넓혀 지식인과 함께 인력거군, 류랑민 등 하층근로인민의 암담한 생활과 비참한 운명에 대한 형상화에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1924)과 단편소설 『고향』(1926)은 이 시기 현진건의 문학세계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은 기난하고 불쌍한 인력거군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의 성격과 생활에 대한 생동하고 진실한 묘사를 통하여 당시 근로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참혹성을 예술적으로 부각시키고 황금만능사회의 모순을 폭로하였다. 단편소설 『고향』은 동양적식회사에 농토를 떼우고 서간도와 일본각지로 떠돌아 다니며 갖은 고생을 하는 류랑민의 암담한 생활과 비참한 운명을 인상적인 화폭으로 그려내여 조선인민에게 상가집개판도 못한 망국노의 비운을 강요한 일제식민지 통치의 악착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 소설들은 인간성격과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전형화, 사회현실의 본질적측면에 대한 진실한 묘사로 하여 현진건의 작품계열에서 두드러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1920년대말에 이르러 현진건의 소설에서는 인간성격과 현실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전형화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비판적기백이 보다 강화되었다.

신문지 한장때문에 살인강도로 몰려 철창속에 갇히게 된 불쌍한 로인의 참혹한 처지와 암담한 신세를 심각하고 처절하게 묘사한 단편소설 『신문지와 철창』(1929)은 일제침략자들을 직접 등장시키고 그들의 악랄성과 횡포성을 정면으로 폭로함으로써 사회비판적성격을 한층 강화하였다. 현진건은 단편소설 『빈처』와 단편소설 『술 권하는 사회』로부터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과 단편소설 『고향』 등을 거쳐 단편소설 『신문지와 철창』에 이르는 10년간의 창작활동기간에 기난하고 천대받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곤궁한 생활과 비참한 운명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묘사하며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모순과 죄악을 여러모로 폭로비판함으로써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서의 면모와 문학사적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현진건의 작가적면모와 문학의 특징이 1920년대에 현실주제의 단편소설들에서 나타났다면 1930년대에는 주로 역사주제를 취급한 장편소설들에서 드러났다. 단

편소설위주로부터 장편소설위주에로, 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역사주제 작품창작에로 넘어간 것은 1930년대이후 현진건의 창작활동과 문학세계에서 일어난 주요한 변화이며 특징이다. 그러나 그의 창작활동과 문학세계를 특징짓는 이러한 변화가 1930년대초부터 이루어진것은 아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 현진건은 일정한 기간 주로 신문편집출판활동에 관계하면서 그전처럼 소설창작에 힘을 넣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문학활동에는 일정한 공백기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현진건이 다시 붓을 잡고 소설을 써내게 된것은 '일장기발소사건' 이 있은 이후부터였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당시 국내인민들은 말할것도 없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까지 알려져 온 거례를 격동시켰으며 그에 대한 소식은 백두산일대에서 조국광복을 위한 령활한 투쟁을 벌리고있던 항일유격대에까지 전하여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서간도로 진출하고 있던 조선인민혁명군부대에 『일장기발소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서 무한히 격동되였던 일을 감회깊이 회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사하시였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손기정의 경기성과와 일장기발소사건을 소개하는 강연을 하였다. 우리 부대의 모든 대원들은 강연을 듣고 『동아일보』 편집집단이 취한 애국애족적인 입장과 용단에 열렬한 지지와 현대성을 보내였다.

(『김일성저작집』49권, 57페이지)

1936년 8월 베를린에서 있은 여름철 올림픽경기대회의 마라ソン종목에서는 조선의 손기정선수가 1등을 하였다. 그때 『동아일보』 편집집단은 이 사실을 신문에 소개하면서 손기정의 앞가슴에 표식되어있는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사진을 냈다. 이에 노발대발한 일제의 총독부당국은 『동아일보』에 정간처분을 내리고 그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당시 『동아일보』의 사회부장으로 있던 현진건은 『일장기말소사건』의 주동인물로서 일제경찰에 구속되어 모진 옥중고초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 중한 병까지 얻게 되었다.

현진건은 감옥에서 나온 후 병약한 몸으로 다시 소설창작에 착수하여 1938년 『동아일보』에 장편력사소설 『무영탑』을 연재하였으며 뒤이어 같은 신문에 장편력사소설 『흑치상지』를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현진건의 문학에서는 역사소설이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진건이 1930년대말에 문학활동을 다시 벌리면서 역사주제작품창작에 주요한 관심을 돌리게 된데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1930년대에 조선에서는 진보적인 문학활동에 대한 일제침략자들의 탄압이 가일층 강화되었다. 그전부터 프로레타리아문학을 비롯한 진보적문학을 위협시하고 그 성장발전을 가로막기 위하여 압력을 가해오던 일제침략자들은 1930년대에 와서 진보적문학가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해나섰다. 일제는 진보적인 사상적경향을 가진 작품들에 『불온』하다는 딱지를 붙여 부분 또는 전문삭제처분을 내리고 진보적인 문학가들을 검거투옥하며 『카프』를 강제해산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와 불리한 조건에서 량심적이며 진보적인 작가들은 붓을 꺾고 작품창작을 포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창작의도와 사상적지향을 우회하여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도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일부 작가들은 역사적과거의 인간과 생활에 대한 형상화를 통하여 민족의식과 애국주의사상, 계급의식과 진보적인 사회적리상을 표현하는 길로 나가게 되었다. 현진건이 역사소설들을 창작하는데 주요한 관심을 돌리게 된 것도 당시의 이러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시기 현진건이 역사주제작품들만 집필한 것은 아니다. 그는 역사소설을 써내는 한편 당시의 현실생활을 반영한 장편소설 『적도』(1939)와 같은 작품도 창작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소설은 성공작으로 되지 못하였다.

장편소설 『적도』에서 작자는 주인공 여해의 풍파사나운 인생행로와 주요인물들의 운명을 통하여 횡금과 권력이 빚어내는 사회악을 폭로하고 독립운동자들의 활동을 일정하게 시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소설은 인물들을 전형적성격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흥미분위적으로 엮어나감으로써 주제사상을 모호하게 만들고 형상의 진실성을 손상시켰다. 소설의 이러한 실태는 진보적인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일제의 방해책동과 파쑈적 폭압이 전례없이 악착하게 감행되고 있던 당시의 사회적 조건에서 현실생활을 반영하면서 주제의 대가 서고 사상이 똑바로 박인 작품을 써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장편소설 『무영탑』은 그 제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무영탑에 관한 전설에 기초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역사소설들과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소설은 시대를 신라에 잡았으니 소위 역사소설이라 하겠으나 만일 독자여러분이 이 소설에서 역사적사실을 찾으신다면 실망하시리라. 이 소설의 흘자는 몇줄의 전설에서 출발하였을뿐이요, 역사적사실이란 도무지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까닭이다. 기록적, 설화적, 역사적 사실의 라벨만이 역사소설이라 할진대 이 소설은 물론 그 부류에 속하지 않을 줄 안다. 어떤 한 시대, 그 시대의 색채와 정조를 작가로서 어떻게 재현시키느냐, 작가의 의도하는 주제를 그 시대를 통하여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것이 작자는 역사적 사실보답도 더욱 중요할줄 믿는다.

장편소설 『무영탑』의 현재와 관련하여 『동아일보』(1938. 7.16)에 실은 현진건의 이 글은 역사소설에 대한 그의 견해와 관점을 집약해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현진건의 주장인즉 역사소설이라고 하여 역사적사실을 라벨할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대의 생활을 통하여 작가의 창작의도대로 주제를 똑바로 살리는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며 바로 장편소설 『무영탑』은 역사소설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쓴 작품이라는 것이다.

장편소설 『무영탑』에서 문학형상의 토대로 된 전설은 절간불탑건설과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이다.

후기신라때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을 만드는 일에 끌려간 남편을 애태개 기다리다가 공사장으로 찾아간 안해는 중들이 신성한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여 세우는 탑에 너자를 가까이하면 부정을 탄다고 하면서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안해는 불국사주변을 맴돌면서 남편을 만나볼 기회를 기다렸으나 그의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근방의 련못에 비낀 탑의 그림자를 보면서 위안을 받아오던녀인은 경주에 오래 머물러있기가 어려워 탑의 그림자마저 볼수 없게 되자 그만 못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어버렸다. 녀인이 몸을 던져 죽은 때로부터 못에는 탑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석가탑은 그림자가 없는 탑 즉 무영탑으로 불리우게 되었다는것이다.

현진건은 후기신라시기 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불교의 허위성과 승려의 악착성을 말해주는 이 짧막한 전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형상창조에서 예술적 허구를 분방하게 활용함으로써 오랜 옛날의 인간생활을 일제식민지 통치시기 조선인민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결부하여 그려낸 장편소설 《무영탑》을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장편소설 《무영탑》은 후기신라시기인 8세기중엽을 시대적배경으로 설정하고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건립과정에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가고있다.

소설의 이야기는 다보탑과 석가탑의 완공이 가까운 사월 초팔일날 왕의 행차를 따라 불국사에 갔던 이찬 유종의 외동딸 주만(구슬아기)이가 그 탑들을 만든 천하명공인 아사달의 청수한 풍채와 씩씩한 기상을 보고 그를 열렬히 사모하게되는데로부터 시작된다.

아사달은 부여의 이름난 석공인 부석의 수제자로서 그의 외동딸인 아사녀와 결혼한지 일년만에 신라서울의 큰 절에 탑을 세우기 위하여 천하의 명공을 구한다는 방을 보고 서라벌의 석공들과 재주와 솜씨를 겨루며 예술적인 대성취를 이루하도록 록 하라는 스승의 권고와 격려에 따라 경주로 천리길을 달려와서 삼년동안 밤낮

이 없이 불탑건립에 온갖 재능과 정력을 쏟아부어 큰 성과를 이룩하게 된다.

소설에서는 부여태생의 뛰여난 석공으로서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을 만든 아사달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있으면서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내면심리세계를 형상적으로 부각시키는것과 함께 아사달을 련모하는 귀족가문의 처녀 주만을 주인공 다음기는 주요인물로 내세워 둘사이의 인간관계를 엮어나가면서 주만의 혼인문제를 둘러싼 이찬 유종파와 시중 김지와의 갈등을 모나개 그리고있다. 소설은 이러한 인물형상과 인간관계를 통하여 조선인민의 우수한 도덕적품성과 창조적재능을 보여주고 불교의 허위성과 기만성, 승려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동시에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비판하고 민족의식과 조국애를 표현하고있다.

소설에서 주인공 아사달은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의 소유자로, 뛰여난 예술적재능과 창조적열정의 체현자로 형상화되어있다.

아사달의 성격묘사에서는 고향과 스승과 안해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는데 력점을 찍고있는것이 주목된다. 집을 떠나 삼년동안 밤낮없이 불탑건립에 골몰하면서도 아사달은 부여가 그립고 스승이 그립고 안해가 그리워서 견딜수가 없었다. 그는 그라움이 간절할 때면 다만 대공을 이룩하려는 불같은 열망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길을 떠난것을 후회까지 하였고 어떤 때는 탑이고 무엇이고 다 집어치우고 당장 고향으로 날아가고싶기도 하였다.

아사달의 성격형상에서 안해와 스승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여에 대한 그리움을 두드리지게 그런것은 그를 다만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고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렬한 조국애의 소유자로 묘사하려는 작자의 창작의도에 의한것이다. 아사달이 주만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몇달만 있으면 탑건립을 끝내고 부여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대하여 주만이가 서라벌보다 부여가 그렇게도 좋은가고 물어보니 그는 «그렇게 좋을거야 무엇 있겠습니까. 그야 서라벌에 대면 시골두메지오마는 사람이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 그리운것이랍니다.»라고 대답한다. 아사달의 이 말에는 잃어버린 조국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의 뜨거

운 마음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안해에 대한 변함없는 순결한 사랑, 고상한 도덕적 품성은 아사달의 중요한 성격적 특징의 하나이다. 아사달은 탑쌓는 일에 열중하는 외에는 언제나 안해생각, 집생각으로 밤잠도 이루지 못한다. 아사달이 주만이와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아사녀로 착각한 것은 안해를 얼마나 그리워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아사달은 자기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는 주만이에게 눈물겹도록 고마워하고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처녀, 이런 마음씨고운 처녀도 있는가고 탄복해 마지 않으면서도 주만이를 대할 적마다 아사녀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그리고 아사달은 주만이가 자기에 대한 뜨겁고도 절절한 사랑의 감정을 고백하는데 대하여 나에게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어엿한 안해가 있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다.

이처럼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의 감정을 지닌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적 품성은 아사녀의 성격형상에서도 두드러지게 그려지고 있다.

아사녀는 남편이 떠나간지 삼년이 되는 해의 봄에 아버지를 여읜 다음 아사달이 장가를 가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헛소문을 들리면서 서로 자기를 차지하려고 덤벼드는 자들의 간악한 책동을 뿌리치고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서라벌에 가서 남편을 만나겠다는 결심으로 천리길을 걸어 거자행색으로 경주에 당도한다. 그런데 불국사의 문지기는 녀편네는 절간에 함부로 들어놓을 수 없고 더우기 막중대사를 맡은 아사달이 계집을 만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는 아사녀의 부탁을 끝내 들어주지 않고 십리밖에 있는 그림자못에 가서 기다리라고 한다. 그림자못에 갔다가 거기서 《콩콩》이라는 교활한 뚜쟁이로파에게 걸려든 아사녀는 그 로파가 자기를 상대등벼슬을 하는 높은 대감의 《마마님》으로 팔아넘기려는 흥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림자못에 가서 《내 시신우에나마 당신이 이룩한 석가탑의 그림자를 비쳐주세요.》라고 하며 물속으로 뛰여든다.

소설에 그려진 아사달과 아사녀의 성격형상은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바라지 않고 유혹과 간계에도 말려들지 않으며 오직 변함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과 절개를 지켜나가는 고결한 도덕적 품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서 주인공 아사달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적 품성과 함께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불타는 창조적 열정을 지니고 헌신적인 로력을 기울여 독특한 조형적 특징을 가진 불국사의 불탑들을 만들어낸 천하명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아사달이 한창 돌꽃을 일울 할 때면 마치 《신홍(神興)》에 사로잡힌 듯 며칠씩 일손을 놓지 않았고 정과 마치를 잡은 그의 손길은 《바람결같이》 날래였다. 아사달은 부여땅을 떠나 서라벌에 와서 삼년동안 그야말로 불면불휴의 노력으로 자기의 모든 재주와 정력을 다 쏟아부음으로써 중세기 조선의 높은 탑건축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다보탑과 석가탑을 훌륭히 완성하게 된다.

일제침략자들이 《동조동근》과 《내선일체》를 떠벌이고 《황민화》를 부르짖으면서 민족말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던 민족수난의 가장 엄혹한 시기에 아사달과 아사녀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품성, 민족적 성격의 우수한 특질을 예술적으로 친명하고 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장편소설 《무영탑》에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이찬 유종과 시중 김지 등의 성격형상과 그들 사이의 갈등을 통하여 민족하무주의적인 사대망국사상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소설에서 불탑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줄거리로 끌고나가면서도 아사달과 아사녀의 호상관계보다도 주만이를 사건구성의 중심적 위치에 세우고 그의 혼인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인간관계를 설정한 것은 이러한 주제사상적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사대망국사상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표현하는데서 주요한 형상의 몫을 안고 있는 것은 주만의 아버지인 이찬 유종과 아들 김성을 주만이와 혼인을 맺어주려고 하는 왕족인 시중 김지의 성격이다.

석가탑의 완공을 앞둔 사월 초필일날 주만이가 불국사에 갖다가 아사달을 보고 그에 대한 현모의 정을 품게 된 때로부터 며칠이 지나 시중 김지는 밤늦게 이찬 유종이네 집을 찾았다. 아들 김성과 주만과의 혼인문제 때문이였다. 김지는 이미 여러 차례 매파를 유종이네 집에 보내였으나 대답을 받지 못하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유종을 찾아간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유종은 듣기 좋은 말로 거절하였으나 그 기본

원인은 그들사이의 사상적 대립에 있었다.

김지는 당나라에 대한 송배십과 사대주의가 골수에 박힌 《당학파》의 우두머리였다. 이와 달리 유종은 신라고유의 사상문화에 대한 주장자였다. 김춘추와 김유신이 당나라를 상국으로 섬기면서 그 침략군을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신라통치배들속에서는 당나라에 대한 사대주의가 더욱 우심하게 만연되었다. 유종을 찾은 그날밤 김지는 당나라의 소홍주를 가지고 가서 당나라에는 술종류만도 천종이 넘는다고 하면서 풍류나 자연정치도 신라의 것은 보잘것이 없고 당나라의 것 이 제일이라고 하였다.

김지와 반대로 유종은 당나라의 풍류나 학문을 비판적으로 대하면서 당학이 전파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라에 큰 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유종은 이러한 사상적 텁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위를 고르는데서도 《신라를 두 어깨에 걸며 절만한 인물, 밀물처럼 밀려들어오는 고리타분한 당학을 한손으로 막아내고 지나치게 흥왕하는 불교를 한손으로 꺾으며 기울어져가는 화랑도를 바로잡을 인물》을 구하려는 것이었다.

유종의 이러한 견해와 관점으로 볼 때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나라의 벼슬 까지 하였던 김성에게 장중보옥과 같은 외동딸 주만이를 내맡긴다는 것은 아름다운 구슬을 돼지우리에 던져버리는 것보다도 더 아깝고 원통한 일로 여겨졌다. 그래서 유종은 이찬 김량장의 아우로서 경륜이 높고 궁술과 검술에 뛰어난 경신이와 서둘러 정혼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대망국사상에 물젖은 김지와 민족적인 것을 고수하려는 유종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왕의 참가밑에 팔월한가위날의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론의하고 결정하는 조회에서 더욱 첨예화되게 된다. 조회가 끝날 무렵 시중 김지가 왕앞에 나가서 부복하고 궁술과 검술을 권장하는 것은 태평성대에 살벌의 기운을 일삼는 것으로서 화길한 일이 못된다고 하면서 상무지풍을 놀려 혈기방장한 젊은 무리들의 예기를 꺾고 《성현경전》에 잠식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김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찬 유종이 나가서 시중 김지의 말은 천만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대개 무(武)는 국민의 원기인데 고금홍망의 자취를 살펴보면 문약(文弱)에 흘러서 망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태평성대라고 하여 문(文)만 송상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큰 화를 빚어낼줄 안다고 하면서 상무지풍을 누르는 것은 본말을 전도 한 것이라고 평박하였다.

사대망국적인 『당학파』의 견해를 반대하고 자기고유의 것을 장려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과 입장은 유종뿐 아니라 당나라에 류학하여 거기서 한림학사의 벼슬까지 한 김성을 경멸하고 배척하는 주만이와 당나라에 아부굴종하는 『당학파』를 반대하여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무예를 뛰는 경신 등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8세기 중엽의 후기신라로 말하면 불교가 극도로 번성하여 절간의 세력이 굉장히 확대된 한편 당나라의 사상문화가 밀려들어 그 영향이 강화되고 봉건통치배들 속에서 문약의 기운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던 시기이다. 이러한 사회역사적 환경에서 유종, 경신 등이 불교세력의 지나친 팽창을 억제하는 동시에 급속히 전파되는 당학을 견제하며 문약을 반대하고 상무적 기풍을 발양할 것을 주장한 것은 궁정적인 것이다. 특히 유종을 당나라의 사상문화와 풍속을 중상하는 사대주의를 반대 배격하고 자기 고유의 것을 고수발전시킬 것을 주장하는 인물로 형상화한 것은 작품의 현대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소설에서 큰 나라의 것을 덮어놓고 송상하는 김지, 김성 등을 부정인물로 그리고 자기의 것을 살리려는 유종, 경신 등을 긍정인물로 내세워 그들 사이의 갈등을 첨예하게 이끌고나간 것은 지난날의 인간생활에 대한 예술적 재현을 통하여 일제식민지 통치 밑에서 민족수난의 비운을 겪고 있는 조선인민에게 사대망국사상의 반동성과 해독성을 보여주고 민족의식을 간직하게 하려는 작자의 창작의도와 관련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무영탑』에서는 우에서 지적한 외에도 다양한 인물형상과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반동성과 추악성, 봉건착취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 불교의 허위성과 기만성 등에 대한 폭로비판을 찾아볼 수 있다.

장편소설 『무영탑』에는 부족점과 제한성도 있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으로 되여 있는 8세기 중엽 후기 신라에서 문벌 귀족들 사이의 대립과 알룩이 심하였는데 그것은 순전히 권력쟁탈을 위한 데서 생긴 것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릴 것이 못되었다. 소설에서 긍정인물로 형상화 되여 있는 김량상과 김경신을 보더라도 후에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사람들이다. 그후 상대 등으로 있던 김량상과 이찬이였던 김경신은 서로 결탁하여 혜공왕을 죽이고 각각 왕위를 차지하였는데 그들이 37대 선덕왕과 38대 원성왕이였다. 소설에서 량상과 경신을 글러기는 조정의 일을 바로잡고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건질 영웅으로 묘사한 것은 이들에 대한 미화분식이며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다. 인물형상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국선도(화랑도)를 장려하는 유종의 성격을 리상화하여 묘사한 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소설에서 유종, 경신 등을 리상화 한 것은 현진건이 우에 언급한 창작수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역사적 사실보다도 지나간 시대를 통하여 작자가 의도하는 주제 사상을 살리는데 주안을 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과거의 역사적 생활을 재현하는데서 인물들을 성격과 생활의 본질에 어긋나게 그린 것은 예술적 형상의 역사적 구체성과 진실성에 손상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소설에서 역사적 사실과 과거 생활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묘사하지 못한 부족점은 이밖에도 여러 대목에서 이러저러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편 소설 『무영탑』은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과 생활 묘사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데서 일부 부족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제의 민족 말살 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있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역사적 과거의 인간과 생활에 대한 예술적 재현을 통하여 조선 사람의 슬기와 재능,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 도덕적 풍모를 보여주고 착취 사회의 모순과 사대 망국 사상을 폭로 비판하며 민족 의식을 표현한 특색 있는 작품의 하나로서 광복 전 조선 문학사에서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진건의 두 번째 장편 역사 소설 『흑치상지』는 1939년 10월부터 『동아일보』에 연재되었으나 1940년 1월 52회 까지 발표되고 일제 침략자들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그리하여 『흑치상지』는 미완성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

이 작품도 역시 역사적사실 그자체보다도 지나간 시대의 인간형상과 생활화폭을 통하여 작가가 의도하는바 주제사상을 밝히는것을 중시하는 현진건의 견해와 립장을 뚜렷이 표현하고있는 역사소설이다.

장편소설 『흑치상지』는 당신라연합군의 침공으로 백제봉·건왕조가 멸망한 7세기 중엽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당나라침략자들의 강도적략탈과 야수적인 살륙만행에 의하여 백제사람들이 겪는 끔찍한 재난과 참화를 구체적인 화폭으로 보여주면서 백제인민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반침략애국항전에 떨쳐나서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첫 싸움에서 승리를 이룩하는 모습을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흑치상지는 백제말기의 장수로서 임존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3만의 군사를 꾸려가지고 당나라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항전을 전개하여 2백여성을 회복하는 전과를 이룩한 인물이다. 이밖에도 소설에는 백제장수인 지수신, 소정방을 비롯한 당나라침략군 장수들, 백제의 내두좌평이었던 변절자 임자 등 실재인물들이 여러명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흑치상지』는 전설을 기본골자로 하여 형상을 구성한 『무영탑』과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역사소설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처럼 당시의 사회역사적환경이나 여러 나라들의 내부형편과 그 호상관계, 주인공을 비롯한 역사적인人们的 생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당나라침략자들의 가혹한 랙탈과 야수적만행, 망국노의 비운을 겪는 백제인민들의 불행과 고통, 강점자들에 대한 그들의 불타는 적개심과 항전에로의 궤기 등에 중점을 두고 형상을 구성하고있다.

소설에서의 형상구성의 이러한 특성은 작자가 역사적사실의 정확한 전달보다도 예술적형상속에 일제식민지통치밑에 있는 조선의 사회현실을 투영시키며 작품의 현대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작자의 이와 같은 창작의도와 예술적탐구는 흑치상지가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항전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후기생활이 복잡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작품에서 그를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몸바쳐나선 애국자로, 인민들속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영웅으로 묘사한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장편소설 『흑치상지』에서 첫머리에서부터 두드러지게 그려지고 있는 것은 당나라침략자들에게 강토를 짓밟히고 갖은 재난을 당하는 백제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와 원쑤들에 대한 그들의 치솟는 증오심과 불타는 적개심이다.

백제서울에서 멀지 않은 고량부리에서 당나라강점자들이 감행하는 잔인무도한 야수적인 만행과 백제사람들이 겪는 끔찍한 참화는 말그대로 아비규환의 수라장을 방불케 한다.

악귀같은 당나라오랑캐들은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놓아두고 부녀자들을 강간 하며 피비린내 나는 살륙행위를 저지른다. 심지어 그놈들은 반항하는 사내들의 머리를 풀어 달리는 말꼬리에 매달아 피투성이로 만드는가 하면 무서워서 울음소리를 낸 아이들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동댕이쳐 죽인다.

당나라오랑캐들의 이와 같은 강도적 랙탈과 야수적인 행은 백제사람들의 가슴속에 피맺힌 원한과 분노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한다. 그리하여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에 불타는 백제인민들은 강점자들에 대한 복수전, 애국항전에 떨쳐 일어서게 되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백제인민들의 반침략애국항전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이끌어나가는 흑치상지장군의 형상화에 창조적 각광을 집중하고 있다.

당나라강점자들의 악착한 랙탈행위와 치열리는 류혈참극으로 살벌하기 그지없는 고량부리거리에 갑자기 갑옷우에 백제농군복차림을 한 장정들이 비호처럼 나타나서 순식간에 당나라장수와 병정들을 쓸어버리고 쓸고가던 백제사람들을 구원해낸다. 이 장정들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기 위하여 적들의 동정을 살피려 나왔던 흑치상지와 그의 동료, 부하들이였다.

소설에서 흑치상지는 당당한 위풍과 용맹한 기상, 뛰여난 무술을 구비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남자중의 위인』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 후리후리한 큰 키와 어마한 몸집은 마치 산이 움직이는 듯하였으나 그 동작이 빠르

기란 새바람과 같았었다.

은빛같은 구레나룻이 그 희고 넓은 두불에 선을 둘렀고 한자가 널을듯한 긴 수염을 거느렸는데 그 부릅뜬 두 눈에서는 번개불이 번쩍번쩍 흘어지며 우렁한 호통은 벼락이 떨어지는듯하다.

고랑부리에 나타나서 긴 환도를 번개같이 휘둘러 당나라장수와 병정들을 한칼에 쓰러눕힌 흑치상지에 대한 이 초상묘사는 그의 비범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나아가서 소설에서는 흑치상지를 겨드랑이에 날개가 들헤 훨훨 날아다니고 한자루의 칼이 천자루, 만자루가 되여 온 천지에 칼빛이 차넘치게 하며 원쑤놈들의 모 가지와 팔다리가 된서리에 나무잎 떨어지듯하고 피가 흘러 강을 이루게 하는 『하늘이 내신 장수』로 형상화되고 있다.

흑치상지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실재한 역사적인물로서의 그에 대한 정확한 사실주의적묘사가 아니라 작자의 허구에 의하여 과장한 랑만주의적형상이다.

그러면 현진건이 왜 흑치상지의 성격묘사에서 이처럼 특이한 형상수법을 썼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악독한 일제식민자통치밑에서 모진 재난과 참화를 겪고 있던 조선인민들에게 『하늘이 내신 장수』의 탁월한 경륜과 령활한 투쟁에 의하여 일제침략자들이 격멸되고 조국이 광복된다는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려는 작자의 창작의도에서 나온것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도 역사소설에서 역사적사실자체보다도 주제사상을 밝히는것을 기본으로 삼은 현진건의 문학견해와 창작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소설에서의 백제인민들의 반침략애국항전에 대한 형상화에서 두드러지는것은 광범한 군중의 참가에 대하여 힘주어 그리고 있는 점이다.

고랑부리에서 당나라침략자들을 쳐부신 다음 흑치상지가 구원된 백성들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하니 그들은 장군을 따라 임존성으로 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흑치장군이 칼과 활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니 그들은 맨주먹으로라도 싸우겠다

고 대답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흑치장군을 따라 임존성으로 가는 것이다.

외적의 침입으로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은 백제의 각계층인민들은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자 길을 메우고 모여든다. 거북이, 쾌돌이, 창화 등은 당나라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항전에 떨쳐일어선 백제사람들의 개성적인 성격형상이다.

거북이와 쾌돌이는 당나라침략자들의 강점으로 재난을 겪는 백제인민들의 사상 감정과 의지를 체현하고 항전에 떨쳐나서는 궁정인물들이다. 그들은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가던 도중에 서로 만나 동행을 하게 되는 젊은이들이다. 거북이는 참꽃과 혼례를 하고 신방에 들었던 첫날밤 당나라침략자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뛰쳐나와 그 길로 병정이 되려고 안해와 함께 임존성으로 가는 길이였다. 쾌돌이는 그 이름처럼 쾌활한 성격의 머슴군총각인데 그도 주인집식구들이 저희들끼리 피란을 가버리자 병정이 되려고 임존성으로 찾아가는 참이였다. 도중에서 서로 만나 흑치장군의 이야기를 흥이 나서 하던 거북이네 애송이부부와 쾌돌이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문을 열어놓은 임존성안으로 몰려 들어간다. 거북이와 쾌돌이는 작품의 앞부분에서 잠간 등장하였지만 이야기가 진전되는데 따라 형상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소설에서 창화는 내두좌평의 높은 벼슬을 하는 임자의 첨이 되여 항락적인 생활을 하다가 침략자들이 들이닥친 다음에는 당나라오랑캐놈에게 몸까지 버리였으나 고랑부리에서 구원을 받은 후 개심하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정을 탐지하여 흑치상지에서 알려줌으로써 백제인민들의 반침략애국항전에 이바지하는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걷는 녀성이다.

소설에서는 흑치상지가 임존성에 모여든 군중속에서 한편으로 군사들을 뽑아 교련을시키고 다른편으로 역군을 골라 성을 보강하여 방비를 튼튼히 다짐으로써 당나라침략자들과의 첫 싸움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장편소설 『흑치상지』는 『죽음보다 슬프다』라는 첫 소제목에서 당나라강점

자들의 횡포하고 잔인한 만행으로 백제인민들이 겪는 재난과 참화를 구체적인 화폭으로 펼쳐보여주는데로부터 시작하여 이야기를 끌고나가다가 소제목 『첫 싸움』에서 임존성에 용기한 백제항전군이 당나라침략군에게 큰 타격을 가하고 첫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묘사하고나서 강점지들을 반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준비하는 대목에서 중단되었다.

일제총독부 경무국이 지나간 시대의 역사적사실을 취급한 장편소설 『흑치상지』의 신문현재를 중지시킨것은 이 소설이 조선인민들에게 주는 영향을 얼마나 두려워하였는가 하는것을 말해준다.

장편소설 『흑치상지』는 신문에 52회밖에 현재되지 못하였고 아직 시작에 불과 하지만 이 부분만으로써도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중오심과 불타는 적개심을 지니고 힘을 합쳐 적극 투쟁한다면 외래침략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현진건의 역사소설은 당시의 사회역사적조건과 작자의 세계관적체한성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부족점을 가지고있지만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와 아주적인 파쑈적 폭압에 의하여 민족적인것이 무참히 짓밟히던 가장 엄혹한 수난의 시기 지난날의 인간과 생활에 대한 예술적재현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우수한 성격적특질과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 슬기로운 창조적활동과 용감한 반침략애국투쟁을 보여주고 사대명국사상과 착취사회가 빚어낸 악폐를 폭로비판하며 민족의식과 조국애를 표현한것으로 하여 광복전의 진보적인 문학유산의 하나로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김일성저작집』49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년.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년.

- 《三國史記》상, 과학원고전연구소 번역편찬 과학원출판사, 1958년.
- 《조선전사》5 (중세편 밀해 및 후기신라편)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과학비과사전출판사, 1991년 제2판.
- 《無影塔》玄鎮健, 博文書館, 1941년 재판.
- 《東亞日報》1939년 10월~1940년 1월.
- 《현대조선문학선집》9 단편소설집 《행랑자식》 현진건, 라도향, 리익상, 문예출판사, 1990년.

시조의 명칭과 시학적 특성에 대한 고찰

박 길 남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시조는 조선중세시가사상 그 존속기간이 제일 오래고 유산도 많은 고유한 민족 시가형식이다.

시조는 고려시기에 발생하여 오랜 기간 하나의 독자적인 시가계통을 이루고 끊임없이 발전해오는 과정에 우리 민족의 다양한 생활감정을 풍부하게 반영하면서 사람들의 정서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따라서 시조를 문예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지녀온 다정다감한 정서세계와 미학적기호를 이해하는데서 의의있는 일로 된다.

이 글에서는 시조에 대한 문예학적연구에서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수있는 시조의 명칭과 시학적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1. 《시조》명칭에 대한 리해

민족시가형식으로서의 시조에 대하여론의할 때 우선 부딪치게 되는것이 시조라는 명칭을 어떻게 리해하겠는가하는 문제이다. 중세기에 존재한 대부분의 시가형식들이 그러한것처럼 시조라는 명칭도 해당 시가형식에 고유한 문예학적특성을 가리킨 말이 아니며 또 그것은 이 시가형식이 출현한 초기부터 생겨난것이 아니다.

시조(時調)라는 명칭은 글자 그대로 때의 노래 즉 시절의 노래라는 말인데 이 표현은 시조형식이 출현한 고려시기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인 18세기경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리학규의 『락하생고』와 류만공의 『세시풍요』등에 나오는 자료들을 통하여 알수 있다.

18세기말에 활동한 리학규의 시문집 『락하생고』에 들어있는 시 한수에는

그 누가 꽃피는 달밤을 애닮으다 했나

시조야말로 처량하기 그지없네.

(誰憐花月夜, 時調正悽愴)

라는 구절이 있고 그 시의 뒤에 『시조는 또한 시절가라고도 하며 모두 거리와 마을의 세속적인 말로서 소리를 느리여 노래한다. (時調亦名時節歌皆閭巷俚語曼聲歌之)』라는 주석이 첨부되어있다.

그리고 19세기중엽에 활동한 류만공의 『세시풍요』에 들어있는 시 한수에 또

시절단가 음조호팅하여

풍랑월백 3장으로 창하네

(時節短歌音調蕩, 風冷月白唱三章)

라는 구절이 있고 그 뒤에 역시 『속가를 시절가라고 한다. (俗歌曰時節歌)』라는 주석이 붙어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 시조를 시절가 또는 시절단가라고도 불렀으며 시조라는 말은 다름아닌 때의 노래, 시절의 노래를 의미한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 시가형식을 왜 시절가 즉 시조라고 부르게 되였는가 하는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18세기초에 활동한 서민가객 김천택이 유명한 시조집 『청구영언』을 만들 때 책의 서두에 언급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통하여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

다고 본다.

...무릇 문장과 시는 세상에 간행되어 후세에 영구히 전해져서 천년을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노래는 화초의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새와 짐승의 좋은 노래가 귀전을 스쳐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것은 한때 입으로 불리운 후에는 자연 흩어져 사라져서 후세에는 전해지지 않는다.

『청구영언서』

김천택은 여기서 한자로 된 문장과 시는 책으로 간행되어 오랜 기간 전해지지만 우리 말로 된 노래 즉 시조 같은 것은 한때 사람들 속에서 불리워지다가 자연히 사라져버리거나 하는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시가형식을 왜 시조라고 부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일정한 리해를 얻을 수 있다. 즉 시조는 일정한 시기에만 사람들 속에서 유행되다가 없어져버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시절의 노래-시조로 부르게 되었다는 그것이다.

이처럼 때의 노래, 시절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조명칭은 원래 문학적 시가형식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음악곡조의 일정한 형식에 대한 이름으로 생겨났다. 그것은 가객 리세춘에 의하여 곡조로서의 시조가 처음으로 생겨났다고 한 『석북집』과 기타 일련의 문헌 자료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석북집』은 리조 영조 때 사람인 신풍수(1712~1775)의 사문집인데 이 책에 들어 있는 『관서악부』 제15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악부시에 바로 그러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다.

첫노래는 모두가 양비귀의 이야기

마외의 슬픈 넋 아직 흐느끼는 듯

시조는 모두 장단조로 배렬되니

시작은 장안의 리세춘이부터 일세

(初唱聞皆說太眞,至今如恨馬嵬塵,
一般時調排長短,來自長安李世春,)

이 «석복집»보다 좀 후기인 18세기 말에 나온 서유구의 «림원경제지»에는 또 한 «령상회상», «가곡5장» 등 당대 음악의 제형식들과 같은 체계로 «시조»라는 표제를 달고 음악상의 12음계의 이름을 기록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다. 이 두 자료와 함께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 있는 «시조는 …소리를 느리여 노래한다.» («락하생고»), «시절단기는 음조가 호탕하며 … 3장으로 창한다.» («세시풍요») 등과 같은 이역의 자료들에서도 모두 시조를 곡조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시조라는 말은 원래 음악상의 곡조와 관련되어 생겨난 이름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 시조라는 말은 18세기경에 일반가곡에서 갈라져나온 조선음악의 한 갈래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생겨났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문예학계에서는 시조라는 말이 곡조보다는 주로 그에 얹혀져 불리워지던 문학적인 사설 즉 시조시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고 있으며 시조음악에 대해서는 시조창 또는 시조노래라고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 이것은 현재 옛문헌들에 전하는 시조유산이 곡조로서가 아니라 주로 문학적인 사설 즉 시조시형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시조라고 하면 자연히 시조시를 넘두에 두게 되었던 사정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시조의 명칭에 대하여론의할 때 우리가 한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시조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시기에는 이 시가형식을 어떤 명칭으로 불렸는가 하는 것이다.

다이는바와 같이 민족시가로서의 시조의 형식자체는 고려시기에 발생했으나 이 형식을 시조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한것은 18세기경부터이다. 이로부터 18세기 이전에는 이 시가형식을 어떤 명칭으로 불렸는가 하는 문제가 자연히 제기된다. 지난 시기 연구가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고 일정한 견해들을 내놓았지만 아직 그 근거가 사료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원만하다고 볼수 없다.

지금까지 제기된 견해들 가운데서 그중 근거가 유력하다고 하는 두 가지 견해를 들어보면 하나는 시조라는 명칭이 신조(新調), 또는 신성(新聲)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며 다른 하나는 악시조(樂時調)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시조라는 명칭이 신조 또는 신성에서 유래했다는 설은 시조에 대한 문예학적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되던 광복전시기에 한 연구자가 처음으로 내놓은 것인데 문헌적 근거로는 《동국통감》과 《고려사》 그리고 《고려사절요》의 자료들을 들고 있다.

이 견해를 내놓은 연구자는 시조가 원래부터 시문학적 측면과 음악적인 측면이 결부된 시가형식이라는 것을 넘두에 두면서 《동국통감》에 나오는 《시조(詩調)》라는 표현(이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시와 음악이 결합된 시의 노래조라는 뜻을 가진다)이 우리가 말하는 시조(詩調) 명칭의 전신일 수 있겠다고 보고 이 표현을 문헌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추적해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국통감》보다 좀 앞서 나온 문헌인 《고려사》와 이 《고려사》에 기초하여 편찬된 《고려사절요》에서 《동국통감》의 자료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는 《동국통감》과 꽤 같은 사실을 기록하면서도 《시조(詩調)》를 《신조(新調)》로 다르게 표기하여 놓았으며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실을 기록한 부분에서는 《신성(新聲)》이라는 표현을 쓴 테도 있었다. 이로부터 이 연구자는 시조가 처음에는 새로운 곡조 또는 새로운 노래라는 의미에서 신조 또는 신성으로 불리우다가 《동국통감》 단계에 와서는 시조(詩調)로 불리웠고 그것이 다시 18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시조(時調)로 불리우게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해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그 근거가 사료적으로나론리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서 신조 또는 신성이라고 한 2편의 노래가사가 다 그 구조형식이 시조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노래가사들이 한역되어 문헌에 올랐기 때문에 본래의 형식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

에서도 거기에 3분단식 시적구조를 비롯한 시조의 제반 작시법적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것을 쉽게 알수 있다.

시조명칭의 전신을 신조, 신성으로 보는 견해는 그 근거를 론리적으로 따져보아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 견해에 의하면 시조의 명칭이 《고려사》단계에서는 신조, 신성으로 불리우다가 《동국통감》단계에 와서 시조(詩調)로 되었고 18세기 이후에 와서는 시조(時調)로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는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동국통감》은 다 15세기중엽에 얼마간씩 사이를 두고 나온 문헌들로서 신조, 신성이 시조(詩調)로 《어느덧 시대적변천》을 이루할만큼 시간적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또 《신(新)》과 《시(詩)》, 《시(時)》는 글자의 의미를 따져보아도 서로 연관성이 없다.

다른 한편 신조라는 표현은 썩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사기》와지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신조는 시조형식이 나오기 이전인 세나라시기부터 이미 써오던 말로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시조명칭과는 인연이 없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다음으로 시조명칭이 악시조에서 유래했다는 견해는 《악학궤범》, 《성호새설》, 《문헌비고》등에 악곡의 명칭으로 나타나고있는 악시조(樂時調)라는 표현에서 《악(樂)》자가 떨어져나가고 《시조》만 남는 형식으로 이 명칭이 생기지 않았겠는가고 추정하는것인데 이것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학궤범》이나 《성호새설》이 나온 15~16세기에 유행하던 악시조라는 명칭이 변하여 시조가 되었다면 18세기 이후에는 악시조라는 말자체가 없어졌겠는데 반대로 18세기 이후에 나온 《청구영언》이나 《가곡원류》등에 악곡의 이름으로서의 악시조라는 표현이 그냥 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결국 이 악시조라는 말도 우리가 말하는 시조라는 말과 갈래가 다른 하나의 음악양식에 대한 명칭이라고밖에는 달리 볼수 없다.

그러면 18세기이전의 시조의 명칭에 대해 문제를 어떻게 보는것이 합리적이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왜 18세기이전의 문헌들에 시조의 고유명칭과 관련한 자

료들이 오르지 않았겠는가하는 그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18세기이전에는 시조형식을 가리키는 고유명칭이 따로 없고 그저 노래라는 의미에서 가요, 단가 등과 같은 일반적인 명칭으로만 부르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18세기이전의 문헌들에 시조의 고유명칭과 관련한 자료들이 오를수 없다.

실지로 18세기 이전의 자료들 가운데서 시조평과 관련한 기록들을 보면 거기에서 가요, 단가와 같은 일반적인 명칭들은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다.

한두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1549년 6월에 리현보가 쓴 《룡암야록》서문에 『이 것은 성현의 경전에 근거한 글이 아니므로 외람되게 손을 대여 1편 12장에서 3장을 버리고 9장으로 장기를 만들어 옮겼으며 다른 한편은 10장을 줄여서 단가5결(短歌五?)을 지어 노래부르게 하였다.』(《해동가요》)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단가5결이란 리현보가 이미전부터 전해지던 《어부사》를 시조형식으로 개작한 작품을 말한다.

그리고 1565년에 리황이 쓴 《도산십이곡》 서문에는 또한 『자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서 옮을수는 있지만 노래부를수는 없다. 노래(歌)를 지으려면 반드시 우리 말로 엮어야 한다. …그래서 일찌기 리별의 노래를 본받아 도산6곡을 지은 것이 둘이 있으니 전6곡은 〈언지〉요 후6곡은 〈언학〉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리황이 새로 지었다는 노래(歌)가 바로 현시조형식으로된 《도산십이곡》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 시조형식을 다른 형식들과 구별하여 따로 부른 고유한 명칭이 없었으며 그저 노래 혹은 짧은 노래라는 뜻에서 가요, 단가 등으로 불렸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한다.

사실 우리 시가사를 들이켜보면 새로운 시가형식이 출현한 다음 그것을 가리키는 고유한 명칭이 인차 생기지 않은 실례가 많으며 이것은 오히려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18세기이전에는 시조형식에 대한 고유한 명칭이 따로 없었다고 주장하게 되는것이다.

2. 시조의 시학적 특성

민족시가형식으로서의 시조의 고유한 시학적 특성에 대한 문제는 지난 시기에도 적지 않게 논의되어 왔다. 시조의 시학적 특성에 대한 지난 시기의 논의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시조가 3개의 장(초장, 중장, 종장)에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률상에서 볼 때 3:4조, 4:4조의 정형률을 가진 총 45자 내외의 짧은 시가형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평시조라고 부르는 시조의 기본 양식을 넘두에 둔 것으로서 이 시가형식에 대한 시학적 분석에서 기본 틀 거리를 마련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이미 마련된 연구 성과들을 기초로 하면서 지난 시기에 관심을 덜 돌렸거나 강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중점을 두고 시조의 시학적 특성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시조의 시학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강조하게 되는 것은 이 시가형식이 구조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3행식구성에 단련(혹은 단절)체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서정시형식이라는 점이다.¹

여기서 시조가 3행식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시행이 3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 개의 시행이 각기 일정한 서정구조적 단위를 이루고 서로 생리적인 련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시조의 매개 행은 현대 자유시에서처럼 주로 운률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갈라지는 시구질만을 의미하

¹ 지난 시기에는 시조의 3행식구성법을 3장식구성법이라고 하여 그의 시구조적 특성을 3장 6구(한개의 장이 각각 2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음으로)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3장 6구에서 <장>이라는 표현은 음악의 단위 즉 악장을 넘두에 둔 것으로서 시조를 시학적 견지에서 고찰할 때에는 적합한 표현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악학궤범>이나 <립원경제지>와 같이 시조발생 이후에 나온 옛 문헌들에 보면 장을 오늘의 악장과 비슷한 음악적 단위를 표시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가령 <통비어천가>에서 통천장, 천세장(<악학궤범>)이라고 할 때에는 한개의 장에 두개의 시행이 해당되고 <어부기5장>, <자제장단기149장>(<해동가요>)이라고 할 때에는 시조 한편 즉 세 개의 행이 한개의 장에 해당된다. 또 <립원경제지>에서처럼 <가곡이 5장인데 반하여 시조는 3장으로 칭한다.>고 할 때에는 시조의 매개 행이 한개의 장에 맞먹는식으로 장이라는 개념은 시구나 시행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일정하지 않다. 이것은 당시에 <장>을 문학적 내용의 단위 즉 시학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음악적 개념으로 썼다는 것을 밝혀준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조를 시학적 견지에서 고찰하는 것 만큼 그의 구조적 단위를 편의상 <행>으로 부르기도 한다.

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정한 사상정서적내용의 덩어리로 된 하나의 서정구조적단위를 이룬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시조의 3행식구성법을 3분단식구성법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조의 매개 행은 하나의 서정구조적단위를 이루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인간의 생활감정을 기, 서, 결의 합리적인 과정으로 반영할수 있게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시조의 제1행과 2행은 작품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기본사상을 끝내기 위한 시적정황이나 계기 또는 그러한 시적정황이나 계기에서 직접 받아안게 되는 즉흥적인 사상감정을 제시하고 펼쳐나가는 부분이며 제3행은 1행과 2행에서 노래된 사상감정을 종합적으로 결속지어주면서 작품의 기본사상을 개방시키는 시적일반화부분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1행과 2행은 둘 다 생활적전체를 이야기하는 부분으로서 크게는 한개의 단락을 이루면서도 매 행의 제각기 일정한 사상적의미를 담고있는 작은 정서적단위를 이룬다. 이때 1행과 2행의 관계는 주로 1행이 시적정황이나 계기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되고 2행은 그것을 이어받아 내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전개하는 부분으로 된다.

이 봄이 죽어 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이라

이 시조는 널리 알려진 포은 정몽주의 『단심가』이다. 이 시조의 제1행에 해당하는 『이 봄이 죽어 죽어 일백번 고쳐죽어』에서는 머지않아 리성계일파에게 목숨을 잃을수 있다는것을 예감하는 시인의 비장한 체험세계가 노래되면서 주인공의 운명이 경각에 이른 심각한 시적정황이 주어지고 있다.

시조의 2행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뿐아니라 백골이 흙이 되고 혼마저 없

어지는 그때에 가서도 자기의 절개는 변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노래함으로써 1행에서 노래된 사상감정을 더욱 승화시켜 강조하고있으며 마지막 3행에서는 이러한 절개와 의지는 다름아닌 고려왕조를 끝까지 따르려는 변함없는 한마음이라는 작품의 기본사상이 개방되고있다.

이처럼 시조는 제1행에서 시적정황이 제기되고 2행에서 그것을 전개하여 더욱 승화시키며 3행에서 시의 기본사상을 개방시켜주는식으로 매개 행이 각기 자기의 형상물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련관되여있다.

물론 시조작품들 가운데는 그 서정구조가 3단으로 평백히 길라저있지 않는것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시조의 서정구조는 3분단구성법이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나고있으며 이것은 시조작시법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되고있다.

시조의 이 3분단구성법은 세나라시기부터 내려오던 우리 민족시가의 전통적인 구조형식을 계승한것이었다. 세나라시기의 대표적인 시가의 하나인 《정읍사》가 3개의 분절로 되여있는 사실이 그것을 설명해주고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그후 향가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초기향가인 《혜성가》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3분단구성법은 우리 나라 민족시가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있으며 이것은 시조의 3분단구성법이 전통적인 민족시가의 구조형식에서 계승되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다음으로 시조가 단련체로 된 가장 짧은 서정시형식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여러개의 절로 이루어져있는 장가형식이 아니라 한개의 절로 되여있는 무분절단가형식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고전시가형식들을 구조적견지에서 살펴보면 단절로 되여있는것도 있고 여러개의 절로 나뉘여져있는 분절기도 있으며 또 절로 나뉘여져있지않는 단절가인 경우에도 시조와 같이 짧은 형식이 있는가 하면 가사와 같이 긴 형식도 있다. 그리고 분절가인 경우에도 《정읍사》와 같이 3개의 절밖에 안되는 비교적 짧은 형식이 있는가 하면 《동동》과 같이 긴 형식도 있다. 당시에는 그것이 분절가형식으로 되여있는가 아니면 무분절형식으로 되여 있는가에 관계없이 그저 짧은 시가는 단가로 긴 시가는 장가로 불렸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과거의 시가유산을 시학적견지에서 분류하는 경우에는 시가형식의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분류하는것이 필요하다. 즉 절로 나뉘어져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분절가와 무분절가도 나눌수 있을것이며 또 같은 분절가나 무분절가인 경우에도 길고 짧은데 따라서 단가와 장가로 나누어 볼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시조는 무분절단가형식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시조가 무분절단가형식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민족시가형식 가운데서 가장 짧은 서정시가형식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생활을 반영하는데서 가장 압축된 시가형식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시조의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지난 시기 시조를 단가라고도 불렀던 것이다.

우리 민족시가사를 돌아보면 시조 이전에 나온 형식이든 시조 이후에 나온 형식이든 시조만큼 짧은 시가형식은 없다. 고대가요인 『공후인』은 구전가요적성격이 다분한 단가형식이지만 시조보다 한행이 더 많은 4행으로 되여있으며 삼국시기의 인민가요인 『정읍사』는 분절가로서 조홍구까지 포함하여 총 9개의 행을 이루고있다. 그리고 서사가요들인 향가나 경기체(별곡체)가요, 고려국어가요 등은 다 시조에 비해볼 때 길이가 훨씬 길며 이 밖에 가사와 같은 무분절 장가형식은 그길이가 시조에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길다. 이것은 시조가 우리 민족시가형식 가운데서 가장 짧은 단가형식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가장 짧은 시가형식으로서의 시조의 이와 같은 단가적특성도 역시 선행한 민족시가의 서정시가형식들 가운데서 우수한 특성을 살리면서 그것을 서정시의 본성에 맞게 부단히 힘축련마해오는 과정에 합법칙적으로 형성된것이다. 즉 세나라시기에 나온 『정읍사』와 같은 인민가요형식과 후기신라시기에 발전한 10구체향가등에서 3분단방법과 마지막 단에서의 감탄사(또는 조홍구)설정방법 등 합리적인 원리들을 선택하고 시행의 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새로운 단가형서정시형식을 만들어내게 되었던것이다. 이렇게 합으로써 시조는 선행시가형식들보다 시행은 훨씬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간의 생활과 감정을 깊이있게 반

영할수 있는 제반특성을 다 갖출수 있게 되었다.

시조의 이러한 우월한 특성은 앞에서도 언급한것처럼 매개 행이 뚜렷한 형상의 몫을 가지고있고 그것이 기, 서, 결의 합리적인 서정구조를 이루고있는것과 마지막 행의 첫구에 흔히 《어즈버》, 《아희야》, 《어떻다》, 《두어라》, 《아마도》, 《저 님아》등과 같은 감탄사나 부름말을 설정하여 락구형식을 취함으로서 전단(1~2행)에서 노래된 사상감정을 후단(3행)에서 정서적으로 고조시키면서 시를 결속지어주는데서 생기는 높은 서정성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달밝은 오리성에 혀남은 벗이 앉어
사향감을 뉘아니 자리마는
아마도 위국단침은 나뿐인가 하노라

이 시조에서는 달 밝은 성안에 둘러 앉은 수많은 군사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있을 때 오로지 나라위한 붉은 정성을 굳세게 가다듬고있는 서정적주인공의 남달리 숭고한 정신세계가 짙은 정서속에 감동적으로 노래되고있다.

여기서 볼수 있는것처럼 전단(1~2행)에서 노래된 《사향감-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3행 첫구에 설정된 《아마도》라는 감탄사를 기점으로 정서적고조를 이루면서 후단에서 《위국단침-나라 위한 붉은 정성》으로 승화되고있다.

시조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지막단(제3행) 첫구에 감탄사나 부름말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 품사를 쓰는 경우에도 《만일에》, 《진실로》, 《다만지》, 《세상에》, 《그 중에》, 《우리도》, 《님 향한》, 《님 오신》등과 같이 전단에서 노래된 사상감정을 종합적으로 규정해주거나 그에 대조되는 어휘표현을 구사하여 후단 첫머리에서 정서적인 마루를 지어줌으로써 시의 서정성을 높이고 작품을 여운있게 결속짓고있는것이 특징이다.

동지딜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들에 내여

춘풍이불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님오신 그밤이드란 구비구비 폐리라

이 시조의 마지막 행 첫머리에 온 『님오신』이라는 표현은 작품전반에 구현되어 있는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집약적으로 구현되어있는 단어이다. 서정적 주인공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것은 다름아닌 『님오신』그날에 대한 그리움이다. 때문에 이 작품에서 『님오신』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작품의 기본 알맹이가 없어지는것으로 된다. 그리고 만약 이 단어가 3행 첫머리에 오지 않고 다른 위치에 가붙는다면 전단과 후단의 정서적련계가 지금처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시조에서 3행 첫머리에 오는 단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3자로 되어있으며 정서적으로 채색되어있는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시조의 곡조상 요구에 의한 정형적인 운률조성수법과도 관계되지만 중요하게는 전단과 후단의 내용을 형상적으로 잘 융합시켜 시를 정서적으로 여운있게 끝내는 시조의 작시법적특성과도 관련된다고 말할수 있다. 현재 전하는 시조유산 약 1,500여수가운데서 3행의 첫 단어가 3자로 되여있지 않은 시조가 불과 몇수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이것을 잘 말해 주고있다.

이처럼 시조는 우리 나라 중세국문시가형식들가운데서 가장 짧은 단가형서정시 가로서 작은 형식속에 깊이있는 내용을 담아야 하는 서정시의 본성적특성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시조의 시학적특성에서 다음으로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것은 운률이 격식화되어 있는 정형시가형식이라는 점이다.

운률은 시에서 서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품의 내용을 정서적으로 감동깊이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때문에 시에서 운률을 보장하는것은 작시법상의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특히 시조와 같이 처음부터 음악과 결부되어 발전한 시가형식인 경우에 운률조성문제는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되며 시가형식자체의 고

유한 특성을 규정짓는 주요한 요소로 된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운률은 음절수의 조화로운 배합에 의하여 생기는 음수률(수운), 소리의 길고 짧음과 높낮이 즉 억양에 의하여 생기는 성운률(성운) 그리고 단어나 시구의 규칙적인 대응(이때 해당 단어나 시구가 어느 위치에 놓이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에 의하여 생기는 위운률(위운)로 갈라볼수 있는데 시조에서는 음수률이 기본으로 되여있으며 여기에 성운률과 위운률이 보조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조가 운률이 격식화된 정형시라고 할 때 그것은 주로 음수률의 규격화에 의하여 정형이 이루어진 시가라는것을 의미한다. 시조의 운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음수률문제를 주로 논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조 음수률의 정형은 한시의 절구에서와 같이 매구의 음절수가 엄격히 고정되어있는 절대적인 정형을 이루고있는것이 아니라 임의의 구에서 1~2자정도의 드나듬수가 허용되는 상대적인 정형을 이루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시조음수률의 기본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 시기 시조음수률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우에 자수의 빈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왔다. 그리하여 시조의 음수률을 제1행에서 3:4, 3(4):4, 제2행에서 3:4, 3(4):4, 제3행에서 3:5, 4:3으로서 1편이 총 45자로 이루어진것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하여 이것을《기준형》으로 보았다.

그런데 실지 작품상황을 놓고보면 이러한 기준형에서 벗어진 작품들이 매우 많다.

이런데로부터 지난 시기 일부 연구가들은 시조음률수의 기준형을 41~50자로 여유있게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음수률조직을 몇가지 류형으로 나누어 보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이 기준형들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작품까지도 포괄하는 시조음수률의 보편적인 정형률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낼수가 없었다.

지난 시기 시조음수률에 대한 연구에서의 이러한 부족점은 주요하게는 시조의 음수률이 매구절의 음절수가 엄격히 고정되어있는 절대적인 정형률을 이루고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구에서 1~2자정도의 드나듬수가 허용되는 상대적인 정형률

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기의 음수를 연구에서 자주 빈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며 이 방법에 의하여 주어진 시조 음수를 기준형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민족어의 특성에 따르는 고유한 운율 조성 수법들을 정확히 고려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은 매개 민족시가의 운율에는 그것이 수단으로 삼는 해당 민족어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리 말은 길고 짧음과 높고 낮음, 강약이 있고 또 쓰이는 환경에 따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어음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말의 이러한 어음론적 특성은 시가 창작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때문에 고유한 민족시가 형식의 하나인 시조의 운율 연구에서는 우리 민족어의 어음론적 특성에 따르는 음향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조의 음수를 대한 고찰에서 우리 말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시조의 음수를 상대적인 정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시조의 음수를 단순히 글자의 수량(우리 말은 한 개의 음절이 한 개의 글자로 표시되므로)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당 어휘가 담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활용되는 정황에 따라 소리마다의 고저, 장단, 강약 등 음향기가 서로 달라지는 우리 말의 특성으로 하여 임의의 구들에서 1~2자정도의 드나듬 수가 허용되는 상대적인 정형률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빈도에 의하여 주어진 《기준형》과 그에서 벗어난 다른 작품들과의 대비표를 제시한다

(기준형) 오백년 도읍지를 뛸마로 돌아드니

3 : 4 , 3 : 4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되없네

3 : 4 , 3 : 4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3 : 5 , 4 : 3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앉아

3 : 5(+1) , 3 : 4

큰칼을 옆에차고 긴파람을 닫는차에

3 : 4 , 4(+1) : 4

어되서 일성호가는 단야장을 하는고

3 : 5 , 4 : 3

우의 대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음수률이 《기준형》으로 되여있는 시조 《오백년 도읍지를…》에 비하여 시조 《한산섬 달밝은 밤에…》는 제1행 1구(내구)의 두 번째 음절군(《달밝은 밤에》)과 제2행 2구(외구)의 첫번째 음절군(《긴파람을》)에서 기준형보다 한자씩 늘어나고 있다.

시조음수률의 상대적정형에 대해서는 이 밖에도 여러가지 실례를 들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시조의 운률은 주로 음수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음수률은 절대적인 정형을 이루고 있는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정형을 이루고 있다는데 기본특성이 있다.

시조의 시학적특성과 관련하여 끝으로 강조할것은 그의 양식적다양성과 정연성이다. 우리 나라 민족시가 형식들 가운데서 시조는 그 양식의 면에서도 다른 시가형식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시조의 양식이 비교적 다양하며 정연하다는 것이다.

물론 시조외의 다른 민족시가형식들도 그 양식이 구분되어 있는것들이 있다. 가령 향가의 경우에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었고 가사에서도 마지막에 잡가가 분화되어 나옴으로써 일반가사와 잡가양식이 서로 구분되게 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볼 때 시조에서와 같이 그 양식이 정연하고 다양하게 분화발전하지

못하였다.

시조는 소설에서 단편소설, 중편소설, 장편소설 양식이 정연하게 갈라져있듯이 평시조(단시조), 엇시조(중시조), 사설시조(장시조)로 그 양식이 정연하게 갈라져 있으며 또 시조형식과 비슷한 련시조양식도 있다.

이것은 시조가 발생이후에 변화되는 현실의 요구에 수용하면서 부단히 자기의 양식들을 발전시켜왔다는것을 밀하여주며 동시에 민족시가형식으로서의 시조형식 자체의 우수한 특장을 보여주고있다.

물론 시조의 제양식들 가운데서 평시조양식을 제외한 나머지 양식들은 그 자체가 현실적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광범히 활용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작품유산도 많지 못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시조는 다른 민족시가형식들에 비하여 그 양식구분이 정연하고 다양한것만은 사실이다.

시조는 처음에 3행식구성에 음수률이 기본적으로 격식화되어있는 단가형식으로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평시조양식이다. 평시조양식은 시조발전의 전 행정에서 기본양식으로 리용되였으며 현전하는 시조유산도 대부분이 평시조양식으로된 작품들이다.

따라서 시조의 기본양식은 평시조라고 볼수 있으며 평시조는 시조형식을 대표한다고 말할수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시조는 그의 서정구조와 운률, 양식의 면에서 다른 민족시가형식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시조에 대한 문예학적연구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시조의 형상적 특징을 살린 우리 시대의 새로운 단시와 서정시를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참고문헌

《조선국어고전시가사연구》교육도서출판사 1984년판, 231~241 페지.

《高麗史》렬전 권제 38, 오잠, 김원상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1958년판, 3책 페지.

563~566.

《高麗史節要》권 21, 충렬왕 22년 추 7월조.

《韓國文化史大系》5, 고려대학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67년판, 819 페지.

백운거사 리규보와 서사시 《동명왕편》

정 흥 교

사회과학원 주체문화연구소

백운거사 리규보(1168~1241)는 우리 나라 중세사상문화사에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론철학자이며 뛰여난 창작적재능을 지닌 애국적문인의 한 사람이다.

그가 나서 자란 12세기말~13세기전반기는 무신통치배들의 전횡과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거세차게 벌어지기 시작한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리규보는 이처럼 복잡하고 첨예한 시기에 살면서 민족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열정적인 탐구와 심각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조국애의 뜨거운 열망을 간직하였으며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대바르고 능란한 문필활동과 창작으로 이름을 떨쳤었다.

리규보가 서사시 《동명왕편》을 창작한것은 학문과 문필활동으로 나라에 보탬을 주려는 랑만적인 포부와 지향을 안고 천마산에 들어가 민족사를 탐구하며 창작 수업에 온갖 정열을 바쳐가던 26살의 청년시절이였다. 이 나날에 그는 역사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서적들과 자료들을 탐독하였고 선조들의 슬기와 위훈의 자취가 깃들어있는 귀중한 역사유적과 유물들을 찾아보았다.

이 과정에 그를 격동시킨것은 혈통의 단일성과 순결성을 지켜 장구한 기간 꼭절 많은 역사의 세파를 줄기차게 해쳐온 고구려시대에 발휘된 선조들의 애국의 넋이였다.

그는 민족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나갈수록 국토의 통합을 실현한 고려국의 거룩한 역사에도 고구려의 애국전통이 이어져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리규보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옛책들의 갈피속에 묻혀있는 역사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적극 찾아내었고 그 가운데서 잘못되었거나 명백치 않는 것은 검토 고증하여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시기 많은 역사책들 특히 『삼국사기』, 『구삼국사』를 비롯하여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서적들을 탐구하는 과정에 리규보의 특별한 관심을 끈것은 『주몽전설』을 비롯한 고구려의 전국과 관련한 설화들이였다. 그는 역사책들을 파고드는 과정에 『주몽전설』이 비록 신비한 이야기로 꾸며져있지만 전혀 허황한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의 진실이 담겨져있고 선조들의 거룩한 자취가 인찍혀있다는 것을 커다란 감동과 궁지속에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리규보로 하여금 고구려의 전국설화에 담겨져있는 역사의 진실을 밝혀 후세에 전하려는 마음을 굳게 한 생활적 전제로 되였다.

이에 대하여 리규보는 서사시 『동명왕편』의 서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서문에 씌여져있는바와 같이 동명왕이야기는 민족생활에 깊이 뿌리내려 고려 때에 와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리규보 자신도 그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황당하고 괴이한 이야기로 여기면서 믿으려 하지 않았다.

리규보는 후에 중국의 옛 역사책인 『위서』의 『통전』을 염어보았는데 거기에 도 동명왕이야기가 실리였으나 그 내용이 너무 소략하고 상세하지 못한데 대하여 불쾌감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런데 『구삼국사』를 구하여 거듭 읽는 과정에 동명왕본기에 실려있는 주몽전설이 꾸며진 귀신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실제한 역사적 사실이 담겨져있음을 깨닫고 민족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것이다.

그때의 격동된 심정에 대하여 리규보는 서사시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다음해 계축년(1193년) 4월 〈구삼국사〉를 구하였는데 그 안에 동명왕본기가 있어 그 신비로운 사적이 세상에 알려져있는것보다 훨씬 많고 상세하였다. 그렇지만

역시 처음에는 믿지 않고 괴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로 여기였다. 그러나 여러번 거듭 하여 읽으면서 거기에 담겨져있는 참뜻을 새겨보고 그 근원을 따져보니 그 이야기가 황당한것이 아니라 성스러운것이였고 괴이한것이 아니라 신성한것이였다.
…동명왕이야기는 변화무쌍하고 신비한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혹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우리 나라가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지던 때의 신성한 자취를 나타내려고 한것이였다. 이것을 이제 써두지 않으면 뒤세상사람들이 어떻게 알수 있으랴. 그래서 내 이 사적을 노래에 담아 기록하는것이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 이 이룩한 나라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합이로다.»

보는바와 같이 리규보는 《주몽전설》을 통하여 우리 나라가 먼 옛날 성인이 이룩한 거룩한 나라이며 조선의 중세민족사가 동명왕에 의하여 세워진 고구려의 창업에서 시작되고 그 근본이 마련되었다는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것이다.

이것은 리규보에게 있어서 민족사연구에서의 혁신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발견이였다고 할수 있다. 이 새로운 발견은 리규보로 하여금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지니고 민족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리해를 가지게 한 생활적계기로, 정신적바탕으로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사시 《동명왕편》은 역사연구에 바쳐진 리규보의 피타는 노력과 탐구의 자랑찬 결실이였고 민족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리해로 하여 가슴깊이에 뿌리내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애족적지향의 분출이였다고 할수 있다.

서사시 《동명왕편》의 문헌사료적기초는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이다.

리규보는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에 실려있는 동명왕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리해에 기초하여 아득한 옛날 나라가 세워지던 시기 해모수의 아들로 태여난 주몽이 고구려국가를 창건한 성스러운 이야기를 서사적화폭에 담았다. 시인이 서사시의 제목에 실화의 주인공 동명왕의 왕명을 그대로 따붙인것도 역시 고구려의 창업이 가지는 역사적의의를 형상적으로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고 할수 있다.

동명왕에 의하여 세워진 고구려는 조선의 첫 봉건국가로서 국력과 군력을 끊임

없이 강화하여 창건된 이후 천여년간 동방의 으뜸가는 강국으로 존재하면서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누리에 뛸치였을뿐아니라 중세초기 우리 나라의 사회발전과 문화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여 동명왕은 고구려국가를 세운 시조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천년강국 고구려의 위용과 존엄을 상징하는 역사적인물로 송상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지나간 역사적시대에 조선민족사의 첫 도읍지였고 고구려때의 수도였던 역사의 고도 평양과 묘향산, 구월산 등 명산들에 사당을 지어놓고 민족의 원시로 단군과 함께 동명왕의 사적을 궁지높이 칭송하며 해마다 제지내는것을 년례행사로 전통화하여온 사실만으로도 확증할수 있을것이다.

서사시 『동명왕편』은 동명왕본기에 실려있는 『주몽전설』을 서사시적화쪽으로 재현한 본시와 시인의 창작의도와 미학적리상을 밝힌 머리시와 맷음시로 구성되어 있다.

시에서 기본내용을 이루는 본시는 『주몽전설』의 구성을 그대로 살리여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있다.

본시에서 첫부분은 주몽의 가계를 보여준 해모수와 류화에 대한 이야기로 엮어져있다.

해모수와 류화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주몽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하는 신화적성격의 설화로서 부여사람들속에서 창조전승되어왔다.

『주몽전설』의 창조자들은 민간에 전승되여오는 이 신화적성격의 이야기를 앞머리에 첨부하고 그를 통하여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를 하늘신의 아들로, 어머니 류화를 바다룡왕의 딸로 형상함으로써 주몽의 성격을 비범화, 신격화하고 그에 의한 고구려의 창업을 하늘의 계시로 합리화할수있는 생활적바탕을 마련하였던것이다.

『주몽전설』이 이처럼 고대국가인 부여사람들속에서 창조전승되어온 해모수와 류화에 대한 신화적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설화의 기본주인공인 주몽의 성격을 건국위업의 실현자로서의 응당한 자질을 갖춘 비범한 인간으로 그려낼수있는 생활적전제로, 정신적바탕으로 되도록 한것은 고구려의 건국설화가 대체로 옛

부여국의 설화유산에 토대하고 그것을 고구려국가건립의 사회역사적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꾸며졌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고구려의 전국설화인 『주몽전설』이 옛부여국의 설화유산을 계승하고 설화적 형상창조의 원천으로 삼게 된것은 고구려의 시조왕인 동명왕이 부여땅에서 나서 자라났다는 역사적사실과 관련시켜 보아야 할것이다.

다시말하여 『주몽전설』에서 주인공 주몽의 가계를 밝힌 첫부분을 해모수와 류화에 대한 부여국의 신화로부터 시작한것은 그 창조자들이 고구려의 시조왕을 신격화하기 위함데 그 목적이 있은것이 사실이지만 옛부여국과 고구려와의 관계, 부여국에서 해모수와 류화의 아들로 태여난 주몽의 성장과정과 부여국을 떠나 출본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국명을 고구려라고 하게 된 경위 등으로 미루어 볼때 전혀 생활적바탕이 없이 덧붙은 허황한 이야기라고 할수 없다.

설화에 그려진 원형들은 고대인민들에 의하여 창조되였지만 서사시에서 형상된 이들의 성격에는 시인의 미학적리상과 당대 인민들의 지향이 체현되어 있다. 이것은 시인이 오랜 역사적기간에 걸쳐 전승되어오는 설화에 기초하면서도 서사시의 주인공인 동명왕과 그의 아버지 해모수, 어머니 류화의 형상을 당대 사회현실의 요구와 민족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초하여 예술적으로 재창조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해동의 해모수는

진정 하늘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처음 하늘에서 내려올 때
다섯 룡이 끄는 수레를 타고
따오기둥에 앉은 신하
백여명의 호위를 받으며 내리는데
청이한 음악소리 울리고
채색구름은 기발이 펼럭이는듯

이렇게 시작된 시에서는 아침엔 땅에 내려 세상을 다스리고 저녁이면 다시 하늘로 오르는 해모수의 위엄 있고 신비한 재능에 대한 이야기, 암록강 물결을 헤가르며 나와 웅심못가에서 노니는 류화의 3형제를 깜쪽같이 지은 구리궁전에 유인하고 그 중 맨이인 류화와 사랑을 맺는 이야기, 혼인문제를 둘러싸고 류화의 아버지인 하백과 재주거루기를 하여 끝내 그를 굴복시키는 이야기, 결혼 후 가죽수레를 타고 해모수와 함께 하늘로 오르다가 그와 갈라진 류화가 온갖 시련을 겪으며 우발수물가에 이르러 잡힌 몸이 되여 부여의 금와왕 별궁에서 주몽을 낳는 이야기 등 동명왕본기에 실려있는 해모수와 류화에 대한 이야기를 생동한 시형상으로 재현하고 이 감동 깊은 이야기들에서 받아 안게 되는 격동적인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예로부터 나라임금이 되는 자

누구나 하늘의 명을 받았으련만

대낮에 하늘에서 날아내리는

이런 일은 있어보지 못했어라

...

내 옛사람들에게서 들은 일 있거니와

하늘과 땅 서로 떨어진건

2억 1만 8천 7백 80리라 하였거늘

어떤 사다리를 밟고 오르며

무슨 날개로 쉬이 날수 있으랴

아침저녁 마음대로 오르내리는

이런 조화 그 누가 감히 당할손가

이것은 시의 첫부분 마지막에 노래된 시인의 주정토로이다.

보는 바와 같이 이 주정토로에는 우리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위인도 따를 수 없는 특출한 재능과 슬기를 지닌 결출한 성인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라는 드높은 궁지와

자부심이 힘있게 맥박치고 있다.

또한 이 주정토로를 통하여 시인은 서사시의 기본주인공인 동명왕이 이 땅에 성스러운 나라를 세운 결출한 성인들의 뜻을 이어 민족발전의 앞길을 개척해나갈 출중한 인물로 태여났음을 시사하였다고 할수 있다.

서사시의 본시에서 중심을 이루는것은 주인공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화한 둘째부분이다.

이 둘째부분에서 시인은 전설의 내용에 따라 주인공 동명왕의 형상을 크게 두 체계로 나누어 그리였다.

세상에 태여난 주몽
골격이 출중하고
울음소리 또한 웅장하였어라
처음 한말들이 알에서 태여났거니
보는 사람마다 놀라움 금치 못하였네

이렇게 시작된 시에서는 먼저 주인공의 출생과 관련한 신화전설적인 이야기를 펼쳐보여주고 이어서 금와왕이 집권하고있는 부여땅에서 태여난 주인공의 곡절많은 생활과 성장과정, «이렇게 사는것이야 차라리 죽으니만 못하다»는 울분의 심정을 안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대와 축복을 받으며 부여땅을 몰래 떠나는 눈물겨운 리별이야기 그리고 큰 뜻을 품고 사귄 오이, 마리, 협부 등 세 벗과 더불어 부여땅을 떠난 주인공이 졸본천기술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국가를 세우기까지의 기간에 있은 기이한 사건들과 감동깊은 체험의 세계를 특색있는 세부적인 생활묘사와 격동적인 주정토로속에 감명깊이 펼쳐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주몽일행이 부여군사들의 추격을 받으며 엄체수언덕에 이르렀을 때였다. 강물을 깊은데 배가 없어 정황은 참으로 긴박하고 위급하였다. 이러한 때에 자라떼가 나타나 다리를 놓아주어 주인공일행이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는 이야-

기, 어머니의 품을 떠날 때 슬픔속에 경황없이 놓치고 온 보리씨를 한쌍의 비둘기 가 날아와 전해준 이야기도 서사시의 이 부분에 실려있다.

그중 엄체수에서 고기들이 놓아준 다리를 통해 강을 무사히 건넌 이야기를 시화 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가 남몰래 사귄 어진 벗 세 사람

그들은 모두 지혜가 많았더라

부여군사들의 눈을 피하여

큰 뜻 품고 함께 떠날제

엄체수언덕에 이르러보니

강물은 깊은데 배가 없구나

주몽은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크게 한숨짓고 다시 웨쳤더라

《나는 하늘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이라

란리를 피하여 여기에 이르렀거늘

슬프다 이 외로운 마음을

하늘과 땅은 저버리려나…》

문득 활을 들어 강물을 치니

자라떼 물려나와 꼬리를 맞물고

어느듯 훌륭한 다리가 되여

무사히 강물을 건너셨도다

련이어 추격하는 군사를 따라와

멎모르고 다리우에 올라섰는데

다리는 문득 허물어져
군사들이 모두 강물에 빠져 죽었네

이어서 시에서는 『나무우에 날아 온 비둘기 한쌍』 『보리씨를 물어다 전해주었네』라고 하면서 보리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화하였다.

어머니가 주신 5곡의 씨앗종
어머니 리별할 때 너두도 서리워
아차 잊고 못가져온 그 보리씨
어머니가 이렇게 보내주심이라

시인은 이처럼 이 대목에서 보리씨이야기를 그대로 시화하지 않고 보리씨를 두고 체험하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고 그 이야기는 주석으로 첨부하였다.

『주몽이 부여국을 떠날 때에 어머니와의 리별을 참아 견디기 어려워 하였다. 이에 어머니는 <너는 이 어미때문에 마음을 쓰지 말라>고 타이르고 다섯가지 곡식종자를 싸서 주며 그를 떠나보내었다. 주몽이 이때 생리별하게 되는 마음속의 괴로움으로 하여 다섯가지 곡식종자가운데서 보리종자를 그만 잊어버리였다. 그런데 주몽이 염체수강물을 건너 큰 나무밑에서 쉬고있을 때 난데없이 한쌍의 비둘기가 날아왔다. 주몽이 그 비둘기를 보고 말하기를 <바로 저것은 분명 어머니가 보리씨를 보내온것일것이다.>고 하고는 활을 당겨쏘니 한 화살에 두 마리의 비둘기가 떨어졌다. 그리하여 부리를 젖히고 보리씨를 꺼낸 다음 비둘기의 상처에 물을 뿌려주었다. 그랬더니 비둘기들은 곧 다시 소생하여 하늘로 날아갔다.』

우의 시구절과 주석에 밝혀진 전설의 내용을 아울러 고찰해보면 시인이 시에서 전설내용을 시학적요구에 맞게 정서적으로 감명깊이 일반화하였다고 할수있다. 그것은 시의 이 대목에서 어머니와 주인공의 리별이야기를 서사적화쪽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체험하는 심리정서세계를 형상적으로 재치있게 드러내보여주

면서 감동깊이 부각시키고있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여기서 주석으로 침부된 리별이야기는 시밖에 있으면서 시에 반영된 정서세계를 생활적으로 깊이 느낄수있게 하는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전설을 통하여 체험된 정서의 세계를 서사적화폭으로 그려보이면서 거기에 주정토로와 주석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작품에 심어진 주제사상적과제를 점진적으로 심화시키고 감동적인 시형상을 통하여 재치있게 풀어나가고있는 점에서 이채를 뗀다고 할수 있다.

본시의 둘째부분에서 시인은 다음으로 부여국을 떠나 졸본천에 이르러 나라를 세운 주인공이 주변에 있는 비류국의 송양왕을 비상한 제주로 굽복시키고 병합하여 강력한 고구려건설의 터전을 마련한 사적을 펼쳐보이였다.

이 대목에서 시인은 주인공 동명왕과 송양왕사이에 있은 재주겨루기장면을 생동한 시형상으로 그려보인 다음 검은 구름이 골령에서 일어 온 산이 깁꼿하게 가리워지고 몇천인지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쿵쿵 나무를 찍는듯한 소리가 들려올제 동명왕이 『하늘이 나를 위해 이 터전에 성을 쌓는구나』고 웨치자 『어느덧 구름은 흩어지고 드높은 궁전이 솟았어라』는 시구로 끝을 맺음으로써 동명왕의 비범한 성격과 강력한 고구려건설의 터전을 마련한 공적을 재치있는 환상적수법으로 뜻깊게 부각시키였다.

시인은 시의 둘째부분을 끝내면서 『나라를 다스린지 19년만에 왕은 하늘로 올라갔도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하늘로 올라 갔다는것은 나라를 일떠세운 거룩한 시조왕의 사망을 의미한것이지만 19년간 나라를 다스린것은 역사적사실이다. 동명왕은 B.C. 277년에 고구려건국위업을 실현하였고 그후 B.C. 259년까지 왕위에 있으면서 국력을 강화하고 나라에 상무정신이 차넘치게 함으로써 천년강국으로 퉁성번영할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다져놓았다. 그리고 이 해에 왕권을 태자 유류에게 넘기었던것이다.

시에서 시인은 동명왕의 이 거룩한 사적을 노래한 마지막 대목에 침부한 주석에서 『가을 9월에 왕이 하늘로 오르고 다시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때 나이는 40이었

다. 그리하여 태자 유류가 아버지의 유물인 구슬체찍으로 통산에 장사지내였다》고 하였다.

서사시의 본시에서 마지막부분은 동명왕의 위업을 이은 태자 유류에 대한 이야기로 엮어져있다.

이 마지막부분에서 시인은 해모수와 동명왕의 사적을 서사적화폭으로 재현한 앞 부분과는 달리 전설에 기초하여 유류의 비범한 성격과 지략, 고구려국가위업의 계승자로서의 풍격을 생동한 생활세부를 통하여 형상적으로 부각시키고 동명왕본기에 실려있는 전설내용은 그대로 주석으로 침부하였다.

서사시의 마지막을 장식한 유류에 대해 짚은 시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맏아들 유류 또한
뛰여나고 기이한 재간이 있어
아버지가 재주를 시험코자
감추어 둔 칼날도 찾아내고
물동이를 쏘아 구멍을 뚫은 다음
진흙을 다시 쏘아 메꾸기도 하였도다

보는바와 같이 시인은 유류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서사적화폭으로 재현하지 않고 전설속에 전하는 유류의 비범한 성격과 지략을 생동한 세부를 통하여 형상적으로 집약화하여 특색있게 부각시킴으로써 고구려의 룽성변 영과 장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감명깊은 시형상으로 시사하였다.

서사시 《동명왕편》의 본시는 이와 같이 주인공 동명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국가의 창업을 실현한 시조왕으로서의 동명왕의 건국사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조왕의 계승자로서의 유류에 대한 이야기 등 동명왕을 중심으로 하여 전대와 후대를 포괄하는 3대에 걸친 신비하면서도 궁지에 넘치는 이야기로 엮어진 역사물주제의 의의있는 서사시작품이다.

서사시는 《구삼국사》에 실려있는 고구려의 건국설화를 문헌사료적기초로, 생활적비탕으로 하여 이야기줄거리를 시문학적특성에 맞게 명백하면서도 감명깊이 짜고 생동한 세부들로 이야기를 흥미있게 펼치면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치는 주정토로를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신비한 이야기속에 담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시적정서의 거세찬 흐름과 더불어 조국애의 열망이 힘있게 맥박치도록 하고있다.

시에는 동명왕의 아버지 혜모수와 어머니 류화, 류화의 아버지 하백, 부여국의 금왕과 태자, 비류국의 송양왕 등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들 모두가 주인공과의 관계가 명백하고 그 매 인물들의 형상은 고구려의 창건자인 주인공 동명왕의 비범한 성격과 지략, 용맹과 뜨거운 인정미를 부각시키고 건국사적을 형상적화폭으로 밝히는데 복종되고 있다.

시인은 인간관계의 설정에서만이 아니라 흥미있게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과 갈등 등을 작품의 주제사상적과제에 부합되게 잘 조화시키고 있으며 형상창조의 모든 요소들을 고구려국가의 창건자로서의 동명왕의 성격과 위인적풍모를 밝히는데 복종시킴으로써 고구려의 창업을 궁지높이 친양하고 그를 통하여 민족사의 유구성과 선조들의 애국의 넋을 후세에 길이 전하려는 창작의도를 훌륭하게 해결할수 있었다. 《주몽전설》을 서사적화폭으로 재현한 서사시 《동명왕편》은 주인공을 비롯하여 설화에 등장한 다양한 인간성격들을 통하여 고구려국가가 형성되던 시기 여러 종족들의 호상관계와 건국위업의 실현과 국력의 강화발전과정만이 아니라 중세초기 우리 나라 사회발전과 문화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한 고구려사람들의 슬기롭고 씩씩한 기상과 락천적이며 진취적인 생활감정을 엿볼수 있게 하여준다.

시에서 주인공 동명왕은 천제의 손자, 바다룡왕의 의손으로 신비화되어 있지만 단순히 봉건국가의 제왕, 군주로서가 아니라 고구려의 넋과 기상을 상징하는 결출한 혁사적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 형상에는 당시 고구려종족들의 성격적특질을 이루는 용감성과 슬기가 체현되어있다.

주인공 동명왕은 어려서부터 힘이 세고 영특하였을뿐아니라 무술을 즐기고 활쏘기를 남달리 잘하여 사람들속에서 주몽이라 불리우며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그는 부여국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금와왕의 여러 아들들과의 사냥경기에서 적은 화살로 대비도 되지 않게 많은 사슴을 잡아내며 나라를 세운 다음에는 담력과 지략,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송양왕을 피동에 몰아넣고 마침내는 굴복시켜 나라의 국력을 확대강화한다.

동명왕의 이러한 용감하고 진취적인 성격형상은 고구려사람들이 지니고있던 상무정신과 락천적인 생활기풍이 구현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동명왕의 성격에 체현된 상무정신과 락천적인 생활기풍은 남다른 담대력과 용감성에서만이 아니라 역경에 꺾이지 않는 굳센 의지, 림기웅변의 자략과 슬기, 다정다감한 인정미에서도 표현되고있다.

시에서 감명깊은 서사적화폭으로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천대와 고생속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며 어머니와 생리별을 하게 되는 슬픔을 한가슴 안고서도 큰뜻을 실현코저 서슴없이 생소하고 위험한 길을 떠나는 장면, 뜻말가운데서 준마를 찾아내고 지력과 성실성으로 그 말을 차지하는 장면, 부여병사들의 추격으로 위협이 닥쳐온 위급한 정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늘에 호소하여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장면 등도 고구려적인 기질을 체현한 주인공의 성격미를 보여주는 의의있는 장면들이라고 할수 있다

시에 심어진 주제사상적과제를 밝히는데서 주인공과 함께 어머니 류화의 형상도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다.

시에서 주인공의 어머니 류화는 금와왕의 통제속에서 온갖 고통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자식의 성장과 장래를 걱정하며 사나운 세파를 자력으로 뚫고나갈수 있는 상무정신과 씩씩한 기상을 지니고 살도록 자식을 키우는데 정성을 바쳐가는 의지적이면서도 다감한 어머니로 그려지고있다.

조용하면서도 속이 깊고 밀없이 성실하며 부드러우면서도 강의한 류화의 형상에는 또한 조선의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지녀온 성격적특질과 미덕이 체현되어있다고 할수 있다.

류화는 비록 철없는 자식의 엉뚱한 말이라도 소홀히 듣지 않고 활과 화살을 만들

어주며 아들의 울분에 찬 말을 듣고는 나도 이 일로 하여 마음을 썩이고 있다하며 교훈적인 이야기로 지략과 대담성을 키워준다. 또한 아들이 큰 뜻을 품고 길을 떠나게 될 때에는 자신에게 미칠 위험은 가슴속에 감추고 어머니의 걱정은 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5곡의 씨앗을 꾸려주면서 그의 장래를 고무해준다.

류화의 이러한 형상은 고구려녀인들이 지니었던 강의하고 슬기로운 성격미와 아름다운 인정미를 감동깊이 엿볼수 있게 하여준다.

《주몽전설》이 중세의 다른 건국설화들과 마찬가지로 고구려국가의 통치자들에 의하여 꾸며지고 봉건지배계급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적기간에 걸쳐 광범한 인민들속에 널리 퍼지고 사람들이 즐겨하는 이야기로 전승되면서 인민설화적특성을 풍만하게 갖추게 된것은 리규보가 민족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초하여 설화속에 담겨있는 역사의 진실을 생동하고 감명깊은 서사적 화폭으로 재현하고 화폭의 중심을 이룬 주인공과 류화의 형상을 고구려사람들이 개척한 실제한 생활에 바탕을 두고 재창조하면서 거기에 조선민족의 고유한 성격적특질과 뜨거운 인정세계를 체현시켰기때문이였다고 할수 있다.

실지에 있어서 고구려의 건국설화 《주몽전설》은 서사시 《동명왕편》을 통하여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에 실려있는 그대로 내용이 풍만하고 뜻이 깊은 이야기로 전해지고있으며 여기서 서사사는 전설속에 담겨져있는 깊은 뜻을 생동한 문학적형상을 통하여 감동깊이 인식하고 리해할수 있게 하여준다.

작품의 주제사상적지향을 밝히는데서 주인공의 성격창조와 사건전개의 요소들에 적절히 삽입된 시인의 격동적인 주정토로 역시 중요한 형상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에서는 주정토로와 함께 시행과 단락들에 주석의 형식으로 첨부된 전설의 내용도 시형상창조에서 생동성과 진실성을 담보해주는 동시에 서사적화폭속에 담겨져있는 역사의 진실을 옳게 인식하며 작품의 주제사상적지향을 정서의 짙은 흐름 속에 깊이있게 리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에 첨부된 주석은 시밖에 있으면서도 시에서 빼여낼수 없는 특색있는 구성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서사시 《동명왕편》의 구성상의 특색이 있고 문학사적의의가 있으며 조선민족발전의 역사적과정을 서사적화폭에 담아 전하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서사시 《동명왕편》의 구성상의 중요한 특성과 문학사적가치는 선조들의 애국의 넋이 깃든 유구한 민족사에 대한 다함없는 찬양에 머물지 않고 위훈에 찬 역사적사적에 비추어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안목으로 보는 시인의 애국적지향과 심리적 체험세계를 엿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시인은 시에서 고구려민족의 자랑찬 역사에 대한 궁지에 넘친 탐구와 심리정서적체험과정을 통하여 선조들이 이 땅에 아로새긴 애국의 넋과 자랑높은 위훈을 굳건히 지키고 빛나게 이어가지 못하는 당대의 무능하고 부패한 통치관료들과 그들의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행위로 말미암아 빛어지고있는 불만스러운 현실을 깊은 우려속에 비판하였다.

시에서 시인의 이러한 체험과정과 현실비판의 지향은 머리시와 맷음시에서 집약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일반적으로 서사시에서 시인의 사상적지향은 주정토로와 함께 머리시와 맷음시에서 선명하게 실현된다.

이것은 서사시의 구성상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를 이룬다고 할수 있다.

우선 시 《동명왕편》의 머리시에서 시인은 《오랜 어둠속에서 세상이 처음으로 생겨나던》태고적에는 인심이 순박하고 풍습이 아름다워 《신비하고 성스러운 일 이루 다 기록할수 없》이 많았으나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 당대 현실생활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세월이 흘려흘려
사람들 마음 야박해지고
풍습 또한 점차로
라태하고 사치해졌어라

하여 성인은 세상에
자주 태여나지 않고
민족사에 남길 신비론 자취도
점차로 드물어졌어라

시인은 마지막 맷음시에서도 «내 본시 성질이 소박하고 신기한 이야기 좋아하
지 않아» 동명왕의 성스러운 사적을 처음 볼 때에는 황당하고 괴이한 일로 여겨 믿
지 않았으나 후에 다시 보고 또 보니 그것은 참으로 민족사에 전할 자랑높은 사적
임을 깨닫게 되였다고 하면서 민족적궁지에 넘친 격동된 심정과 함께 당대 현실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토로하고 선조들이 이 땅에 남긴 애국의 넋과 위훈의 혁사를
자자손손 전하며 그 넋을 이어 고려를 빛내여 나가기를 바라는 애국의념원을 격조
높이 노래하였다.

신성하고 또 신성하구나
만세에 길이 범도로 되리라
생각하면 나라를 처음 세운
그 임금 어찌 성스럽지 않으랴

...

예로부터 나라가 생겨날 텐
성스런 징조 더없이 많았건만
점차 자손들이 계으로고 거칠어져
조상위업 이어가지 못하거나
옛법을 잘 지키는 임금은
어려울 때일수록 스스로 경계하였도다

임금은 언제나 너그럽고 어질어

래절과 의리로 백성을 다스렸거니
이 법도 자자손손 전하며
천만년 무궁토록 내 나라 편케 하세

머리시와 맷음시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서사시 『동명왕편』에서 시인은 시조왕인 동명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고구려의 건국설화를 격조높은 시형상으로 재현하고 찬양하는데 머물지 않고 있다.

시에서 시인은 우리 나라 민족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고구려시대에 선조들이 발휘한 애국의 넋과 위훈을 궁지높이 찬양하는것과 함께 그에 비추어 불만스러운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고구려의 넋과 기상을 이어받아 고려국의 풍성과 번영을 이룩해나갈테 대한 지향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여기서 서사시 『동명왕편』의 주되는 사상예술적특성이 있으며 조선시가사에서 애국애족적지향을 특색있게 구현한 역사물주제의 가장 우수한 작품의 하나로 되는 근거가 있다.

서사시 『동명왕편』은 지나간 역사적시대에 창작된 작품인것만큼 거기에는 일련의 제한성과 부족점들도 있다.

그것은 우선 머리시의 앞부분에서 고사에 나오는 신화전설적이야기들을 필요없이 장황하게 라열한데서 표현되고있다. 물론 작자의 의도로 볼 때에는 태고적나라가 처음으로 생겨날 때에는 인심이 순박하고 풍습이 아름다워 신비하고 성스러운 일들이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이 나왔다는것을 강조하기 위한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나라의 실재한 역사적사실이 아닌 신화전설적인 이야기들이고 그것마저 무려 24행에 걸쳐 장황하게 라열됨으로써 서사시의 창작의도가 오히려 흐려지고 생활반영의 진실성에도 손상을 주고있다. 이러한 부족점은 본시부분에서 전설속에 있는 비과학적이고 신화전설적허구로 표현된 이야기들을 그대로 시화하고 있는 데서도 표현되고있다.

서사시에는 또한 해동의 해도수가 왕위에 오른것이 『한나라 신작 3년』이라하

고 류화가 주몽을 낳은것이 계해년 즉 기원전 58년이라한것을 비롯하여 실제한 혁사적사실과 맞지 않는 개소들도 있다. 고구려의 국가건립이 기원전 277년, 다시말하여 B.C. 3세기초라는 혁사적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이 작품의 중요한 제한성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밖에도 시에는 전설을 시화하면서 정서적으로 심화시키지 못하여 시맛이 나지 않는 산문화된 개소들도 있다.

서사시 『동명왕편』은 이러한 제한성과 부족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의 칭건이 조선의 중세민족사와 그 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의의를 혁사적으로 전승되어오는 전설유산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히여 후세에 길이 전할수 있게 한 점에서 문학사적의의가 특별히 크다고 할수 있다.

참으로 시 『동명왕편』은 조선시가문학의 발전역사에서 서사시의 시초를 마련한 첫 작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조선민족발전의 유구한 혁사와 그 로정에 깃들어있는 투쟁과 창조의 자랑찬 위훈을 생동하고 감명깊은 서사적화폭으로 보여주며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과 민족발전의 혁사를 잘 알고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귀중한 문학유산으로 된다.

참고문헌

- 《東國李相國集》全集 卷第三 《東明王篇 序》 조선고서간행회 1913 폐지.
- 《삼국사기》상 권제13 고구려본기1 과학원출판사 1958년판, 347~367 폐지.
- 《리규보작품집》(1) 문예출판사 1990년판, 26~45 폐지.
- 《조선문학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4년판, 223~257 폐지.

삼국시기~10세기초 조선어발전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최정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 서론

기원상 공통성을 가진 조선어는 삼국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 봉건국가를 단위로 하여 갈라져 발전하였다. 삼국시기의 언어발전에 관한 문제는 조선어의 발전력을 해명하는데서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발전력을 해명하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삼국시기이후 국가들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던 조선어가 어느 때, 어떻게 통일적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과학적으로 정당하게 해명하는것도 우리 민족과 함께 민족어의 통일적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학자들사이에서 이러저러한 주장들과 견해들이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것과 함께 부정적인 내용도 있다.

그리므로 옛문헌자료들과 거기에 반영되어있는 일정한 언어자료에 기초하여 이 중요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옳게 해명하는것은 언어학계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2. 삼국서론와 발해, 후기신라시기(B.C. 3세기)~A.D. 10세기 초)의 조선어 발전과 관련된 문제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발전하여온 슬기로운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은 B.C. 3000년기초에 첫 노예소유자국가를 세우고 수도를 평양에 정하였다. 이때로부터 반만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조선인민은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단일민족으로 발전하여왔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인민은 벌써 단군조선시기에 《신지글자》를 만들어 그것으로써 글자생활을 하였다.

단군조선은 B.C. 3000년기 후반기에는 점차 강성기에 들어섰으며 그 영토를 조선반도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료하류역과 송화강상류지역에까지 확대하였다.

단군조선에서는 점차적으로 새로운 세력(후국)들이 자라나 B.C. 15세기중엽에는 부여와 구려가 B.C. 12세기에는 진국이 단군조선에서 분립되어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였다.

부여는 단군조선에서 분립된 후 부여계통의 세력 및 주민지역에 대한 통합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B.C. 2~1세기경에는 발전된 국력을 가진 나라로 되었다.

그러나 부여는 5세기중엽에 고구려에 투항하고 부여국기는 고구려에 통합되고 말았다.

B.C. 3세기경에 이르러 노예소유자국가들은 점차적으로 새로 형성된 봉건국가들에 의하여 교체되게 되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가 세워졌다.

새로운 봉건세력으로 등장한 주몽(동명왕)은 점차 정치군사적지반을 닦았으며

구려왕이 사망한 후 그 후계자로 왕위를 잇게 되었다.

주몽은 당시 장성하던 봉건세력에 의지하여 B.C. 277년에 첫 봉건국가를 세우고 그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였다.

고구려는 진국이후 주변에 있던 소국(정치세력)들을 통합하고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강대한 나라로 장성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427년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였다.

이리하여 고구려시기 조선어는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의 말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봉건국가인 백제는 진국안에서 새로 봉건세력이 자라던 B.C. 1세기 중엽에 그곳 소국들을 통합하여 세워졌다.

그리고 신라는 진한의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존재하였던 《사로》소국이 1세기 초중엽경에 자기 영역을 확대하고 세력을 강화하여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형성되게 되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기원상 공통성을 가진 조선사람들이 고대후기에는 몇개의 노예소유자국가로 형성되어 발전하였으며 그후 봉건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봉건국가들인 고구려와 백제, 신라 등이 형성발전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기원상 공통성을 가진 조선어도 봉건국가들을 단위로 하여 갈라져 발전하였다.

고구려는 삼국가운데서 제일먼저 봉건국가를 세우고 린접한 지역들과 소국들을 통합하여 발전한 나라로서 아시아의 동북부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하나로 되었다.

조선사람이 비록 노예소유자국가들인 부여와 구려, 진국으로 갈라져 발전하였고 그후에는 봉건국가들인 고구려와 백제, 신라 등의 국가를 단위로 하여 분화되어 발전하였으나 민족적단일성과 언어적공통성이 철저히 보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부의 언어학자, 역사학자들은 조선민족의 발전과 조선민족어발전의 역사적사실을 외곡하고 조선어를 《북방계》요, 《남방계》요 하

면서 별개의 언어로 가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조선어가 독자적인 언어로 발생한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 갈라져나온 언어라고 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북과 남으로 가르고 북쪽의 『부여계』를 따로 떼내는것과 같은 『리론』을 조작한것은 일본의 일부 언어학자들이다.

고노 로꾸로는 고구려어는 북부 통구스어계인 부여어계에 속한다고 하고 신라어는 남부 일본어계의 하나인 한어계에 속한다고 하였다(河野六郎 1945, 172).

조국광복후에도 내외의 일부 언어학자들이 조선어의 이른바 두개 『기원설』을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북방계』요, 『남방계』요 하면서 고구려어와 신라이가 서로 다른 언어였다고 하고있다.

어떤 학자는 『국어형성과정에 있어 북방계어와 남방계어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를 느낀다』고 하고 『…고구려에는 부여족의 언어로 통구스·만주어에 가까운것이니, 국어는 주로 남방한족의 언어가 중심이 되여 이루어진것이라 생각된다.』고 하였다(金亨奎 1962, p. 4~5).

이처럼 이 학자는 고노 로꾸로 등이 『주장』하던 말들을 그대로 모방하여 단일한 조선어를 북과 남으로 나누고 고구려족의 언어와 한족의 언어로 가르고있다. 뿐만아니라 부여족에서 나온 고구려족의 언어는 통구스·만주어에 가깝고 국어는 남방한족의 언어가 중심이 되여 이루어진것이라고 하고있다.

다른 언어학자는 『이제는 삼국시대 각국의 언어가 서로 상당한 차이를 가진, 방언들 아닌 언어들이였을것으로 상정하는 일이 일반화되었거니와, 우리가 고대국어라고 불러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신라이에 국한된다.』고 하였다(韓?文化史大系 1967, 155). 이도 본질에 있어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는 서로 다른 언어였다는것과 그리고 고대에 있어서 『국어』라는것을 신라이에 국한시켜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바로 고구려어와 백제어를 조선어의 권내에서 떼버리는것으로 된다.

이밖에도 일부 언어학자들이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조선어를 『북방계』의 언어라고 하면서 『통구스계어』와 친족관계를 가진다고 하고있다.

이처럼 일부 학자들이 무엇때문에 삼국시기 세나라에서의 언어적공통성을 부인하면서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조선어를 조선어의 권내에서 폐내려고 하며 신라에서 사용하던 조선어를 내세우려고 하는가.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조선어를 만주-통구스언어들과의 대비연구를 통한론증도 없이 이 언어들이 같은 계통의 언어라고 속단하는것은 과학성이 심히 결여된 주장인것이다.

삼국시기 세나라에서의 언어적공통성을 부인하고 『북방계』요, 『남방계』요 하면서 조선어의 발전력을 외곡하는것은 바로 고구려를 조선민족의 역사에서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조선민족어의 역사에서 폐내려는 그릇된 고의적인 『주장』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곧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합리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오늘 민족통일을 외면하고 외세의 민족분렬책동에 복무하는 『주장』인것이다.

조선사람들은 고대에 있어서나 삼국시기에 있어서나 기원상 공통성을 가진 조선어를 사용하여 왔으며 단일민족의 언어적공통성을 철저히 계속 보존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피줄과 언어를 같이하는 하나의 민족입니다.』(김일성저작집 18, 14)

한피줄을 타고난 조선사람들은 그 역사적발전과정에 여러 종족 또는 국가들로 갈라져 살아왔지만 언제나 언어적공통성을 철저히 보존한 단일민족이다.

최근 년간 우리 나라의 고고학 및 인류학분야에서는 원시시대의 유적, 유물에 대한 별굴조사사업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조선에서 사람들이 발생하여 인류역사발전의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옛날 조선땅에서 발생한 조선사람들은 점차 조선반도와 아시아동북지방의 광활한 지역에서 여러 종족들로 갈라져 살았으며 그후 노예소유자국가시기와 봉건국가시기에도 국가들을 단위로 하여 서로 분화되어 살았다.

그러나 종족들사이, 국가들사이에서는 언어적공통성이 보존되었다. 이러한 사

실에 대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옛문헌자료들과 린접국가들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그리고 언어자료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홍기문 외 1964, 9~16).

첫째로, 고구려와 부여, 동옥저, 예의 언어관계.

① 고구려

«동방사람들의 옛이야기로서 부여의 결갈래라고 한다. 언어와 기타의 모든 일 이 부여와 같은데 그 성질이나 의복은 다른데가 있다.» (《삼국지위지동이전》)¹
«동방사람들이 서로 전해오기를 부여의 결갈래라고 한다. 언어와 법속 이 많이 같다.» (《후한서》)

② 동옥저

«그 언어는 구려와 대부분이 같으나 때때로 조금씩 다르다.» (《삼국지 위지동이전》)

«언어와 음식, 거처와 의복이 구려와 같은데가 있다.» (《후한서》)

③ 예

«언어와 법속이 대체로 구려와 같으나 의복이 다른데가 있다.» (《삼국지위지동이전》)

«예는 스스로 구려와 같은 갈래라고 하는데 언어와 법속이 대체로 같다.» (《후한서》)

우에서 본 문헌기록에는 주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고 조선종족 또는 국가들의 언어관계를 비교하고 있다. 그것은 고구려가 다른 나라들보다 강대한 나라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 문헌자료를 통하여 고구려의 언어와 부여의 언어가 같았으며 고구려의 언어

¹ 《삼국지》는 3세기 중국의 진수라는 사람이 쓴 책이며 《후한서》는 5세기 중국의 범엽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다.

와 동옥저의 언어도 같았으며 《예》의 언어도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옛문헌자료를 통하여 마한, 진한, 변한 등 진국내부의 언어관계와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언어관계를 보기로 하자.

① 진한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으며 … 그 언어는 마한과 같지 않다.»(《삼국지위지동이전》)

② 변한

«변한은 진한과 뒤섞이며 살고 있으며 또한 성을 쌓고 산다. 의복이며 거처는 진한과 같고 언어와 범속도 서로 같다.»(《삼국지 위치동이전》) 그리고 《후한서》에서는 «성읍과 의복은 모두 같고 언어와 풍속은 다른데가 있다»고 하였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마한의 말과 진한의 말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변한과 진한의 말은 서로 같다고도 하고 또한 다른데가 있다고도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다》, 《다르다》는 기록을 옳게 이해하는 것이다.

변한과 진한의 언어가 《삼국지》에서는 같다고 하였는데 《후한서》에서는 다른데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다른데가 있다고 한 것은 별개의 언어였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사이에 방언적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진한과 변한은 린접해 살면서도 서로 갈라져 살았던 것만큼 그들의 언어사이에는 방언적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마한과 진한의 언어적차이도 응당 방언적차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옛문헌기록을 통하여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언어관계를 보자.

① 백제

«언어와 옷차림이 대략 고구려와 같다»(《량서》)²

② 신라

«…절하는 법이나 길을 다닐 때의 모양은 고구려와 같은데 문자가 없고 나무를 새겨 표적을 삼는다. 백제사람을 사이에 넣고서야 언어가 통하게 된다. »(《량서》)

우선 《마한》의 소국의 하나였던 백제의 언어가 고구려의 언어와 같았다는 기록을 통하여 《마한》의 언어가 고구려의 언어와 같았다는것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신라사람들은 고구려사람들과 풍습이 같았으나 백제사람을 사이에 놓고야 언어가 통하였다는 기록은 바로 신라에서 사용한 조선어는 백제에서 사용한 조선어와 같았다는것을 말하여주며 고구려에서 사용한 조선어와 신라에서 사용한 조선어사이에는 적지 않은 방언적차이가 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와 같이 옛문헌자료를 통하여 부여와 고구려, 진국의 언어의 공통성에 대한 문제가 명백히 해명되게 되었고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등 봉건국가들에서도 언어적 공통성이 보존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나라의 《삼국사기》,《삼국유사》등을 통하여서도 명백히 해명된다.

《삼국사기》권 23, 《백제본기》에 의하면 고구려의 선조인 주몽의 아들 온조가 위례성에서 백제국을 세웠다고 하였다.

백제는 경제와 문화가 빨리 발전하여 일찍부터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것이다.

신라는 진한의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진 봉건국가이다. 《삼국사기》권 제1의 《신라본기 제1》에는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속에 나뉘여 살아 여섯 마을을 만들었다»고 하고 이 여섯마을이 곧 진한의 6부로 되었다고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고조선계통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여 신라를 세웠다는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진한》,《신라》는 본래 고조선에서 이주하여 온 조선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다.

이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람들은 비록 국가를 단위로 하여 갈라져 살았지만

² 《량서》는 6세기말 7세기초에 걸쳐서 요찰(姚察)과 요극렴(姚克廉)의 부자가 쓴 책이다.

기원상 공통성을 가진 조선사람들이였으며 다같이 조선사람들이 창조하여 발전시킨 조선어를 사용하였다.

뿐만아니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리두문자로 기록되어있는 언어자료들을 통하여서도 삼국시기의 언어적공통성을 알수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있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어휘들을 비교하게 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가 공통적이였다는것이 확증된다.

삼국시기의 몇가지 어휘들을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단어	고구려	백제	신라
① 꽃, 옥, 입	串→嘉禾, 忽次: 古次,	古尸	古尸
② 산, 높은데	達→山	等良: 山	梁: 督→山 達乙→高
③ 성, 성시	忽: 城	忽: 屈→城	城
④ 내, 강, 샘	買: 米→川	買: 川	買→溟
⑤ 곱	功木: 工木	熊→公	
⑥ 수리, 봉우리	述(爾): 首泥	述→峯 (峰)	
⑦ 바다	波旦: 波豐→海豐		波珍: 阿珍: 海
⑧ 구불다, 굽다	屈火→曲城		屈阿代: 屈阿弗 →屈佛: 求佛
⑨ 바위, 고개	波衣: 巴衣→岩		巴火→…岩

이밖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공통적으로 쓰던 어휘자료들이 많다.³

우의 언어자료를 통하여서도 삼국시기 고구려와 백제, 신라에서는 기원상 공통성을 가진 조선어를 다같이 사용하였으며 언어적공통성을 보존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물론 삼국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들사이에 방언적차이가 존재하였다는

³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어휘자료의 실례는 류렬선생이 쓴 책 『세 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참조 (류렬 1983, 177~189).

것은 부인할수 없다. 방언적차이가 심하였을수 있다. 그러나 이 방언적차이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갈라놓을수 있을 정도의 차이였던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선어라는 단일한 언어의 테두리안에서의 방언의 차이였다.

이처럼 고대의 조선종족사이에서는 물론 삼국시기에도 언어적공통성이 철저히 보존되였던것이다.

3. 삼국시기이후 조선어의 통일적 발전과 기초어에 관한 문제

언어와 피줄, 문화의 공통성과 함께 지역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이다.

한 민족은 같은 지역, 한 강토에서 사는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역사발전의 이 러저러한 요인에 의하여 한 민족이 서로 갈라져 국가들을 건설하고 살기도 한다.

조선사람들도 종족들로 분화되어 살기도 하였고 노예소유자국가들을 세워 서로 갈라져 살기도 하였다.

그후에는 조선사람들과 조선어는 봉건국가들인 고구려와 백제, 신라 등 3국을 단위로 하여 갈라져 발전하였다.

여기에서는 삼국시기이후 분화되어 발전하던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이 어느때 이 루어졌으며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의 기초어로는 어느 말이 놓였는가 하는것을 중심에 놓고 고찰하기로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언어학자들은 역사적사실과는 맞지 않는 부당한 『리론』을 류포시키고있다.

어떤 언어학자는 『7세기후반에 백제와 고구려가 이어 멸망하고 신라의 판도가 이들의 고토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로써 신라어중심의 한반도의 언어적통일이 가능하게 된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신라의 성립은 한국어형성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해서 조금도 지나침이 없을것이다. 중세한국어가 신라어기반우에 성립되게 된것도 이에 말미암은것이였다.』라고 하였다(한문문화사대계 v, 1967, 55).

이것은 곧 이른바 『신라통일』이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의 계기로 되고 신라에서 사용하던 조선어가 기초에 놓이였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또한 다른 언어학자는 『…나는 오늘의 우리 말은 한족의 언어인 신라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북방계 고구려어는 약간의 자취를 남기고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김형규 1962, 280).

이 론조는 비록 표현을 달리하고있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주장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이 신라에서 사용하던 조선어를 중심으로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것이다.

이들은 무엇때문에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이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한 7세기부터라고 하며 또한 조선어의 통일적발전과 오늘의 조선어가 신라에서 사용하던 조선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가.

그것은 이들이 조선어의 발전력사고찰에서 『신라중심설』에 마취되었기 때문이다.⁴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삼국시기의 역사에서 고구려를 빼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조선력사에서 발해를 배제하려고 하고있는것이다.

발해에서 산 사람들은 고구려사람들이였고 거기에서 사용한 언어도 조선어였다.

신라는 당나라군대를 끌여들여 동족국가인 백제를 660년에, 고구려는 668년에 『정복』하였다.

신라가 7세기에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한것이 결코 조선민족의 통일과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의 계기로는 될 수 없다.

원래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려는 지향도 가지고있지 않았으며 또한 삼국을 통일할수 있는 힘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신라는 외세와 야합하여서라도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함으로써 자기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망을 가지고있었을뿐이다.

신라가 당나라세력과 야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한후 오직 대동강이남

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하여서는 신체호선생이나 문일평선생도 부정적으로 대하였다.

지역만을 차지하였고 대동강이북지역은 당나라세력이 차지하였으며 거기서 물러가지 않았다. 신라가 차지하였던 대동강이남의 옛 고구려의 령토는 그리 넓지 못하고 극히 좁은 지역이였다.

그리고 대동강이북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옛 고구려령토에 거주하던 고구려사람들은 옛땅을 되찾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벌리였다. 고구려인민들은 끝끝내 당나라세력을 몰아내고 698년에 새로운 봉건국가인 발해를 세웠다.

새로운 봉건국가 발해는 고구려사람들이 세운 나라로서 7세기말부터 10세기초에 이르는 약 200년간 존속한 강국이였다.

이리하여 7세기에 고구려, 백제가 신라에 의하여 통일된것이 아니며 두개의 주권국가인 발해와 신라가 분립되어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원상 공통성을 가진 조선어도 두개 나라에 갈라져 발전하게 되였다.

역사적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조선역사에서 발해를 떼내려고 하는것은 잘못이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한 후 대동강이남의 옛고구려지역과 백제지역에는 일정한 정도 언어적영향을 주었을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도 결코 큰것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우선 이 시기에는 지역적분산성과 지역적폐쇄성이 심한 봉건시기였던것만큼 《정복》된 지역인민들속에 신라에서 사용하던 조선어가 빨리 보급되어 영향을 미칠수 없었기때문이며 또한 이 시기에 공식적서사어로 한문을 리용한 관계로 한문으로서의 서사어는 보급될수 있었으나 신라에서 쓰던 구두어(입말)는 빨리 보급될수 없었기때문이다. 오늘과 같이 상업이 발전하고 교통운수, 통신보도망이 발전되였더라면 별문제였겠지만 그 당시의 조건에서는 구두어(입말)를 통한 신라에서 사용하던 말의 보급이란 매우 서서히 진행되였을것이며 그것도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였을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7세기말부터 10세기초에 이르는 동안 발해와 후기신라가 갈라져 있었으며 따라서 조선어도 갈라져 발전하였다.

신라에 의한 삼국의 통일과 신라에서 사용하던 조선어를 기초로 하여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이 이루어진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국가를 단위로 하여 갈라져 발전하던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이 어느때에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또 어떤 말에 기초하여 통일적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은 10세기초 고려시기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의 기초에는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말이었다.

9세기에 들어와 신라봉건국가에서는 통치배들사이에 모순이 격화되어 사회정치적혼란이 점차 심각한 지경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궁에는 옛고구려땅에 태봉국을 세웠으며 견훤은 옛백제땅에 후백제를 세웠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왕건은 태봉국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봉건국가 고려를 세웠으며 수도를 개성에 정하였다.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고구려의 옛땅을 되찾고 국토를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고려는 먼저 조선반도의 서북땅과 동북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고 밭해에서 살던 조선사람들이 수많이 이주해오게 하였다.

고려는 고구려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을뿐만아니라 남쪽에 있는 신라와 백제를 통합하기 위한 투쟁도 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935년에는 후기신라를, 936년에는 후백제를 완전히 통합하여버렸다.

10세기중엽에 후기신라와 후백제가 고려에 완전히 통합되고 국토가 통일됨으로써 동족의 나라를 통일하려던 조선민족의 지향과 요구는 고려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었다. 분렬되여 발전하던 동족의 나라의 통일은 우리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되였다.

이리하여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은 7세기중엽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10세기중엽에 이루어지게 되였다.

그리고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기초어로는 신라에서 사용하던 조선어가 놓인것이 아니라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조선어가 놓이였다. 고려는 나라를 통일하고 수도를 개성에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언어는 수도의 말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는것만큼 고려

시기의 조선어도 개성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조선에서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되게 되었으며 민족어의 전반적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였다.

개성을 중심으로 한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의 기초어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던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놓이게 되였다.

그 근거는 첫째로 개성은 고구려의 옛땅이였고 거기에는 고구려의 옛주민이 살고 있었던것만큼 개성말은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조선어의 령역에 속하여있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원래 개성은 고구려의 땅이였고 고구려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였으며 특히 5세기부터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의 말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한곳이다.

다시말하여 개성의 말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의 말의 방언형태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7세기중엽에 신라가 고구려를 《정복》한 후 개성은 신라의 통치권안에 들어가 있었던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신라에서 사용하던 말이 개성을 비롯한 중부조선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라에서 사용하던 조선어가 통일적발전의 기초어로 놓일수는 없었다.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기초어로는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놓이게 되였다는것은 둘째로 고려를 세운 통치자들의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지향과도 직접 관련되여있다.

고려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하면서 고구려의 모든 것을 계승발전시키려고 하였으며 나라의 이름도 고구려의 원래의 이름을 따서 《고려》라고 지어 불렀다.

이러한것으로 보아 고려의 통치자들이 신라에서 사용하던 말에 기초하여 민족어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모든것을 고구려의것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을 국사로 삼았던 고려가 언어도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조선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썼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⁵

고려시기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의 기초로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조선어가 놓였다는 것은 샛째로 언어자료들을 통하여서도 실증된다.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조선어는 우리 나라의 옛문헌들인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일정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고려시기의 조선어는 《계림류사》와 《조선판역어》 등에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헌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언어자료들을 대비고찰하면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조선어가 고려시기의 언어에 계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의 말

물 (勿)

술 (肖巴)

불 (火)

고려시기의 말

水曰 没(물) (계림류사)

酒曰 酣孚(수물)()

火曰 爐(불)

이밖에도 《소》를 《牛曰 燒》(계림류사)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말들이 고려시기에 계승되었다는 실례는 허다하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고려시기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의 기초어로는 주로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말이 놓였다.⁶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조선어를 기초로 하여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이 이루어졌다 고 하여 그 통일적발전에서 백제와 신라에서 사용하던 조선어를 배제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은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조선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백제와 신라에서 사용하던 조선어가 모두 참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⁵ 고려가 고구려에서 모든 것을 계승별전시켰다는 것은 《고려사》권 2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⁶ 일반적으로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서로 다른민족어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기원상 공통성을 가진 조선어라는 태두리안에서 해방시기의 봉건국기를 단위로 하여 사용하던 언어를 말한다. 그러므로 정확하는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조선어, 백제에서 사용하던 조선어, 신라에서 사용하던 조선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결론

조선어는 조선에서 조선사람들이 자기들의 의식적인 로동과정에 창조한 언어이다. 조선어의 창조자는 조선사람이며 그 고향은 조선이다.

조선어는 고대와 삼국시기, 발해와 후기신라시기에 비록 종족 또는 국가를 단위로 하여 갈라져 발전하였으나 언어적공통성이 철저히 보존됨으로써 그 단일성이 보존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어는 단일한 조선민족의 단일한 민족어로 존재한다.

조선어의 통일적발전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한 7세기에 이루어진것 아니라 10세기초 고려가 나라를 통일하고 통일국가를 세운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민족은 각이한 기원을 가진 종족 또는 민족의 혼혈집단인 것이 아니다. 옛날부터 조선땅에서 발생하여 하나의 피줄을 가지고 하나의 언어, 조선어를 사용하면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조선민족어는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여 쓰던 고유한 말이며 그것은 단일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발전풍부화된 말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2권.

《계림류사》.

《조선관역어》.

《조선전사》2, 3, 4, 5, 6, 7권 1999년, 평양.

홍기문; 김병제, 박종태 《조선어사연구》 1964년, 평양.

류렬 《세나라시기의 리두연구》 1983년, 평양.

김영황 《조선어발전역사연구》 1978년, 평양.

《조선말을 밀살하려고 책동한 일제의 죄악에 찬 역사》 1973년, 평양.

《연변대학 조선학국제토론회론문집》 1989년, 연변.

金允經《朝鮮文字及語學史》1938년, 서울.

金亨奎《國語史研究》1962년, 서울.

《韓國文化史大系》1967년, 서울.

小倉進平《朝鮮語學史》1940년, 東京.

河野六郎《朝鮮方言學試功》1945년, 京城.

大野 晋《日本語の起源》1957년, 東京.

服部四郎《日本語の系統》1959년, 東京.

조선어의 민족성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국어사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심 병 호

국어사정위원회

1. 국어사정위원회의 창립

반반년의 유구한 역사와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인 조선말을 더욱 아름답고 훌륭하게 가꾸고 활짝 꽂피우기 위한 중임을 맡은 국어사정위원회가 세상에 태여나 첫 발자국을 뗀 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마흔 번째의 년륜을 새기는 올해, 주체 93(2004)년을 맞이하였다.

국어사정위원회의 창립은 조선어의 순결성을 지키고 민족성과 주체성을 구현하는 데서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을 새 시대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꾸려나가는 데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된다.

비록 국어사정위원회가 주체 53(1964)년 4월 21일에 조직되었지만 광복직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언어문제를 국가정책의 한 구성부분으로 규정하고 조선말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체계적으로 취하여왔다.

광복된 이후 우리가 물려받은 조선말은 일제의 조선어말살정책과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일본말과 한자말, 외국말들이 뒤섞인 잡탕말이었다.

이러한 잡탕말화된 조선말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바로잡는 문제는 민족의 운명,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의 하나로 되었다.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광복된 첫 시기부터 잡탕말화된 조선말의 순결성을 되살리고 그것을 더욱 아름답고 훌륭하게 발전풍부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취하였다.

우선 우리의 말과 글을 국가활동과 언어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용어로 쓰도록 하고 학교교육과 출판보도활동에서 조선어를 쓰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사상 잔재를 뿐리빼기 위한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운동들을 통해서 일본말을 청산하고 아름다운 우리 말을 적극 쓰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사회적인 운동을 벌리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어문연구회》를 비롯한 학술단체들을 조직하여 조선어의 연구와 보급, 사전편찬사업 등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1949년 2월에는 내각결정으로 학술용 어사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어지러운 학술용어를 정리하여 우리식의 학술용어체계를 세워나가도록 하였다.

조선말교육을 강화하고 일본말잔재를 청산하며 학술용어를 정리하는 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서사생활에서 한자의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언어생활에서는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쓰고 언어규범의 요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전체 인민이 참가하는 전사회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회적분위기는 사회의 언어생활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는 국가적인 조직의 출현을 성숙된 요구로 제기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4년 1월 3일 새해의 첫 사업을 언어학자들을 만나시고 하신 담화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의 발표는 국어사정위원회의 출현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였다.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적인 로작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회의 언어생활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는 국가기구로서의 국

어사정위원회를 내용에 대한 조치로서 1964년 4월 21일 내각결정 제29호를 채택하였다.

내각결정 제29호 «조선어를 더욱 발달시키며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일데 대하여»에서는 «인민들의 언어생활을 지도통제하며 표준어, 각종용어, 맞춤법 및 기타의 언어규범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어사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서 내각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3명의 부위원장, 2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그안에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장을 책임자로 하는 상무부서가 «국어사정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하고 있다.

국어사정위원회아래에는 권위있는 학자들과 교원들, 출판보도부문의 기자, 편집원들,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여러단위에 있는 해당 부문의 전문가, 실무일꾼들로 조직된 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 부문별로 조직되어여있다.

국어사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광복후 형성된 평양문화어를 더욱 발전풍부화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며 어휘정리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말과 글의 민족성과 주체성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둘째로, 맞춤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언어규범을 심의결정하고 제정공포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규범의 요구에 맞게 말을 하고 글을 쓰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셋째로,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인 언어생활기풍이 철저히 서도록 해설선전과 지도통제사업을 조직집행한다.

국어사정위원회는 이 기본임무에 기초하여 지난 40년동안 해마다 사업방향을 세워 자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40년동안 국어사정위원회가 해온 사업과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

국어사정위원회는 지난 40년동안 어휘정리사업, 언어규범의 제정과 공포, 사회의 언어생활에 대한 지도통제 등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2.1. 어휘정리사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말로 고치고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 데 대하여》, 단행본, 4폐지)

어휘정리는 우리 말속에 침투되어있는 힘든 한자말과 불필요한 외국말 그리고 문화성이 없는 말마디들을 다듬고 정리하고 우리 말 어휘체계를 고유어에 기초한 하나의 어휘체계로 만들며 우리 말과 글의 순결성을 지키고 민족성과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1) 학술용어와 일반어를 정리하는 사업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며 언어생활을 문화성있게 하자면 우선 학술용어와 일반어들을 정리하여야 한다.

국어사정위원회는 이 사업을 과학적인 토대우에서 옮바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리해야 할 용어의 범위, 정리방향, 정리 순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그에 맞게 어휘정리 사업을 진행하였다.

① 정리해야 할 용어의 범위

첫째로, 사람들이 잘 알수 없는 힘든 한자말과 일본식한자말, 중국식한자말
둘째로, 일본말, 대용하는 고유한 우리 말이 있거나 능히 우리 말로 다듬을수 있는
외국말

셋째로, 고유한 우리 말 어근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라 하더라도 문화성이 없
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요구, 도덕교양에 부정적 영향을 주
는 문화성이 없는 말

넷째로, 고유어와 뜻이 꼭 같은, 2중체계에 있는 한자말과 외국말

② 말다듬기의 방향

첫째로, 같은 뜻의 단어로서 고유어와 한자어(외국말) 두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될수 있도록 고유어를 쓴다.

비록 한자말(외국말)이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서 비교적 널리 쓰이고 또 어느정
도 굳어진 말이라고 해도 두 단어의 뜻이 꼭 같은 경우에는 한자말을 버리고 고유
어를 쓴다.

예를 들면 《하복》과 《여름옷》, 《동복》과 《겨울옷》은 뜻이 꼭 같은 하나
의 대상에 대한 말마디이므로 《하복》, 《동복》이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비교
적 널리 쓰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여름옷》, 《겨울옷》을 쓴다.

둘째로, 일정한 한자어(외국말)을 쓰되 이미 우리 말로 굳어진것만 쓰고 그 범위
를 제한한다.

예를 들면 《국가, 학교, 조직》, 《블로크, 마이크, 센터》 등과 같이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일정하게 굳어졌고 또 그에 대용하는 적중한 고유어가 없거나 우리 말
로 다듬기 힘든 말마디만 쓰되 될수 있는 한 그 범위를 제한한다.

셋째로, 새말을 만들 때에는 어디까지나 고유한 우리 말 어근에 토대하여 만
든다.

예를 들면 뜻이라는 우리 말 말마디에 기초하여 《나무못, 타래못, 납작못…》과
같은 방법으로 새말을 만든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둘째원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금에 와서 우리 말화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굳어진 말로 된 한자말과 외국말들은 새말만들기의 수단으로 리용할 수 있다.

넷째로, 말을 다듬는데서 단어들의 뜻폭관계, 결합관계를 고려하여 잘 다듬는다. 우선 한자말과 고유어의 뜻폭관계를 잘 따져 보고 다듬어야 한다. 뜻폭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고유어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한자말도 뜻에 맞게 쓰도록 한다.

례를 들면 《지하》는 《땅속》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하투쟁》, 《지하조직》과 같이 사회정치적 용어로 쓸 때에는 《땅속》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하도 쓰도록 한다.

다음으로 말을 다듬을 때에는 단어들의 결합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심장》은 《염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선의 심장은 평양》이라고 할 때에는 《염통》이라고 쓸 수 없으므로 《심장》도 그대로 써야 한다.

③ 말다듬기의 순차와 방법

말을 다듬는데서 어떤 말부터 먼저 다듬으며 어떤 방법으로 다듬는가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수만개의 어휘를 편향 없이 잘 다듬으면서도 다듬은 말의 체계성, 통일성도 보장하고 그 사용에서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순차와 방법을 정하고 말다듬기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말다듬기를 《늘쓰는 말》부터 다듬는 것을 첫 공정으로 정하였다. 말다듬기에서 이야기되는 《늘쓰는 말》은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빈도 수가 높고 그 쓰임에서도 익숙하고 굳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말마디로서 그에 대응하는 고유어가 있으며 또 우리 말로 능히 다듬을 수 있는 한자말과 외국말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단어들은 새말을 만드는데서도 많이 쓰인다.

그런 것만큼 《늘쓰는 말》부터 다듬어야 고유어를 살릴 수 있고 그와 현관된 새말들이 생겨날 수 없게 할 수 있다.

둘째로, 말을 다듬는데서 광범한 대중의 의견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말을 다듬는 사업은 곧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바로잡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또 대중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다듬는 사업인 것만큼 광범한 대중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다듬기 사업의 본성적 요구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말다듬기 사업에서 대중의 지혜를 발동시키고 그들이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중앙과 지방의 신문, 방송, 전문분야의 잡지 등 출판보도물들에 고정적으로 《말다듬기지상토론》란을 내오고 거기에 주에 한번 이상, 한번에 15개정도의 용어들을 다듬을 대안과 함께 내보내었으며 독자들 속에서 들어온 의견도 묶어 함께 내보여 많은 사람들이 지상토론에 참가하여 좋은 의견들을 내도록 하였다.

1966년 7월부터 1978년까지의 기간 중앙과 지방의 신문들에 내보낸 지상 토론회 수는 근 25,000회정도, 독자들 속에서 들어온 편지건수는 근 11,300건이나 되었다.

다음으로 지상토론에 내놓을 수 없는 전문적인 학술용어나 산부언파용어와 같이 대중토론에 붙이기 힘든 용어들은 해당 전문분야의 일군들 협의회에서 토론하여 다듬도록 하였다.

셋째로, 대중적인 지상토론과 전문가토론을 거쳐 다듬어진 용어들은 해당 학술용어분과위원회와 일반용어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완성하고 국어사전위원회에 제기하여 심의 결정한 다음 사회에 내보내었다.

넷째로, 다듬은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다듬은 말이 정해지는데 따라 책으로 묶어 사회에 내보내여 출판보도부문과 학교교육부문, 국가기관, 기업소들에서 적극 받아들여 쓰도록 하였다.

다듬은 말을 책으로 묶어 사회에 내보낸 정형은 다음과 같다.

《다듬은 말(표준할 초고) 1》(1969년 어휘수 약 4,270개)

《다듬은 말(표준할 초고) 2》(1971년, 어휘수 약 8,600개)

『다듬은 말(표준할 초고) 3』(1973년, 어휘수 약 10,640개)

『다듬은 말 뮤음』(1978년, 어휘수 약 49,450개)¹

국어사정위원회는 『다듬은 말 뮤음』을 사회에 내보내여 모든 기관, 기업소, 단위들과 출판보도부문, 과학, 교육부문 등에서 널리 쓰도록 하는 한편 다듬은 말을 쓰는 과정에 제기되는 의견들은 대중속에 들어가료해하는 한편 출판보도물에 대한 후열, 교육기관에 나가료해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장악하였다. 근 10년간의 사용 과정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하여 국어사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1987년에 근 25,000개의 어휘를 뮤어 『다듬은 말』이라는 책제목을 달아 사회에 내보내였다. 『다듬은 말』은 근 15년간 사회에서 표준자료집으로 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 특히 소학교 1학년 교육부터 다듬은 말을 배워주기 위하여 보통교육부문 교과서들을 다시 집필하는 사업과 모든 교수활동을 다듬은 말로 진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신문, 잡지, 방송, 문학예술작품, 국가문건 등 모든 글들에서 다듬은 말을 널리 받아들여 쓰도록 다듬은 말에 대한 보급과 함께 정확히 쓰도록 통제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러한 순차와 방법으로 말다듬기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다듬은 말의 과학성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오늘 언어생활에서 다듬은 말이 적극적으로 쓰이여 사회의 언어생활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진행되고 있다.

(2) 품종이름을 우리식으로 바로잡기 위한 사업

품종이름은 학술용어에서 특수한 자리를 차지하며 또 그 수는 다른 용어들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언어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크다.

그것은 과일이름, 농작물의 품종이름, 집짐승의 이름들은 사람들의 생활과 직접

¹ 『다듬은 말(표준할 초고) 1, 2, 3』의 용어와 새로 다듬은 용어를 합하여 만든것임.

적으로 현관되어 있어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품종이름이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바로잡는데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한 것만큼 우리는 광복직후부터 품종이름을 우리 식으로 바로잡는데 관심을 돌리고 여기에 힘을 놓았다.

특히 광복 이후에도 적지 않은 품종이름들이 일본말, 일본식 한자말 그대로 쓰이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구태의연히 낡은 방식으로 품종이름을 짓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어사정위원회는 품종이름을 우리 식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첫째로, 현재 있는 품종이 어느 나라의 품종이며 어느 지역에서 심고 있는가를 따져보고 외국의 것이라면 그 나라에서 부르는대로 하되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식으로 이름을 고치며

둘째로, 외국에서 들어온 원종과 교잡하여 생긴 새 품종은 우리 식으로 이름을 달며 외국의 원종은 그 나라에서 부르는대로 부르도록 하며

셋째로, 이름을 다는데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품종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 따라 이름을 달거나 또는 품종의 크기, 색갈, 생산시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맞는 이름을 달도록 하며

넷째로, 한계령에 속하는 품종인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현관관계를 고려하여 번호나 《을, 늦》과 같은 표식을 붙이도록 하며

다섯째로, 해당한 품종을 발명했거나 생산해낸 과학자, 기술자의 이름을 달아주 는 식으로 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먼저 과일 품종과 벼 품종 가운데서 일본식 한자말로 된 품종이름을 기본으로 고치면서도 일부 외국 말로 된 품종이름들도 바로잡았다. 우리 식으로 고친 품종이름 가운데서 사과, 배, 벼 품종의 일부를 소개한다.

◎ 고친 사과이름

No.	본래이름	고친이름	No.	본래이름	고친이름
1	국광	북청	10	횡과	누른칠월

2	홍옥	황주	11	도일	붉은팔월
3	죽	송화	12	데리샤스	허천
4	육	구월	13	골덴데리샤스	금강
5	인도	덕성	14	리차드데리샤스	허천2호
6	왜금	단풍	15	스타킹데리샤스	허천3호
7	조생적	노을	16	솔드웰데리샤스	허천4호
8	조생육	팔월	17	스테만와이사프	향사과
9	홍괴	붉은칠월			

◎ 고친 배이름

No.	본래이름	고친이름	No.	본래이름	고친이름
1	조생적	청단	8	국수	물참배
2	만삼길	해주	9	키파	붉은병배
3	토자금	신의주	10	도일	붉은배
4	장십량	길주	11	쓰리	박배
5	팔운	철산	12	빠뜨렛트	병배
6	사백목	벽성	13	부레인코스	올병배
7	진유	누른배	14	로렌스	꼴배

◎ 고친 벼풀종이름

No.	본래이름	고친이름	No.	본래이름	고친이름
1	증생온방주	평남종	6	원양2호	함복2호
2	록우132호	강원1호	7	진경조생	함복3호
3	록우137호	강원2호	8	소전대7호	함복4호
4	애국20호	제도1호	9	로인도	양강1호
5	대야증도	함복1호	10	적표	평양13호

우리는 과일이름과 벼풀종의 이름을 다듬는 과정에 거둔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다른 품종의 이름들도 우리 식으로 고쳤다.

◎ 동식물의 이름을 문화성있게 고쳐 짓기 위한 사업

우리는 품종이름을 우리 식대로 민족적특성이 나게 고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동식물의 이름들에서 문화성이 없는 이름들도 정리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식물의 이름 가운데는 동물의 이름인지 식물의 이름인지 그 구분이 명백하지 못한 이름들이 적지 않았으며 일부 동식물의 이름들에는 이름을 지은 사람들의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의 지배로 하여 문화성이 없이 땅탕 지은 이름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도 좋지 않았으며 더욱 기는 언어생활을 문화적으로 해나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로부터 국어사정위원회는 동식물학자들과의 협력 밑에 동식물의 이름을 전반적으로 장악하여 다듬을 대상들을 선정하고 문화적으로 다듬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동식물의 이름을 다듬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첫째로, 비록 우리 말로 된 이름이라 하더라도 문화성이 없고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이름들은 고치는 원칙

둘째로, 낡은 시대의 사회정치적관계를 반영한 이름들은 새 시대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고치는 원칙

셋째로, 지금 붙인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도 동식물의 구분이 명백하지 못하게 붙인 이름들은 이름 뒤에 《풀, 꽃, 나무》 등과 같은 단어를 덧붙이여 동식물의 이름답게 만드는 원칙을 세웠다.

몇 가지 동식물의 이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성이 없는 동식물의 이름을 고친 것

— 동물이름

물송장 → 물노린재
챙개비 → 땡기도요
할미섭조개 → 누른줄섭조개
현데조개 → 편조개

— 식물이름

거지덩굴 → 풀머루덩굴
개똥쑥 → 잔잎쑥
노루오줌 → 노루풀
말오줌대 → 나도딱총나무
쥐오줌풀 → 바구니나물
애기똥풀 → 젖풀

◎ 식물이름답지 않게 된것을 바로잡은 이름

기생꽃 → 애기참꽃	광대수염 → 꽃수염
사위질빵 → 모란풀	처녀바디 → 좀바다나물
바보여뀌 → 점박이여뀌	부처손 → 주먹풀
까마귀배개 → 헛갈매나무	메추리밥 → 메추리밥풀
쥐방울 → 방울풀	깽깽이풀 → 산련풀
여우구슬 → 구슬꽃	펭의다리 → 가락풀
범꼬리 → 범꼬리풀	

(3) 나라이름과 수도이름의 표기를 바로잡는 사업

다른 나라의 국호와 수도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외국말표기를 정확히 하는 범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국제적관계를 유지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 사업을 어휘정리사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정하고 다른 나라의 국호와 수도이름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국호를 중국식 한자 말로 쓴 것을 조선식 한자로 발음하여 표기하거나 외국 말로 표기하는 경우에도 그 나라에서 부르는 대로 표기하지 않고 일본식, 영어식 등으로 표기하여 부르는 이름이 적지 않았다.

이로부터 국어사정위원회는 세계의 나라 이름과 수도 이름을 전반적으로 조사장 악하고 정리 대상을 선정한 다음 단계별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국호와 수도 이름을 바로 잡는데서 내세운 원칙은?

첫째로, 그 나라에서 부르거나 발음하는 대로 적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로, 그 나라의 특수성으로 하여 그 나라 말대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 무대에서 공통적으로 부르고 표기하는 관례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며

셋째로, 우리 말로 다른 나라의 국호를 랙자로 쓰는 경우에도 정식 국호는 그 나라에서 부르고 발음하는 대로 표기하는 원칙을 세웠다.

다른 나라의 국호와 수도의 이름을 바로 잡는 사업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1965년 3월에 47개의 다른 나라 국호를 바로 잡았다.

이때 바로 잡은 다른 나라의 국호는 다음과 같다.

No.	본래 이름	표기를 바로 잡은 이름
1	월남	웰남
2	동고	몽골
3	비률빈	필리핀
4.	파란	펠스까
5	포도아	뽀르뚜갈
6	서반아	에스빠냐
7	서서	스위스
8	이태리	이탈리아
9	서전	스웨리예
10	분란	핀란드

11	불란서	프랑스
12	호주	오스트랄리아
13	상부볼타	상부볼따
14	씨에라레오네	시에라레온
15	소말리	소말리아
16	나이제르	니제르
17	베네주엘라	베네수엘라
18	파나마	파나마
19	칠리	칠레
20	파테말라	파메밀라
21	씨리아	수리아
22	싸이프러스	끼쁘로스
23	루마니아	로드니야
24	체스코슬로바키야	체스코슬로벤스코
25	불가리아	벨가리아
26	덴마크	단마르크
27	벨기	벨지끄
28	아이슬랜드	이슬란드
29	콩고	꽁고
30	알제리아	알제리
31	카메룬	까메룬
32	기니아	기네
33	다호메	다오메
34	튜니샤	튜니지
35	모로코	마로코
36	가본	가봉
37	마우리타니아	모리따니
38	토고	또고
39	파리파이	빠라파이
40	니카라과	니까라과
41	멕시코	메히고

42	아르젠텐	아르헨티나
43	혼두라스	온두라스
44	코스타리카	코스따리까
45	에쿠아도르	에파도르
46	페루	페루
47	콜롬비아	콜롬비아

둘째단계는 1971년 12월에 9개 나라의 국호표기를 바로잡았다.

바로잡은 다른 나라의 국호는 다음과 같다.

No.	본래이름	고친이름
1	모나코	모나코
2	바티칸	바띠까노
3	밀타	밀따
4	하이티	아이띠
5	도미니카	도미니까
6	자마이카	제메이커
7	기아나	기이아나
8	바르바도스	바베이도즈
9	트리니다드토바고	트리니대드 토바고

두차례에 걸쳐 56개의 다른 나라의 국호와 52개의 수도이름의 표기를 바로잡았다. 그 이후 근 30년동안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식민주의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독립을 쟁취하고 나라이름을 고쳤거나 독립후 자기의 민족적요구에 맞게 나라이름을 고친 이름들은 그때마다 국어사정위원회에서는 해당 나라에서 고친 이름대로 그 나라의 국호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셋째단계는 1998년 9월에 다시 일부 나라들의 국호의 표기를 바로잡았다. 이때 국호표기를 바로잡은 나라는 다음과 같다.

No.	본래이름	표기를 바로잡은 이름	한국어 표기
1	인도	인디아	India
2	토이기	뛰르끼예	Jurjey
3	오지리	오스트리아	Austria
4	회랍	그리스	Greece
5	독일	도이칠란드	Deutschland
6	화란	네데를란드	Nederland
7	애급	에짚트	Egypt
8	웽그리아	마쟈르	Mazhar
9	체르노고리아	չեռնոգրա	Chernogora
10	호르빠찌아	흐르바쯔까	Horbatschka

이때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이름은 정식국호가 아니고 약자이며 또 우리 인민의 역사와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이름이므로 정식국호를 쓰지 않을 때에는 《중국, 미국, 영국, 일본》이라고 쓰도록 하였다.

이렇듯 크게 세번에 걸쳐 그때까지 규범화되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국호를 그 나라에서 부르거나 발음하는대로 표기를 바로잡음으로써 국호표기에서 통일성과 규범성을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국호표기를 바로잡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한자말로 표기하였던 《구라파, 아세아, 대양주, 미주》 등도 《유럽, 아시아, 오세안주, 아메리카주》 등으로 국제적으로 부르는대로 고쳤다.

(4) 새말을 만들어내며 방언에서 좋은 말을 찾아쓰기 위한 사업

우리 말 어휘구성을 고유어어휘들로 더욱 풍부히 하고 사람들이 고유한 우리 말로 언어생활을 더 잘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말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국어사정위원회는 이 사업도 어휘정리사업의 한 고리로 내세우고 새말을 만들고 방언에서 좋은 말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말을 만들기 위한 사업

국어사정위원회는 새말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우선 새말을 철저히 아름답고 고유한 우리 말 어근에 토대하여 만드는것이며

다음으로 새말을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만드는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상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그가 갖고있는 특성, 형태, 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중의 마음에 들고 언어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쓰일수 있는 새말을 만들기 위해 힘쳤다. 우리는 하나의 새말을 만들어도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협의하고 토론도 하였으며 일정한 기간 언어실천에서 써보는 과정을 거쳐 대중이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되었을 때 문화어로 인정하고 전국에 보급하여 널리 쓰도록 하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쓰이고있는 『바다나물, 단고기, 단묵, 보라콩, 물보라, 생벽돌, 풀김치, 고기떡, 옥쌀, 풍년비료, 흙보산비료, 살짝공……』같은 말들은 최근년간 우리 인민들이 만들어낸 새말들중의 하나이다. 이런 말들은 오늘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고있다.

② 방언에서 좋은 말을 찾아내어 쓰기 위한 사업

방언(다른말로 사투리라고도 한다)은 우리 말 어휘구성을 풍부히 하고 그의 민족적특성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재료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방언이 비록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속에서만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인민들의 언어감정과 요구, 그리고 생활적인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것만큼 방언가운데서 좋은 말은 능히 문화어로 쓸수 있다.

또한 광복후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언어정책에 의하여 방언의 수평화과정이 진행되었고 또 지역간의 접촉과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지금에 와서는 한 지역의 방언이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쓰이고있다. 이것은 곧 방언에서 좋은 말을 찾아내어 전인민적어휘부류에 넣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다.

국어사정위원회는 이러한 객관적 조건을 충분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언어학자들과의 긴밀한 협계밑에 국가의 직접적인 관심속에서 전국적으로 방언을 조사하고 그 가운데서 문화어로 쓸수 있는 어휘들을 찾아내어 국어사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문화어로 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문화어속에는 지역적인 방언가운데서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와 어휘구성을 풍부히 하고 있다.

방언가운데서 문화어로 되여 오늘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들을 몇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굴통 [명] (평남도, 남포시, 순천군) 굴뚝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2. 두통치마 [명] (자강도, 평남도) 녀자들이 집에서 막입는 통치마의 한가지.
3. 드살 [명] (함북도, 함남도)
 - ① «남에게 녹녹히 굽혀들거나 주어진 환경에 맥없이 순종하지 않고 남을 휘여잡으며 드 게 구는것»을 이르는 말.
 - ② 남이 마음놓고 있지 못하게 우락부락하며 못살게 구는것 또는 그런 성질.
4. 마라소 [명] (강원도, 평남도) 두마리의 소를 결여 밭을 갈 때 연장이 도는 한쪽을 담당하는 소. 힘이 약한 소가 마라소로 된다.
5. 무라지 [명] (평안도 일대)《민속》시집간 딸이 사흘만에 집에 돌아올 때 가지고 오는 음식물
6. 멜지 [명] (평안도, 함북도 회령) 집을 실은 수레가 경사지에서 내리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의 목에 들려대는 띠.
7. 벼려질 [명] (함경도)
 - ① 쓸데없는 일판을 벌려놓고 품을 들어는 것
 - ② (어떤) 일판을 벌려놓고 치닥거리하는 것.
8. 비제비 [명] (평안도, 자강도) 국수같은것을 누를 때 분통에서 공이의 뒤로 반죽이 빠져나오는 것
9. 채 [명] (평안도, 함경도)

① 옳고 그른 것을 무릎 맞춤하여 가르는 것

② 서로 물고 받는 것을 계신하여 회계하는 것

10. 웨나소[명](평남도, 강원도) 두마리의 소가 함께 밭을 갈 때 왼쪽의 소 힘이 더
센 소를 왼쪽에 세운다

11. 매시시하다 [형] (함경도) 온몸에 힘이 없어 나른하다.

12. 혹하다 [동] (평안도)

① 반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하다.

② 뜻시 반하거나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13. 오돌차다 [형] (평남도) 허수한데가 없이 단단하고 여무지다.

14. 애리애리하다 [형] (함경도) (사람의 몸이나 식물 같은 것이) 귀엽고 연약하다.

이밖에도 《바리깨, 살통, 홀라타거리다, 오그랑, 우들렁거리다, 원금……》 같은
단어들도 있다.

2.2. 언어규범의 제정과 그 사용

언어규범은 사람과 사회의 언어생활을 규범화하는데서 기본요소의 하나이다.

언어생활을 규범화한다는 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언어규범의 요구대로 말을 하고
글을 쓰며 그에 기초하여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언어생활을 언어규범의 요구대로 말을 하고 글을 써야 사람들 사이의
사상감정과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진술된 내용에 대한 이해, 사고
와 행동에서 일치성을 보장할 수 있다.

언어생활을 언어규범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자면 우리 말의 특성과 요구를 정확하
게 담고 있으며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언어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국어사전위원회는 조직된 이후 첫 사업으로서 서사생활과 입
말생활에 필요한 맞춤법, 발음법, 문장부호법, 띄여쓰기를 비롯한 언어규범을 제정
하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1966년에 맞춤법, 문화어발음법, 문장부호법, 띄여쓰기규정을 제정공포하여 언어생활에서 쓰도록 하였으며 근 20년간 사용과정을 거쳐 그 기간언어규범사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하여 1988년에 수정보충한 언어규범을 내보냈으며 2001년에는 51개의 어종으로 된 『외국말적기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쓰고있는 언어규범기운데서 맞춤법, 문장부호법, 문화어발음법은 1988년규범이고 띄여쓰기규정은 2003년에 새로 만든것이며 외국말적기법은 2001년에 나온것이다.

우리는 언어규범을 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에 준하였다.

첫째로,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는 원칙이다. 즉 우리 민족어의 특징과 요구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선사람의 언어감정과 지향에 맞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로, 과학성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 원칙이다.

즉 우리 민족어의 구조적특성, 문법적관계, 발음적특성, 단어들의 맞물림관계 등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셋째로, 인민대중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만드는 원칙이다.

즉 모든 조선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쉽게 받아들이며 그 사용에서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반원칙에 준하여 매개 언어규범이 가지고있는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제정기준을 세워 작성하였다

매언어규범에 관통하고있는 원칙은 해당규범의 총칙에 반영시켜 법화하였다.

지면상 관계로 매개 규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할수 없는 조건에서 개별적 규범에서 총칙부분만 간단히 서술하고 그밖에 달라진 내용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① 맞춤법

맞춤법은 총칙과 7개의 장, 27개의 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총칙에서는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준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말 맞춤법이 형태주의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 고 있음을 뚜렷이 밝히었으며 일부 경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언어관습을 고려하여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도 허용한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주었다.

맞춤법에서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모에서 《ㅇ》은 반침에서만 자기의 음가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ㅇ》을 읽을 때 《으》로 읽지 않고 《옹》이라고 읽도록 한 것이다.

둘째로, 《제4항. 합친말의 적기》에서 《제15항. 합친말을 이률적에 〈ㅂ〉이 덧나거나 순한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여나는 것은 덧나고 바뀌여나는대로 적는다》에서 규정한 내용에 준 실례가운데서 《수캐, 수퇘지, 살코기》를 삭제한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말 공부를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개, 돼지》와 같은 단어를 배워주면서도 이 단어들이 《암, 수》와 결합되어 쓰일 때에는 발음하는대로 《수캐, 암탉, 수탉》이라고 쓰도록 교육하였다. 이로부터 학생들 속에서는 《개, 돼지, 닭..》과 《수캐, 수퇘지, 수탉...》이 서로 다른 동물처럼 이해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또 《닭》과 《탉》, 《개》와 《캐》, 《돼지》와 《퇘지》를 어느 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철자법상의 오유도 생겨났다.

국어사정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적인 언어실태에 기초하여 동식물, 기타 대상의 이름에 《암, 수》가 붙었을 때 그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없애고 원형대로 적도록 하였다.

이에 준해서 《살코기》도 《살고기》로 적도록 하였다.

② 문장부호법

문장부호법은 총칙과 20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현대조선말의 문장부호는 문장들, 문장안의 각 단위들을 뜻과 기능에 따라 갈라주기 위하여 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문장부호가 수학을 비롯한 다른 과학기술분야에서 쓰고 있는 부호일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문장들, 문장안의 각 단위들을 뜻과 기능에 따라 갈라주는 서사수단의 하나로 리용되는 것

만 문장부호로 된다는 것을 정식화했다.

③ 문화어발음법

문화어발음법은 총칙과 10개의 장, 31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조선말발음법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팔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준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발음법이 철두철미 광복이후 우리나라에 형성된 평양문화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④ 띄여쓰기규정

우리 글에서 띄여쓰기와 붙여쓰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똑바로 리해하고 실천에 옮기며 글을 순탄하게 내용에 맞게 읽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부터 사회는 띄여쓰기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누구나 납득될 수 있게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띄여쓰기규정이 안고 있는 이러한 특성과 사회적요구로 하여 국어사정위원회가 나온 후 띄여쓰기규정만은 세번씩이나 수정보충하고 개정하여 왔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띄여쓰기규정은 주체92(2003)년에 나온 규정이다.

새 규정의 총칙에는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을 읽고 리해하기 쉽게 일부 경우는 붙여쓴다.»라고 규정하여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여쓰면서도 문장속에서 단어들이 놓이는 자리와 다른 단어와의 의미·론리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경우에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품사가 다른 단어라도 붙여쓸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새 띄여쓰기규정의 조항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항. 토뒤의 단어나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는 띄여쓴다.

2항. 하나의 대상이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마다는 토가 끼이었거나 품사가

달라도 붙여쓴다.

3항.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쓰되 마디를 이루면서 잇달리는 것은 매 마디마다 띠여쓴다.

4항. 수사는 《백, 천, 만, 억, 조》 단위로 띠여쓰며 수사 뒤에 오는 단위명사와 일부 단위는 띠여쓴다.

5항. 불완전명사(단위명사포함)는 앞단어에 붙여쓰되 그 뒤에 오는 단어는 띠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항. 단어들 사이의 맞물림관계를 고려하여 뜻을 이해하는데 쉽게 띠여쓰기를 할 수 있다.

⑤ 외국말적기법

«외국말적기법»은 다른 나라의 말을 우리 글자로 표기하는데서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제한 서사규범의 하나이다.

이 규범의 작성에서는 어음구조가 같지 않는 다른 나라의 말을 우리 글자로 적는 조건에서 리론·실천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된다.

이로부터 국어사정위원회는 «외국말적기법»을 만들면서 이 적기법에 관통하는 기본원칙과 이에 복종하면서도 그 실행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주는 보조원칙을 설정하였다.

기본원칙은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고 부르는대로 우리 글자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한 보조원칙은 과학성, 주체성과 민족성, 편리성이다.

과학성의 원칙은 다른 나라의 말의 어음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우리 말과 가장 가까운 말소리끼리 대응시켜 적으며 그 나라의 음운을 일정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의 원칙은 다른 나라의 말을 최대한 정확하게 우리 말로 옮기면서도 우리 말의 민족적 특성을 살린다는 것이다.

편리성의 원칙은 다른 나라의 말을 우리 글자로 옮기는데서 우리 글자로 옮길 수 없는 것은 피하면서도 그 나라의 발음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현재 있는 우리 글

자로 잘 표현하여 표기에서 불편이 없도록 편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원칙과 보조원칙에 준하여 1958년에는 4개의 어종, 1969년에는 8개의 어종, 1982년에는 25개의 어종, 2001년에는 51개의 어종으로 된 『외국말적기법』(2003년)을 만들어 세상에 공포하였다.

『외국말적기법』에 있는 어종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말적기법	27	페르سي말적기법
2	남아시아말들의 적기법	28	헤브레이말적기법
3	노르게말적기법	29	끼룬디말적기법
4	네데를란드말적기법	30	뛰르끼말적기법
5	단마르크말적기법	31	<u>뽀르뚜갈말적기법</u>
6	도이취말적기법	32	뿔스까말적기법
7	라틴말적기법	33	뿌슈뚜말적기법
8	라뜨비야말적기법	34	쏘말리말적기법
9	라오말적기법	35	쑤오미말적기법
10	로므니아말적기법	36	아랍말적기법
11	로씨야말적기법	37	아프리카말들의 적기법(1)
12	리에뚜바말적기법	38	아프리카말들의 적기법(2)
13	마다가스까르말적기법	39	아프리칸말적기법
14	마자르말적기법	40	알바니아말적기법
15	말따말적기법	41	암하라말적기법
16	얀마말적기법	42	영어적기법
17	몽골말적기법	43	오세안주말들의 적기법
18	벌가리아말적기법	44	우르두말적기법
19	스로보흐르바뜨말적기법	45	이슬란드말적기법
20	스웨리예말적기법	46	이탈리아말적기법
21	슬로벤스꼬말적기법	47	인도네시아말적기법
22	중국말적기법	48	일본말적기법
23	체스꼬말적기법	49	에스띠말적기법

24	크메르말적기법	50	에스빠њ말적기법
25	타이말적기법	51	웰남말적기법
26	프랑스말적기법		

2.3. 사회의 언어생활에 대한 지도통제사업

국어사정위원회는 어휘정리사업, 언어규범화사업과 함께 사회의 언어생활에 대한 지도통제사업도 기본임무의 하나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사회의 언어생활에 대한 지도통제는 우선 모든 사람들이 쉬운말을 쓰고 언어생활에서 언어규범의 요구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는데 있으며 다음으로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이고 비민족적인 어휘들과 표현들을 쓰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쉬운말을 쓰고 언어생활에서 문화성과 규범성을 보장하는 사업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 때에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것은 이사업이 사람들의 언어생활과 관련되는 문제이고 그들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회의 언어생활에 대한 지도통제사업을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의 의사상을 발동하고 마음을 움직여 그들자신이 수행하도록 하고 전 사회가 움직여도록 하기 위한 해설선전과 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보도물을 통해서, 강연과 해설담화, 문학예술작품 등을 통해서 쉬운말, 쉬운글을 쓰고 언어생활에서 문화성과 규범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 그 방도 등을 해설선전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와 교육기관들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회정치활동을 이용하여 군중속에 들어가 해설선전사업도 활발히 벌렸다.

해설선전과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꾸준하게,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람들은 아름다운 우리 말을 쓰고 쉬운말로 언어생활을 하는 사람이 유식하고 문명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똑바로 세워지게 되었고 말을 문화성 있고 레절있게 하는 고상한 품성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사회의 언어생활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국가의 공식문건과 출판보도물, 문학예술작품의 글들, 직관선전물의 글, 거리의 간판과 기타 글들을 쉬운말로 언어규범의 요구에 맞게 정확히 쓰는것이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 언어생활기풍을 세워나가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데로부터 이에 대한 통제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각급 기관들에 나가 공식문건들을 후열하고 나타난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었으며 출판보도물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글들을 후열하는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모든 글들은 쉬우면서도 언어규범의 요구가 보장된 글로 되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상품이름과 상표의 글들이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적지않은 작용을 한다는데로부터 상품이름을 아름다운 우리 말로 지으며 상표를 문화성과 규범성이 보장된 우리 식의 상표로 되게끔 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상업편의봉사기관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는 상품이름을 아름답고 누구나 다 쉽게 알수 있는 우리 말로 써붙이고 있으며 상표의 글도 우리 식으로 되고있다.

사회의 언어생활에 대한 지도통제는 항시적으로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것 만큼 우리는 오늘도 이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3. 결론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볼 때 해놓은 일보다도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지금은 21세기의 초엽이다. 새 세기의 초엽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 민족성을 짓밟고 말살하기 위한 광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으며 이 광풍은 언어생활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오늘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다른 나라 말들이 고유한 민족어를 밀어내기 위해 언어생활속에 침투하려고 모자름을 쓰고 있다. 또한 자기의 민족어보다 남의 나라 말을 쓰기 좋아하고 그것을 마구 끌어들이기 위해 날뛰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기의 민족어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은 새 세기에 들어 와서도 나라와 민족의 앞에 나선 사활적인 과업으로 된다.

우리는 새 세기에도 자기가 맡은 임무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대를 이어가며 물려준 우리의 말과 글의 순결성을 지키고 민족성과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을 다할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조선말이 영원히 7천 만겨레의 언어로 찬연히 빛나게 할것이다.

참고문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6)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3년판.
- 《조선말규법집》사회과학원출판사, 1966년판.
- 《외국말적기법》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년판.
- 《외국말적기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2001년판.
- 《다듬은말 묶음》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년판.

17~19세기 조선말의 모음조화변화에 대한 고찰

김 인 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 문제의 제기

시대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민족어의 모든 요소들이 변화되는 과정에 말소리 현상들도 변화된다.

조선말에서는 모음조화현상이 다른 나라 말들과도 구별되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일찍부터 내외조선어전문가들의 관심사로 되여왔다. 광복전 1930년 대부터 이미 이 문제가론의 되여왔으며 광복후에는 여러모로 더욱 깊이있게 연구 되여오고 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여러편의 론문들이 발표되었고 비교적 깊이있고 상세하게 분석한 론문들도 나왔다. 대표적인 론문들만을 들어도 다음과 같다.

『조선말의 모음조화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1) 『조선어학』

1961년 2호, 류렬

『조선말의 모음조화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2) 『조선어학』

1961년 3호, 류렬

공화국남반부에서도 여러편의 논문들이 나왔으며 많은 자료들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세하게 쓴 논문들도 나왔다.

『모음조화연구』 『진단학보』 16호 1947년 李崇寧

『모음조화연구』 논문집 『음운론연구』 1948년

특히 광복후에는 조선어의 모음조화가 일본의 언어학자들속에서도 연구되고 있는것이 주목을 끈다.

『중세 조선어에서의 주요모음조화』(영문『A Note on Vowel Harmony In Middle Korean』) 早田輝洋 『언어연구』 제68호, 1975년

『중기조선어에 있어서의 모음조화의 혼란에 대하여』 門脇誠一, 『조선화 보』 102집, 1982년

지금까지 나온 이러한 논문들은 주로 15~16세기의 자료들을 위주로 하여 그 성격과 류형, 동요, 파괴의 일부 측면 등 국한된 시기의 모음조화와 그 변화의 일부 특성을만을 보아왔다.

필자는 일찌기 조선말의 모음조화는 파괴되고 변화되는데서 특수한 법칙이 있었다는것을 밝혀내려 하였다. 그 내용을 먼저 1988년 5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관계전문학자들의 국제과학토론회에서 모음조화파괴에서 나타나는 음성모음모음되기현상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¹

이번의 이 논문은 1988년에 발표한 논문의 속편이라고 볼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5~16세기 이후 18~19세기동안에 조선말의 모음조화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았다.

¹ 『조선관계전문학자들의 국제관계과학토론회 논문집』 (언어학분과) 사회과학출판사, 1989년, 229~237페이지.

주로는 모음조화가 파괴된것과 보존된것, 모음들의 결합관계만 변화된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았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15~16세기이후에 모음조화가 파괴되었다고 하여온 일반적인 결론을 검토하고 모음조화변화의 실태들을 밝히려하였다.

17~19세기동안의 모음조화변화와 관련된 본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모음조화개념과 그 계렬들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간단히 소개한다.

조선말의 모음조화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모임인 밝은모음(양성모음)과 상대적으로 높은 모임인 어두운모음(음성모음)들이 상대되는 계렬을 이루고 중성모음이 중립계렬을 이루면서 밝은모음은 밝은모음과 중성모음과만 어울리고 어두운모음을 배척하며 어두운모음은 어두운모음과 중성모음과만 어울리고 밝은모음을 배척하며 중성모음은 중성모음과 밝은모음, 어두운모음들과 다 어울리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앞소리마디에 오는 모음이 밝은모음인가, 어두운모음인가, 중성모음인가 하는데 따라서 다음의 소리마디에 같거나 비슷한 성격의 모음들이 오는 소리마디배렬에서의 특수한 닮기현상이다. 조선말의 모음조화는 주로 상대적인 낮은모음과 높은모음의 대립에 기초하여 조화를 한다는 측면에 주로 상대적인 앞모음과 뒤모음의 대립에 기초하는 조화를 이루는 뛰르끼예말, 핀란드말, 몽골말 등과 구분된다.

조화되는 모음들의 계렬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밝은 모음: ㄱ, ㅋ, ㅌ, ㅍ, ㄴ, ㄷ, ㅂ, ㅁ, ㅅ, ㅈ, ㅊ, ㅎ

어두운 모음: ㅡ, ㅜ, ㅓ, ㅏ, ㅗ, ㅓ, ㅓ, ㅗ, ㅓ, ㅓ, ㅓ, ㅓ

중성 모음: ㅣ

«ㅡ»는 광복전부터 중성모음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필자는 중세조선어에서의 «ㅡ»는 어두운모음이였다고 본다.

반모음 <i>[i]</i>와 결합한 겹모음들과 변모음적인 홀모음(앞모음화된 앞모음)들은 해당한 홀모음들과 같은 성격의 모음들이다.

론문에서는 변칙성을 피하기 위하여 기본모음 <ㄱ, ㅋ, ㅌ/ㅡ, ㅜ, ㅓ/ㅣ>들을

가진 단어들만을 대상으로 고찰한다.

례문은 2~3소리마디의 단일한 말뿌리의 고유말들만을 들며 본중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의 방법도 적용한다.

2. 모음조화변화실태

15세기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조선말에서는 모음조화현상이 거의 규칙적으로 진행되었다. 말뿌리(어근)와 말뿌리, 말뿌리와 뒤붙이(접미사)들사이에서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말줄기와 토, 말줄기(어간)내부, 말줄기와 결합모음사이에 있어서는 매우 규칙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던것이 모음조화가 파괴되거나 결합류형이 달라지는것과 같은 변화들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뒤 17~19세기동안에는 모음조화가 아주 많이 변화되었다.²

모음조화의 파괴는 조화를 이루던 모음들의 결합형태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음들의 결합형태들로 바뀌는 현상이다. 예컨대 《밝+밝》 → 《밝+어》, 《어+어》 → 《어+밝》의 결합형태교체는 모음조화의 파괴이다.

모음조화의 변화는 모음의 결합형태들이 모음조화를 이루든지 이루지 않든지 관계없이 바뀌는 현상이다. 예컨대 《어+어》 → 《어+밝》의 교체는 모음조화가 파괴되면서 변화한것이며 《중+밝》 → 《중+어》의 교체는 모음조화가 파괴되지 않으면서 모음결합관계만 변화된것이다. 모음조화변화에는 모음조화가 파괴되면서 달라진 변화와 모음조화가 파괴되지 않으면서 달라진 변화가 다 속하게 된다.

조선말의 밝은모음, 어두운모음, 중성모음들이 소리마디들을 이루면서 결합하는 형태들에는 다음과 같은 아홉가지들이 있다.³

² 필자는 《모음조화의 파괴》와 《모음조화의 변화》란 개념들을 구별하여 쓴다.

³ 모음조화와 관련된 술어의 표시는 《밝은 모음》은 《밝》(○)으로 《어두운 모음》은 《어》(●)로 《중성 모음》은 《중》(◎)으로 한다.

① «밝+밝» 형태 (○+○)

· + ·, · + ㄴ, · + ㅏ, ㄴ + ·, ㄴ + ㄴ, ㄴ + ㅏ, ㅏ + ·, ㅏ + ㄴ, ㅏ + ㅏ

② «중+밝» 형태 (◎+○)

ㅣ + ·, ㅣ + ㄴ, ㅣ + ㅏ

③ «어+밝» 형태 (●+○)

ㅡ + ·, ㅡ + ㄴ, ㅡ + ㅏ, ㅜ + ·, ㅜ + ㄴ, ㅜ + ㅏ, ㅓ + ·, ㅓ + ㄴ, ㅓ + ㅏ

④ «밝+어» 형태 (○+●)

· + ㅡ, · + ㅜ, · + ㅓ, ㄴ + ㅡ, ㄴ + ㅜ, ㄴ + ㅓ, ㅏ + ㅡ, ㅏ + ㅜ, ㅏ + ㅓ

⑤ «중+어» 형태 (◎+●)

ㅣ + ㅡ, ㅣ + ㅜ, ㅣ + ㅓ

⑥ «어+어» 형태 (●+●)

ㅡ + ㅡ, ㅡ + ㅜ, ㅡ + ㅓ, ㅜ + ㅡ, ㅜ + ㅜ, ㅜ + ㅓ, ㅓ + ㅡ, ㅓ + ㅜ, ㅓ + ㅓ

⑦ «밝+중» 형태 (○+◎)

· + ㅣ, ㄴ + ㅣ, ㅏ + ㅣ

⑧ «어+중» 형태 (●+◎)

ㅡ + ㅣ, ㅜ + ㅣ, ㅓ + ㅣ

⑨ «중+중» 형태 (◎+◎)

ㅣ + ㅣ

이 형태들에서 ①, ②, ⑤~⑨형태들은 모음조화가 된 형태들이며 ③, ④형태들은 모음조화가 파괴된 형태들이다.

필자는 17~19세기에 이르러 그 앞시기인 15~16세기에 비하여 모음조화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를 빨리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문헌들에서 앞시기와 뒤시기에 다 사용된 같은 단어들의 모음조화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조사하여 보았다.

《박통사》(16세기초, 상)	《박통사언해》(1677년, 상)
○ 보를 (1)	보름 ⁴
○ 도흔 수을 (2)	도흔 술을
○ 열여슷 (4)	열 여슷
○ 노래브르니란 (6)	노래브르니를
○ 어느 (8)	어니
○ 너므 (18)	너모
○ 가풀리 (25)	가풀이
《두시언해》(초간본, 1481년)	《두시언해》(중간본, 1632년)
○ 무트를(24 : 12)	무트를
○ 어름녹듯 (24 : 12)	어름녹덧
○ 내 누를(24 : 24)	내 누를

이처럼 17세기에 간행된 《박통사언해》와 《두시언해》는 앞시기 초간본들에서 모음조화를 이루었던 단어들이 변화되어 파괴된 것들이 많다.

물론 17~18세기의 문헌들에서도 모음조화가 유지되어오다가 19세기 이후의 문헌들에서야 변화된 단어들도 있다.

례를 들면 1789년에 간행된 《동문류해》에는 《상토》(하, 3) 《입마초다》(상, 53) 《솔고》(하, 5)와 같은 단어들이 올랐는데 이 단어들은 19세기 이후에 《상투》, 《입마추다》, 《솔구들》로 변하였다.

이같이 17~19세기에 모음조화가 많이 변화되면서도 일부 유지되었다는 초보적인 인식을 가진데 기초하여 이 시기에 모음조화가 변화된 정형을 측면별로 갈라보면 다음과 같다.

⁴ 장수는 앞시기의 《박통사》의 해당한 단어가 있는 장. 이 아래도 같음.

2.1. 형태구조의 측면에 따르는 결합형태들에서의 변화

① 《말줄기+토》의 결합에서

모음조화가 많이 파괴되었다. 밝은모음형과 어두운모음형을 두 가지로 변종을 가지었던 대상도 《을/을, 를/를, 이/의, 애/애, 으/으로, 는/는》, 풀이]토 《ㄴ들 /ㄴ들, 거늘 /거늘, 듯/듯, 끼움토 가/거, 다/더, 오/우》 등이 모두 말줄기가 밝은모음으로 끝나는가 어두운모음으로 끝나는가에 관계없이 쓰이는 방향으로 나갔다.

《두시언해》의 초간본과 중간본을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다.

ㄱ. 《밝+밝》 → 《밝+어》

《두시언해》(초간본, 1481년) 《두시언해》(중간본, 1632년)

○ 文章 을 ⁵	文章을 (8: 50)
○ 벗 들(船)	벗들(7: 4)
○ 나 흘(年)	나흘(7: 11)

ㄴ. 《어+어》 → 《어+밝》

○ 그를	그를 (8: 53)
○ 平昔 은	平昔 은 (7: 26)

속격토 《이/의》와 대격토 《을/을, 를/를》의 모음조화가 변화된 정형을 앞시 기의 《통비어천가》와 뒤시기의 《송강가사》, 《로결대언해》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⁶

⁵ 초간본은 중간본의 해당한 곳.

⁶ 《송강가사》는 송강 정철이 16세기 말에 저술한 것을 1698년에 그의 현손이 필사하여 놓고 있던 중 18세기 중엽에(평양본 1767년, 경상도 성주본 1749년) 간행한 것이다. 그에 반영된 언어는 17~18세기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책	『룡비어천가』(1447)					『송강가사』(*11)					『로걸대언해』(1670)					
	분석 한 토	총 수	조화		파괴		총 수	조화		파괴		총 수	조화		파괴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이	11	11	100	0	0	15	5	33	10	67	2	1	50	1	50	
의	6	6	100	0	0	120	66	55	54	45	81	19	60	32	40	
을	47	46	98	1	2	5	5	100	0	0	14	12	86	2	14	
을	41	40	98	1	2	92	54	59	38	41	328	178	54	150	46	
를	30	30	100	0	0	47	35	74	12	26	43	10	23	33	77	
를	16	15	94	1	6	5	3	60	2	40	83	61	73	22	27	
모두	151	148	98	3	2	284	168	59	59	41	551	311	56	240	44	

이 표에서는 분석한 모든 토들에서 모음조화의 파괴가 15세기의 책에서는 모두 2%, 17~18세기의 말을 반영한 책에서는 41%, 17세기후반기의 책에서는 44%씩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말줄기+토』의 결합에서 18세기중엽까지의 기간에는 『어+어』 → 『어+밝』에로의 파괴와 『밝+밝』 → 『밝+어』에로의 파괴가 다 진행되였지만 18세기 말~19세기에 이르러서는 『밝+밝』 → 『밝+어』에로의 파괴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밝은모음토/어두운모음토』의 짹을 이루고있던 많은 토들이 어두운모음토들만으로 사용되는데로 넘어갔다. 예컨대 상토 『오/우』의 경우만을 놓고보아도 18세기말부터 밝은모음토 『오』는 거의 안쓰이고 밝은모음의 말줄기에도 어두운모음형의 『우』가 붙게 되였다.

다시말하여 다음과 같이 변화되였다.

시기	15~16세기	17~18세기중엽	18세기말~19세기
사용된 토	오, 우	오/우	우
쓴례 ⁷	새오라	새오다/새우다	새우다

⁷ 이에 대해서는 토변화를 밝힌 유사론문들에서 많이 분석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문분석을 피한다.

센오다	센오다/센우다	센우다
세우다	세오다/세우다	세우다
띄우다	띄오다/띄우다	띄우다

② 《말줄기+결합모음 < · / → >》의 결합에서

그 전시기에는 밝은모음으로 끝나는 줄기뒤에는 밝은모음의 《·》, 어두운모음으로 끝나는 줄기뒤에는 어두운모음의 《→》가 붙던것이 18세기이후에는 밝은모음으로 끝나는 줄기뒤에도 《→》, 어두운모음으로 끝나는 줄기뒤에서도 《·》가 붙으면서 모음조화가 파괴되어갔다.

ㄱ. 《밝+밝》 → 《밝+어》

○ 알프고(《박통사》하, 36) → 알프느니라(《박통언》상, 40)

○ 마츠니(《두시》초간, 8:8) → 무츠며(《태상》5:61)

ㄴ. 《어+어》 → 《어→밝》

○ 드르신(《룡비》90) → 드르대(《변학》2:19)

○ 우르고(율음을~)(《월석》7:35) → 우르고(《두시》중간 1:22)

18세기후반기부터 모음 《·》가 없어지고 모음조화가 많이 파괴됨에 따라 말줄기모음은 《· / → → →》로 통일되어갔다.

③ 《말줄기 +뒤붙이》결합에서

본래 뒤붙이들도 독자적으로 사용되던 단어들이였던만큼 앞시기에도 이 결합에서는 모음조화가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17세기이후 뒤붙이들에서 《개/계, 갑/겁, 립/립》과 같은 밝은모음형과 어두운모음형의 구별이 혼란되면서 모음조화가 더욱 파괴되어갔다.

ㄱ. 《밝+밝》 → 《밝+어》

○ 밧보다(《월석》10:23) → 밧보다(《소학》6:49)

○ 부럽다(《박통사》상, 13) → 부렵다(《속삼강》효자 8)

ㄴ. 《어+어》→《어+밝》

○ 번계(《룡비》30)→번식(《물명고》천문)

○ 엇계(《석보》6:30)→엇식(《물보》현체)

④ 말줄기내부에서

말줄기내부의 소리마디들사이의 결합은 조선말의 모음조화와 그 변화의 특성을
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말줄기내부에서 모음조화가 변화된 정형은 다음의
모음들의 결합형태에 따르는 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2. 모음들의 결합형태들에 따르는 모음조화의 변화

17세기이후 조선말의 모음조화는 모음들의 결합형태들에 따라서 각이한 특성을
가지고 변화되었다. 《말줄기+토》의 결합에서는 토들이 어두운모음토에로의 단
일화경향을 입었고 《말줄기+뒤붙이》결합에서는 뒤붙이들이 단어에 가까운 독
자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모음조화가 잘 진행되지도, 모음조화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두가지의 결합형태들에서는 모음조화변화의 고
유한 특성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말뿌리내부의 결합형태들에서는 모음조화변화의 고유한 특성들이 잘 나
타났다. 필자는 17~19세기동안 모음조화변화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모음
조화변화의 고유한 특성들이 잘 나타나는 말뿌리내부에서의 모음조화변화를 보여
주는 통계표를 작성하였다.

번호	단어총수 변화된 수 결합 형태	선택된 단어수	결합형태가 변한 단어수 (%)	결합형태가 변하지 않은 단어수 (%)	어두운 모음으로 변한 단어 수(%)	밝은모음 으로 변한 단어수 (%)	종성모음 으로 변한 단어수 (%)	앞소리마 디모음이 변한 단어수(%)	앞뒤소리 마디의 모음들이 다 변한 단어 수(%)
1	○+○	197	143 (73)	54 (27)	《○+●》 로 110 (55.8)	불가능	《○+◎》 으로 9(5)	없음	《●+●》 으로 2(1)

2	◎+○	31	19 (61)	12 (39)	《◎+●》 으로 19(16)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	63	56 (89)	7 (11)	《●+●》 으로 52(83)	없음	《●+◎》 으로 3(5)	1(2)	없음
4	○+●	57	3 (5)	54 (95)	없음	《○+○》 으로 1(2)	《○+○》 으로 2(4)	없음	없음
5	◎+●	42	6 (14)	36 (86)	없음	《◎+○》 으로 4(10)	《◎+○》 으로 2(5)	없음	없음
6	●+●	128	9 (7)	119 (93)	불가능	《●+○》 으로 7(6)	《●+○》 으로 7(5)		
7	○+◎	96	2 (2)	94 (98)	《○+●》 으로 없음	《○+○》 으로 없음	불가능	《●+○》 으로 2(2)	없음
8	●+◎	78	3 (4)	75 (96)	《●+●》 으로 없음	《●+○》 으로 없음	불가능	○+◎》 으로 3(4)	없음
9	◎+◎	16	없음	16 (10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통계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 ① 《조선말대사전》2권 부록 고어편을 집필하면서 장악된 약 4만개의 단어수를 가진 고어카드들에서 단일한 말뿌리로 되어있다고 본 고유밀단어 708개를 찾아서 아홉가지의 결합형태별로 그 변화정형에 대한 통계를 내였다.
- ② 통계표에 오른 단어들 가운데서 모음조화를 이룬 단어들은 15~16세기의 책들에서 취하였으며 모음조화가 변화된 단어들은 17~19세기의 책들에서 취하였다.
- ③ 통계표에 오른 대표적인 수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보여준다.

1. 선택된 단어수

아홉가지의 결합형태들에 따르는 단어들의 선택된 수이다. 아홉가지의 결합 형태들에 따르는 단어들이 모두 708개가 선택되었는데 예컨대 《밝+밝》의

형태로 결합된 단어는 197개, 《중+이》의 형태로 결합된 단어는 42개가 선택되었다.

2. 결합형태가 변한 단어수와 그 %수

이 수와 그 %수는 해당한 결합형태의 단어수에서 결합형태가 변한 수와 그 %수를 보이였다. 레컨대 번호 6에는 《어+이》로 결합된 단어수가 128개 선택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결합형태가 변한 단어수는 9개로써 7%이다.

3. 결합형태가 변한 내용을 보여주는 수와 그 %수

결합형태가 어떤 내용들로 변하였는가를 알기 위하여 결합형태가 변한 단어수를 다시 어두운모음으로 변한 단어수와 그 %수, 밝은모음으로 변한 단어수와 그 %수, 중성으로 변한 단어수와 그 %수, 앞소리마디의 모음이 변한 수와 그 %수, 뒤소리마디의 모음이 변한 수와 그 %수들로 각각 같아서 분석하였다.

레컨대 번호 3에서 《어+밝》의 형태로 결합된 단어수가 63개 선택되었는데 결합형태가 변한 단어가 56개로써 89%이다.

그런데 이 결합형태가 변한 단어 56개 가운데서 《어+밝》 → 《어+이》 변화로 어두운모음되기로 변한것은 52개로써 83%이다. 그리고 《어+밝》 → 《어+중》의 변화로 중성모음으로 변한 단어수는 3개로써 5%이다.

그리고 《어+밝》의 결합형태가 변한 단어 56개 가운데서 앞의 마디의 모음이 변한 단어수는 1개로써 2%이다.

4. 결합형태가 변하지 않은 단어수와 그 %수

이 수자와 그 %수는 해당한 결합형태의 단어로 선택된 수들 가운데서 결합형태가 변하지 않고 모음조화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단어수와 그 비률을 보여준다.

레컨대 번호 7에서는 《밝+중》결합형태로 된 단어들이 96개 선택되었는데 결합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단어가 94개로써 98%임을 보이였다.

이 수치와 그 비률은 조선말의 모음조화에서 17~19세기기간에 《밝+중》결합

의 중성조화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어왔음을 보여준다.

통계표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17~19세기동안 말뿌리내부에서의 모음조화변화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ㄱ. 모음조화가 파괴되었다.

그 파괴는 《밝+밝》→《밝+어》, 《어+어》→《어+밝》의 류형들로 진행되었다.

① 류형 : 《밝+밝》→《밝+어》

- 조물쇠(《류합》하, 43)→ 조물쇠(《청구》 55)
- 방울(《왜어》하, 20)→ 방울(《몬어보》 29)
- ㄹ르치다(《릉엄》3: 400)→ ㄹ르치다(《소학》 6: 47)
- ㄹ몰다(《릉엄》8: 12)→ ㄹ무다(《동문》상 5)

② 류형 : 《어+어》→《어+밝》

- 쳐업(《류합》상 1)→ 쳐읍 (《열어류》하 7)
- 어느(《릉비》47)→ 악느 (《손강》1: 4)
- 쿠드리다(《릉엄》7: 18)→ 쿠달이다(《동문》하 120)
- 흐르다(《두시》초간, 8: 37)→ 흐르다(《두시》중간 1: 15)

우에서 본 예문들 가운데서 ①류형의 파괴가 모음조화파괴의 기본류형이고 ②류형의 파괴는 파괴된 매우 부차적인 류형이다.

우의 통계표에서 보면 《밝+밝》의 형태로 결합된 단어가 197개 선택되었는데 《밝+밝》→《밝+어》의 류형으로 모음조화가 파괴된 단어가 110개로써 약 55.8%를 차지한다.

《어+어》의 형태로 결합된 단어는 128개 선택되었는데 《어+어》→《어+밝》의 류형으로 모음조화가 파괴된 단어는 7개인데 약 6%를 차지한다.

ㄴ. 모음조화는 파괴되지 않고 모음들의 결합형태들만이 변화되기도 하였다. 《중+밝》형태는 《중+어》형태로 바뀌면서 모음조화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다

만 뒤소리마디의 밝은모음들이 어두운모음들로 변하였다.

○ 기름(《석보》6:10)→기름(《물명고》1, 모)

○ 일홈(《박통사》상, 50)→일홈(《두시》중간 1:14)

○ 기르다(《두시》초간, 8:67)→기르다(《두시》중간 1:14)

《중+밝》의 형태로 결합된 단어는 31개가 선택되었는데 《중+밝》→《중+어》의 류형들로 변화된 단어가 19개로써 약 61%에 이르렀다.

《기름》,《기르다》와 같이 《중+어》류형으로 모음조화를 이룬 단어들이 15~16세기에도 많이 사용된것으로 보아 《중+어》→《중+밝》→《중+어》(기름→기름→기름, 기르다→기르다→기르다)와 같은 되돌이과정을 거친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성모음뒤에서도 밝은모음들이 어두운모음들로 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ㄷ. 모음조화가 파괴되지도 않고 모음들의 결합형태들도 변화되지 않는것들이 있었다.

다음과 같은 결합형태들이 여기에 속한다.

① 《어+어》 — 《어+어》

○ 허풀(遇)(《훈몽》하, 29) — 허풀(《한청》8:31)

○ 거문고(《류합》상, 24) — 거문고(《두시》중간, 2:36)

○ 붓그럽다(《두시》초간, 8:31) — 붓꾸럽다(《삼역》6:31)

《어+어》형태로 조화를 이룬 단어는 총 128개가 선택되었는데 결합관계가 변한 것이 9개로써 겨우 7%이며 결합관계가 변하지 않은것이 119개로써 93%이다.

② 《중+어》 — 《중+어》

○ 기러기(《소학》2:49) — 기러기(《왜어》하, 20)

○ 남금(《룡비》125) — 남금(《두시》중간, 3:67)

○ 짓보다(《석보》9:34) — 짓보다(《삼역》4:2)

《중+어》로 결합된 단어는 42개가 선택되었는데 결합형태가 변화된것이 6개로

써 14%이고 결합형태가 변화되지 않은것이 36개로써 86%이다.

③ 《밝+중》 — 《밝+중》

○ 반기다(《송강》 1:2) — 반기다(《태평》 1:39)

○ 가지(茹)(《훈몽》 상, 13) — 가지(《풀보》 초과)

○ 다티다(《릉엄》 1:68) — 다치다(《역어보》 5)

《밝+중》의 형태로 결합된 단어는 96개가 선택되었는데 결합형태가 변화된것이

2개 단어로써 약 2%이고 결합형태가 변화되지 않은 단어가 94개로써 약 98%이다.

④ 《어+중》 — 《어+중》

○ 구지람(《법화》 6:80) — 쿠지람(《역어류》 상, 65)

○ 쯔구리다(《훈몽》 하, 27) — 쯔그리다(《태평》 1:30)

○ 어리다(幼)(《소학》 4:16) — 어리다(《경신》 78)

《어+중》형태로 결합된 단어는 78개가 선택되었는데 결합형태가 변화된 단어
가 3개로써 겨우 4%이며 결합형태가 변화되지 않은 단어가 75개로써 96%이다.

⑤ 《중+중》 — 《중+중》

○ 비지(《훈몽》 중, 22) — 비지(《역어류》 상, 51)

○ 잊기(昔)(《백련》 3) — 잊기(《동문》 상, 9)

○ 지지다(《훈몽》 하, 13) — 지지다(《물명고》 하, 5)

《중+중》형태로 결합된 단어들은 16개가 선택되었는데 결합형태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다.

ㄹ. 모음들의 결합형태가 17~19세기동안에 변화되었다가 다시 본래대로 되돌아
가는것들도 있었다.

① 《어+어》의 결합형태는 대부분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일부 단어들이 《어+
밝》형태로 변하였다가 다시 《어+어》형태로 되돌아갔다. 다시말하여 《어+어》
→《어+밝》→《어+어》형태로 되돌아갔다.

○ 스스로(《두시》초간 15:2)→스스로(《로결언》상, 30)

→ 스스로(《두시》중간 1:14)

○ 혼들다(《류합》하, 47)→흔들다(《련병》5)→흔들다(《역어보》18)

② 《중+어》의 형태도 대부분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일부 단어들이 다시 《중+밝》의 형태로 변화되었다가 다시 《중+어》의 형태로 되돌아갔다.

○ 시름(《룡비》102)→시름(《송강》1:12)→시름(《두시》중간 11:7)

○ 이울다(《통엄》9:107)→이울다(《송강》1:4)→이울다(《두시》중간 4:31)

우에서 본 모음들의 결합형태들에 따르는 모음조화의 변화를 간단히 종합하여 둑어보면 다음과 같다.

ㄱ. 모음조화가 파괴된 류형

① 《○+○》→《○+●》상토→상투, ㄻ르치다→ㄻ르치다

② 《●+●》→《●+○》처업→처읍, 어느→어누

ㄴ. 결합형태만 변화된 류형

① 《◎+○》→《◎+●》기동→기둥, 시름→시름

ㄷ. 결합형태가 변화되지 않은 류형

① 《●+●》— 《●+●》을음— 읊음, 수풀— 수풀

② 《◎+●》— 《◎+●》비두리— 비둘기, 가을다— 기울다

③ 《○+◎》— 《○+◎》고기— 고기, 둣리— 다리

④ 《●+◎》— 《●+◎》엄지— 엄지, 누리다— 누리다

⑤ 《◎+◎》— 《◎+◎》미리— 미리, 디니다— 지니다

ㄹ. 결합형태가 되돌아간 류형

① 조화→파괴→조화

《●+●》→《●+○》→《●+●》

스스로→스스로→스스로

② 본래형태→변화→본래형태

《◎+●》→《◎+○》→《◎+●》

시름→시름→시름

3. 모음조화변화에서의 특징

이상 보아온 모음조화변화의 실태를 통하여 그 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음을 고찰할 수 있다.

① 조선말의 모음조화변화는 주로 밝은모음들이 어두운모음으로 바뀌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17세기~19세기동안 모음조화변화는 주로 뒤소리마디의 밝은모음들이 어두운모음으로 되는 ‘어두운모음되기’의 특성을 띠면서 진행되었다.

주로는 ①류형:《밝+밝》→《밝+어》, ②류형《중+밝》→《중+어》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밝은모음이 어두운모음으로 변하면서도 《·→-》, 《ㅗ→ㅜ》, 《ㅏ→ㅓ》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울림도의 모음이 짹으로 되는 높은 울림도의 모음으로 변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 → -: 사슴(《훈민》 해) → 사슴(《동문》 하, 49)

뻐르다(《내훈》 1:3) → 찌르다(《왜어》 하, 24)

ㅗ → ㅜ: 절고(《동문》 하, 26) → 절구(《역어보》 43)

져울(《박통언》 상, 38) → 저울(《역어류》 하, 16)

ㅏ →ㅓ: 건나다(《월석》 2:19) → 건너다(《두시》 중간 12:5)

《·→-》, 《·→ㅓ》, 《ㅗ→ㅜ》, 《ㅗ→ㅓ》, 《ㅏ→ㅓ》, 《ㅏ→-》, 《ㅏ→ㅜ》의 바뀜으로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모음조화의 파괴가 약한 위치인 뒤소리마디들에서 상대적으로 울림이 큰 낮은모음 《·, ㅗ, ㅏ》들이 상대적으로 울림이 작은 높은모음 《-, ㅜ, ㅓ》들로 변하는 모음악화현상의 작용밑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② 모음조화는 파괴만 된것이 아니였다. 일부는 파괴되지 않고 결합형태들만 변하였으며 일부는 파괴되었다가 복귀되어 다시 조화를 이루기도 하였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일부결합형태들은 모음조화가 계속 유지되면서 모음들의 결

합형태들만 바뀌었으며 어두운모음과의 결합형태, 중성모음과의 결합형태와 같은 일부결합형태들은 모음조화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리고 《어+밝》, 《중+밝》의 결합형태들은 도로 본래의 《어+어》, 《중+어》결합형태들로 되돌아갔다.

총체적으로 보면 17~19세기동안에 모음조화가 파괴되지 않은 형태들에서도 결합형태들이 많이 변하였으며 모음들의 결합형태의 특성으로부터 변화할수 없는 것들은 본래의 결합형태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③ 모음조화의 변화에서는 앞소리마디의 모음들이 변하지 않고 주로 뒤소리 마디의 모음만이 변하였다.

모음조화를 이루던 708개의 단어들을 조사하여 본데 의하면 첫소리마디의 모음들이 변한 것은 10개도 채 안된다. 다만 《몬쳐→먼져》, 《보선→벼선》, 《불셔→별셔》, 《그늘→그늘》, 《몬자→먼지》와 같이 변한것들이 일부 있다. 그러나 이 형태들은 첫 형태들이 모음조화가 된 《먼져》, 《벼선》들이며 《먼져→몬져→먼져》, 《벼선→보선→벼선》과 같은 되돌리기과정을 거친것으로 보인다.

국문문헌에 반영된 첫시기의 형태들은 ‘몬쳐, 보선, 불셔, 그늘, 몬자’ 들이나 그 먼저형태는 ‘먼져, 벼선, 별셔, 그늘, 먼지’ 들이였을것이라고 짐작된다.

이처럼 첫소리마디를 기준으로 하여 내리조화를 하던 모음조화관계가 첫소리마디를 고수하면서 다음소리마디들이 변하는 내리파괴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우리 말의 모음조화와 그 변화가 소리마루가 없는 소리마디의 모음들이 잘 변하는 일부 서유럽나라의 말들과는 달리 소리마디의 위치의 제약을 받으면서 앞소리마디의 모음들이 변하지 않고 뒤소리마디의 모음들이 잘 변하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상 론문의 서술과정을 통하여 필자가 새롭게 론증하고 주장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중세조선말에서 모음조화가 많이 변하고 파괴된 시기는 17~19세기이다.
15~16세기에는 모음조화가 혼란되고 일부가 변하였을뿐이다.

따라서 15~16세기이후 조선말의 모음조화가 파괴되었다는 일반적인 규정은 다

시 검토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2. 조선말에서 모음조화가 파괴된 것은 뒤소리마디의 밝은모음들이 어두운모음들로 되는 방향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뒤소리마디의 중성모음, 어두운모음들이 밝은모음들로 변하거나 뒤소리마디의 어두운모음, 밝은모음들이 중성모음들로 바뀌면서 모음조화가 파괴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다.

밝은모음들이 어두운모음들로 되고 밝은모음+밝음모음의 조화가 밝은모음+어두운모음의 부조화로 변하는 것이 조선말 모음조화가 파괴되고 변화된 첫째의 특징이다.

조선말에서 모음조화변화는 앞소리마디의 모음들이 변하지 않고 둘째소리마디와 그 다음소리마디의 모음들이 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둘째와 그 다음마디의 모음들만이 변한 것, 이것이 조선말 모음조화변화의 둘째특징이다.

이것은 조선말에서 모음조화와 그 변화는 철저히 내리조화(순행조화)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선말의 모음조화가 거꾸로의 조화(역행조화)를 주로 하는 일부 나라 말의 모음조화와 달리 진행됨을 보여준다.

3. 조선말에서 중성조화와 어두운모음조화들은 거의 파괴되지 않고 계속 보존되었다. 중세시기 이후 현대조선어에서도 《중+중》, 《중+어》, 《중+밝》, 《밝+중》조화들은 많이 보존되고 유지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조선말에서 모음조화가 거의 파괴되고 일부 본관말들에서만 남아있다는 단정은 심히 그릇된 것이다.

4. 조선말의 모음조화변화는 17~19세기 이후 말소리, 어휘, 문법형태들의 변화에 따른 작용을 하였다.

모음조화의 변화는 말소리측면에서 《·》(아래아)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가 변하면서 《·→—》의 음성모음되기를 입어서 뒤소리마디들에서는 《·》가 《—》로 달라지게 하였다.

모음조화의 변화는 밝은모음과 어두운모음의 차이로 의미나 음상이 밝고 어두우며 크고 작으며 무겁고 가벼운식 차이를 가진 단어들이 분화발전되도록 하였다.

례 : 할랑할랑/헐렁헐렁

달가타달가타/덜거덕덜거덕

깔랑깔랑/껄렁껄렁

모음조화의 변화는 특히 형태론적측면에서 《밝은모음형/어두운모음형》으로
갈라져있던 토들이 《가/거→거, 다/더→더, 이/의→의, 애/애→에》와 같이 어두운
모음형의 토들로 통일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참고문헌

《통비어천가에 반영된 모음조화현상의 몇 가지 특성》 최옹재, 《조선어문》 1960년, 제3호, 16~29
페이지.

《조선말의 모음조화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1) 류렬, 《조선어학》 1961년 2호, 1~13 페이지.

《조선말의 모음조화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2) 류렬, 《조선어학》 1961년 3호, 44~58
페이지.

《모음조화현상》 렘종률, 《조선어문법구조시》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년, 75~79 페이지.

《모음조화현상과 그 변화》 김영황, 《조선어민족발전력사연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8년,
263~271 페이지.

《우리 말의 모음조화파괴에서 볼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에 대하여》 김인호, 《조선관계전문학자
들의 국제과학토론회문집》(언어학분과) 사회과학출판사, 1989년, 229~237 페이지.

《모음조화》 류렬, 《조선말력사》 (2권) 사회과학출판사, 1992년, 328~333 페이지.

《母音調和研究》 李崇寧, 서울, 《震檀擧報》 제16호, 1947년.

《母音調和研究》 李崇寧, 서울, 《音韻論研究》 1948년, 1~164 페이지.

《元音和諧中的三足鼎立現象》 業世長, 베이징 《民族語文》 1981년 2호, 1~12 페이지.

《Note on Vowel harmony in Middle Korea》 早田輝洋, 도쿄, 《言語研究》 1975년 68호, 104~118 페이지.

《中期朝鮮語における母音調和花の亂れについて》(特に語基母音ユ/ㅜを中心に) 門脇誠一, 도
쿄, 『조선학보』 102호, 1982년, 1~30 페이지.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 10 호

일본

Japan

Progressives in Korean, Japanese and Mongolian*

Nam Sun Song & Jae-mog Song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1. Introduction

This paper compares progressive constructions in Korean, Japanese, and Mongolian to show their function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t especially focuses on semantic ambiguity observed in the Progressive constructions in the three languages.

Korean, Japanese, and Mongolian use *-ko iss-*, *-te i-*, *-j bai-* to express the aspectual meaning of progressive respectively. In addition to their semantic affinity, the three constructions have a similar structure. They are composed of a connective suffix attached to a preceding verb and an auxiliary verb. The auxiliary in the three constructions are semantic equivalent to each other, meaning 'to be, exist' .

Though the three constructions mainly indicate progressive, they have other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and presented at the 21st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Frascati in Italy, April 9~13 2002).

semantic functions as well, depending on the lexical properties of the verb or the context. They can express resultative, habitual or iterative meaning as well.

Progressive constructions in the three languages show semantic ambiguity between a progressive meaning and a resultative meaning with some verbs. It seems that the semantic features of telicity and reflexivity are relevant in producing the ambiguity. In other words, telic reflexive verbs are ambiguous in the progressive form of the three languages, whereas atelic or non-reflexive verbs do not. In section 2, we will examine the lexical restrictions of the three constructions and their semantic functions. Section 3 will discuss their semantic ambiguity.

2. Lexical restrictions and semantic function

Grammatical aspects may express meanings other than their prototypical ones, depending on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 predicate or the context. In English, the construction be V-ing, which typically indicates on-going activity with active verbs (example 1), denotes the meaning of temporariness with stative verbs (example 2).

- (1) a. *They sing songs.*
b. *They are singing songs.*
- (2) a. *I live in London.*
b. *I am living in London.*

The Progressive constructions in Korean, Japanese, and Mongolian, which are assumed to mainly express on-going activity with active verbs, are also known to

be able to denote other aspectual meanings. In addition to their typical meaning (progressive), they can express resultative, habitual or iterative meaning as well. In this section we will examine the semantic functions of the Progressive constructions in the three languages.

(Korean)

In the Korean Progressive form, the main verb is followed by an auxiliary verb iss- 'to be, exist' and the two are connected by a connective suffix -ko, which is attached to the main verb stem (V): V-ko iss-. The Korean Progressive form can occur with active verbs, expressing the prototypical meaning of the progressive: on-going activity.

- (3) *Mal-i talli-ko iss-ta.*¹

horse-Nom run-Conn be-Decl

'A horse is running.'

- (4) *Aki-ka wus-ko iss-ta.*

baby-Nom smile-Conn be-Decl

'A baby is smiling.'

The Korean Progressive form denotes resultative meaning with instantaneous verbs.

- (5) *Aki-ka nwun-ul ttu-ko iss-ta.*

baby-Nom eye-Acc open-Conn be-Decl

¹ In this paper, the following abbreviations are used: Acc (Accusative), Conn (Connective), Decl (Declarative), Loc (Locative), Nom (Nominative), Npast (Non-past), Pfv (Perfective), Pres.(Present), Top (Topic).

'The baby has opened his eyes. (The baby is in the state of having opened his eyes.)'

(6) *Kutul-un pwul-ul kku-ko iss-ta.*

they-Top light-Acc turn:off-Conn be-Decl

'They have turned off the light. (They are in the state of having turned off the light.)'

Instantaneous verbs describe instant changes of state. The preliminary stage of the event is so short that it is incompatible with durative interpretation. Therefore, when instantaneous verbs are allowed with the progressive form, it is interpreted as focusing the duration of its resultant stage (the newly achieved stage through the event) rather than the preliminary stage. When the context allows a durative interpretation of the preliminary stage, however, instantaneous verbs can be interpreted to indicate the duration of the preliminary stage (the progressive reading) in the Progressive form. For example, when there are dozens of lights to be turned off and switching them off requires reasonably long time, then example (6) can be interpreted as on-going activity, meaning 'They are turning off the lights' .

The Korean Progressive can also be used with stative verbs like ihayha- 'to understand' , mit- 'to believe' , cohaha- 'to like' , al- 'to know' . The progressive form of stative verbs does not indicate on-going activity but emphasizes the continuation of the state at a given time.

(7) *Tongsayng-i kukes-ul al-ko iss-ta.*

younger brother-Nom that-Acc know-Conn be-Decl

'(My) Younger brother knows that.'

(8) *Ku-nun kunye-lul cohaha-ko iss-ta.*

he-Top she-Acc like-Conn be-Decl

'He likes her.'

The Korean Progressive form may express habitual or iterative meaning with temporal adverbs or depending on the context.

(9) *Jinwoo-nun cenyek-ey hakwen-ey naka-go iss-ta.*

Jinwoo-Top evening-Loc school-Loc go-Conn be-Decl

'Jinwoo goes to school in the evening.'

(10) *Na-nun kakkum kulen somwun-ul tut-ko iss-ta.*

I-Top sometimes such rumor-Acc hear-Conn be-Decl

'I sometimes hear such rumor.'

The Korean Progressive cannot, however, occur with descriptive verbs (adjectives in other languages), the copula i- 'to be' , its negative form ani- 'not to be' , the existential verb iss- 'to be, exist' , and its negative form eps- 'not to exist' .

(11) **Aki-ka yeppu-ko iss-ta.*

baby-Nom pretty-Conn be-Decl

'The baby is pretty.'

(12) **Tongsayng-un haksayng I-ko iss-ta.*

younger brother-Top student be-Conn be-Decl

'(My) younger brother is a student.'

(13) **Ku-nun cip-ey iss-ko iss-ta.*

he-Top house-Loc be-Conn be-Decl

'He is at home.'

(Japanese)

As in Korean, the Japanese Progressive construction is formed by connecting the main verb and an auxiliary verb *i-* 'to be, exist' with the connective suffix *-te*. The Progressive construction with an active verb has the prototypical meaning of the progressive, on-going activity.

(14) *Uma-ga hashit-te i-ru.*

horse-Nom run-Conn be-Pres

'A horse is running.'

(15) *Akachyang-ga warat-te i-ru.*

baby-Nom smile-Conn be-Pres

'A baby is smiling.'

Instantaneous verbs occur in *-te i-* form for the resultative interpretation as in Korean.

(16) *Taroo-ga me-o ake-te i-ru.*

Taroo-Nom eyes-Acc open-Conn be-Pres

'Taroo is in the state of having opened his eyes.'

(17) *Taroo-ga akari-o keshi-te i-ru.*

Taroo-Nom light-Acc turn:off-Conn be-Pres

'Taroo is in the state of having turned off the light'

Stative verbs like *rikaisu-* ‘to understand’ , *shinzi-* ‘to believe’ , *shi-* ‘to know’ can take the progressive form in Japanese with emphasizing the continuation of the state in the given time.

- (18) *Watashi-wa sore-o shi-te i-ru.*

I-Top that-Acc know-Conn be-Decl

‘I know that.’

- (19) *Watashi-wa kare-o shinzi-te i-ru.*

I-Top he-Acc believe-Conn be-Decl

‘I believe him.’

However, stative verbs like *i-* ‘be, exist’ , *deki-* ‘be able’ cannot take the *-te i-* form.

- (20) **Taroo-ga gakkou-ni i-te i-ru.*

Taroo-Nom school-Loc be-Pres

‘Taroo is in school.’

- (21) **kare-wa shigoto-ga deki-te i-ru.*

he-Top work-Nom be able-Conn be-Pres

‘He is efficient in his work.’

We can observe a habitual or iterative meaning in the Japanese Progressive form as well.

- (22) *Taroo-wa yuugata gakko-ni it-te i-ru.*

Taroo-Top evening school-Loc go-Conn be-Pres

'Taroo goes to school in the evening.'

- (23) *Taroo-wa yoku kono mise-ni ki-te i-ru.*

Taroo-Top well this shop-Loc come-Conn be-Pres

'Taroo often comes to this shop.'

The Japanese *-te i-* form can be used to express the perfect meaning depending on the context (Kudou 1995).²

- (24) *Taroo-wa kyōnen itido hugo-o tabe-te i-ru.*

Taroo-Top last year once globefish-Acc eat-Conn be-Pres

'Taroo has the experience of having eaten globefish once last year.'

- (25) *Taroo-wa 1970-nen-ni kekkonshi-te i-ru.*

Taroo-Top 1970-year-Loc marry-Conn be-Pres

'Taroo has the experience of having gotten married in 1970.'

(Mongolian)

The Mongolian Progressive needs the copula *ba?*-, with the main verb stem (V) attached by a connective suffix *-j*: V-*j* *ba?*-. Unlike Korean, the Mongolian Progressive hardly shows lexical restriction. It can occur with active verbs or stative verbs as in the Korean and the Japanese Progressives.

- (26) *Bat alim ide-j bač-na.* (active)

Bat apple eat-Conn be-Npast

'Bat is eating an apple.'

² Ogiara (1999) labels these examples as 'experiential'.

(27) *Mor' guūč-j bač-na.* (active)

Horse run-Conn be-Npast

'A horse is running.'

(28) *Bi tiūnūč med-j bač-na.* (stative)

I(Nom) that(Acc) know-Conn be-Npast

'I know that.'

(29) *Bat čamačg xačlač-j bač-na.* (stative)

Bat you(Acc) love-Conn be-Npast

'Bat loves you.'

With active verbs the Mongolian Progressive form -j bač- indicates on-going activity. With stative verbs the Progressive form emphasizes the continuation of the state at a given time.

It is noticed that instantaneous verbs in Korean and Japanese have resultative readings in the Progressive forms. However, their Mongolian counterparts allow only the progressive reading. It should be reminded that the Progressive readings are not normally available for these verbs in the Korean and Japanese Progressives.

(30) *Bat nud-ee nee-j bač-na.*

Bat eye-Refl open-Conn be-Npast

'Bat is in the process of opening his eyes.'

(31) *Bat gerel untraa-j bač-na.*

Bat light turn:off-Conn be-Npast

'Bat is turning off the light'

Mongolian counterparts of instantaneous verbs in Korean and Japanese do not seem to behave as instantaneous in Mongolian. The preliminary stage of the events described by those instantaneous verbs in Korean and Japanese seems to be comprehended as durative in Mongolian.

The Mongolian Progressive form can occur with the copula verb constructions whose counterparts cannot be used with the progressive form in Korean or Japanese. The copula verb construction with a nominal or adjectival complement can be used in the progressive in Mongolian.

- (32) *Bat oyuutan bač -j bač -san.*

Bat student be-Conn be-Pfv

'Bat was a student.'

- (33) *Ter bač šin sač xan bač -j bač -san.*

That house nice be-Conn be-Pfv

'That house was nice.'

With the copula construction, the Mongolian Progressive form denotes a modal meaning of evaluation, indicating the speaker's surprise. Examples (32-33) indicate that the proposition is a surprise to the speaker: the speaker may not have expected that Bat would be a student or that the house would be nice.

As in Korean and Japanese, the Mongolian Progressive form can have a habitual or iterative meaning, depending on the context.

- (34) *Bat ene jil solongos xel sur-j bač -na.*

Bat this year Korean language learn-Conn be-Npast

'Bat is learning Korean this year.'

(35) *Bat daraa end ir-j bai̯-na.*

Bat later here come-Conn be-Npast

'Bat will come here later (again and again).'

3. Semantic ambiguity

It has been pointed out in the Korean literature that some verbs in the Progressive form show ambiguity in their meaning (Chang 1973, Yang 1977). We can find a similar phenomenon in Japanese and Mongolian as well.

3.1. Telicity and transitivity

3.1.1. Telic transitive verbs

Some Korean active verbs in the progressive form are ambiguous in their meanings. Examples (36-38) are ambiguous. It has been noticed in the literature that the semantic features of telicity and transitivit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n Progressive (Chang 1973, Yang 1977). In other words, telic transitive verbs are ambiguous between the progressive meaning and the resultative meaning in the Korean Progressive.

(36) *Jinwoo-i ppalkan nekthai-lul may-ko iss-ta.*

Jinwoo-Nom red necktie-Acc wear-Conn be-Decl

(a) 'Jinwoo is putting on a red necktie.'

(b) 'Jinwoo is wearing a red necktie.'

(37) *Jinwoo-i say paci-lul ip-ko iss-ta.*

Jinwoo-Nom new trousers-Acc wear-Conn be-Decl.

(a) 'Jinwoo is putting on a new trousers.'

(b) 'Jinwoo is wearing a new trousers.'

- (38) a. *Jinwoo-ka phal-ul phye-ko iss-ta.*

Jinwoo-Nom hand-Acc stretch-Conn be-Decl

'Jinwoo has his hand stretched out.'

- b. *Jinwoo-ka chenchenhi phal-ul phye-ko iss-ta.*

Jinwoo-Nom slowly hand-Acc stretch-Conn be-Decl

'Jinwoo is stretching his hand out slowly.'

The Japanese Progressive form -te i- also shows semantic ambiguity between the progressive interpretation and the resultative interpretation with a certain group of verbs. As in the Korean Progressive form, telic transitive verbs are ambiguous in the Japanese Progressive form but with preference to the resultative reading.

- (39) a. *Taroo-ga akai nekutai-o shime-te i-ru.*

Taroo-Nom red necktie-Acc tie-Conn be-Pres

'Taroo is wearing a red necktie.'

- b. *Taroo-ga isoide akai nekutai-o shime-te i-ru.*

Taroo-Nom hurriedly red necktie-Acc tie-Conn be-Pres

'Taroo is putting on a red necktie hurriedly.'

- (40) a. *Taroo-ga koshi-o kagame-te i-ru.*

Taroo-Nom waist-Acc bend-Conn be-Pres

'Taroo is bending himself forward. (He is in the state of having bent himself forward.)'

- b. *Taroo-ga yakkurito koshi-o kagame-te i-ru.*

Taroo-Nom slowly waist-Acc bend-Conn be-Pres

'Taroo is slowly bending himself forward.'

Telic transitive verbs show the same ambiguity in Mongolian as well. If a telic transitive verb occurs in the Mongolian Progressive form -j ba?-̄, the sentence is ambiguous between progressiveness and resultativeness.

(41) *Bat ciinx iiri-re-j bač -na.*

Bat bag shoulder-Conn be-Npast

- (a) 'Bat is lifting a bag on to his shoulder.'
- (b) 'Bat has his bag on his shoulder'

(42) *Bat gar teniž lge-j bač -na.*

Bat hand stretch-Conn be-Npast

- (a) 'Bat is stretching his hand out.'
- (b) 'Bat has his hand stretched out.'

(43) a. *Bat zangia züü-j bač -na.*

Bat necktie wear-Conn be-Npast

'Bat is putting on a necktie.'

b. *Bat guravan ödöör ter zangia züü-j bač -na.*

Bat three day that necktie wear-Conn be-Npast

'Bat has been wearing that tie for three days.'

While the three languages display ambiguity in the Progressive forms, there seems to be some differences in their preference. Japanese Progressive constructions with a telic transitive verb are biased toward the resultative reading but those in Mongolian seem to be biased toward the progressive reading. Unless the context tells the other, the Japanese Progressive of telic transitive verbs tends

to be interpreted as resultative, whereas the Mongolian Progressive prefers the progressive interpretation. Korean appears to come between the two.

3.1.2. Atelic verbs

In Korean atelic verbs do not have semantic ambiguity in the Progressive form. Without regard to its transitivity, atelic verbs only allow the progressive interpretation.

(Korean)

- (44) *Jinwoo-ka sakwa-lul mek-ko iss-ta.* (telic intransitive)

Jinwoo-Nom apple-Acc eat-Conn be-Decl

'Jinwoo is eating an apple/apples.'

- (45) *Jinwoo-ka nolay-lul pwulu-ko iss-ta.* (telic intransitive)

Jinwoo-Nom song-Acc sing-Conn be-Decl

'Jinwoo is singing a song/songs.'

- (46) *Jinwoo-ka wul-ko iss-ta.* (atelic intransitive)

Jinwoo-Nom cry-Conn be-Decl

'Jinwoo is crying.'

- (47) *Palam-i pwul-ko iss-ta.* (atelic intransitive)

wind-Nom blow-Conn be-Decl

'The wind is blowing.'

It is the same in Japanese and Mongolian. Atelic verbs seem to have only progressive interpretation in the three languages.³

(Japanese)

- (48) *Taroo-ga uta-o utat-te i-ru.*

Taroo-Nom song-Acc sing-Conn be-Decl

'Taroo is singing.'

- (49) *Taroo-ga ringo-o tabe-te i-ru.*

Taroo-Nom apple-Acc eat-Conn be-Decl

'Taroo is eating rice.'

- (50) *Taroo-ga nai-te i-ru.*

Taroo-Nom cry-Conn be-Pres

'Taroo is crying.'

- (51) *Kaze-ga hui-te i-ru.*

wind-Nom blow-Conn be-Pres

'The wind is blowing.'

(Mongolian)

- (52) *Bat alim id-ej bač -na.*

Bat apple eat-Conn be-Npast

'Bat is eating an apple/apples.'

- (53) *Bat duu duul-j bač -na.*

Bat song sing-Conn be-Npast

'Bat is singing a song/songs.'

³ Japanese may allow the perfect reading for the following examples. This paper, however, only deals with the ambiguity between the progressive reading and the resultative reading.

(a) *Taroo-ga suden-i uta-o utat-te i-ru,*

Taroo-Nom already song-Acc sing-Conn is-Decl

'Taroo has already sung.'

- (54) *Bat iičl-j bai -na.*

Bat cry-Conn be-Npast

'Bat is crying.'

- (55) *Salxi salxil-j bai -na.*

Wind blow-Conn be-Npast

'The window is blowing.'

3.1.3. Telic intransitive verbs

In Korean, telic intransitive verbs do not show semantic ambiguity in the progressive. They only allow the progressive interpretation as shown in the following examples.

(Korean)

- (56) *Jinwoo-ka anc-ko iss-ta.*

Jinwoo-Nom sit-Conn be-Decl

'Jinwoo is in the process of sitting down.'

- (57) *Jinwoo-ka ilese-ko iss-ta.*

Jinwoo-Nom stand-Conn be-Decl

'John is in the process of standing up.'

It is the -e iss- form that expresses resultative meaning of these telic verbs in Korean as in (58-59).⁴

- (58) *Jinwoo-ka anc-a iss-ta.*

Jinwoo-Nom sit-Conn be-Decl

'Jinwoo is in the state of having sat down.'

- (59) *Jinwoo-ka ilese-e iss-ta.*

Jinwoo-Nom stand-Conn be-Decl

'Jinwoo is in the state of having stood up.'

Telic intransitive verbs can, however, be ambiguous in the Japanese and the Mongolian Progressive forms.

(Japanese)

- (60) a. *Semento-ga katamat-te i-ru.*

cement-Nom become hard-Conn be-Pres

'The cement is solid (after having become hard).

- b. *Semento-ga yukkurito katamat-te i-ru.*

cement-Nom slowly become hard-Conn be-Pres

'The cement is getting solid slowly.'

- (61) a. *Konoha-ga ochi-te i-nu.*

leaf-Nom fall-Conn be-Pres

'Leaves are on the ground (after having fallen).'

- b. *Konoha-ga yukkurito ochi-te i-ru.*

leaf-Nom slowly fall-Conn be-Pres

'Leaves are falling slowly.'

⁴ Japanese verbs suwar- 'to sit', tat- 'to stand' which correspond to Korean anc- and ilese- do not show ambiguity in the progressive. They are only interpreted with the resultative reading.

(a) *Taroo-ga suwa-te i-ru.*

Taroo-Nom sit-Conn be-Pres

'Taroo is in the state of having sat down.'

It seems that these verbs are taken as instantaneous verbs in Japanese. Instantaneous verbs do not have an extended process so that their process cannot be viewed as on-going activity.

(Mongolian)

(62) *Bat suu-j bai-na.*

Bat sit-Conn be-Npast

- (a) 'Bat is in the process of sitting down.'
- (b) 'Bat is in the state of having sat down.'

(63) *Bat boso-j bai-na.*

Bat stand-Conn be-Npast

- (a) 'Bat is in the process of standing up.'
- (b) 'Bat is in the state of having stood up.'

Examples (60-63) show that the Japanese and the Mongolian progressives are ambiguous with telic intransitive verbs. But once again we can observe different preference in their interpretation. The progressive with telic intransitive verbs in Japanese is biased toward the resultative reading while that in Mongolian looks neutral, if not biased toward the progressive reading.

The Progressives of the three languages seem to show constant bias in their interpretation. While Mongolian prefers the progressive reading and Japanese the resultative reading, Korean seems to be located somewhere in the middle.

(64) Semantic inclination of the Progressives in the three languages



The following examples look to be diagnostic. While the Mongolian verb *ux-* 'to die' only has the on-going interpretation in the Progressive, its Japanese counterpart *shin-* 'to die' only has the resultative reading in the Progressive. Its

Korean counterpart *cwuk-* 'to die' cannot be used in the Progressive form.

(65) a. *Bat iixe-j bač -na.*

Bat die-Conn be-Npast

'Bat is dying.'

b. *Taroo-ga shin-de i-ru.*

Taroo-Nom die-Conn be-Pres

'Taroo is in the state of having died.'

c. **Jinwoo-ka cwuk-ko iss-ta.*

Jinwoo-Nom die-Conn be-Decl

The reason why Korean progressive with telic intransitive verbs exclude the resultative interpretation may be sought in the existence of the Resultative *-e iss-* form. With intransitive verbs a resultative state is expressed by the *-e iss- form* in Korean, while an on-going process is expressed by the *-ko iss-* form. But this does not seem to be sustainable as a universal explanation. Mongolian has a separate resultative form *-eed bač -* in addition to the progressive *-j bač -* but its Progressive form still shows ambiguity with telic intransitive verbs.⁵

It is observed in this section that the ambiguity in the Progressive is not restricted to Korean. The Japanese and Mongolian Progressive forms also show similar ambiguity. It seems that the distinction of transitivity is not relevant to the

⁵ The Mongolian *-eed bač -* form indicates a resultative or a continuous meaning (Jaemog Song 2002).

(a) *Bat suu-(g)aad bač-na,*

Bat sit-Conn be-Npast

'Bat has sat down, (Bat is in the state of having sat down,)'

'Bat keeps sitting down.'

(b) *Bat end ir-eed bač-na,*

Bat here come-Conn be-Npast

'Bat has come here, (Dorj is in the state of having come here,)'

'Bat keeps coming here.'

mechanism producing the semantic ambiguity across languages. While Korean only shows the ambiguity with transitive verbs, the ambiguity is not restricted to transitive verbs in Japanese and Mongolian. Telic intransitive verbs show the same ambiguity in the Japanese and the Mongolian Progressives as well. Only the distinction of telicity remains relevant in the three languages.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elicity behaves as a salient property in producing ambiguity with the Progressive forms. While atelic verbs encode processes which are homogeneous, telic verbs have two different stages: process and goal. This heterogeneity of telic verbs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the ambiguity to occur. The speaker may focus his/her attention on the process stage or the goal stage. If the process stage is focused, it produces the progressive reading. If the goal stage is focused, it produces the resultative reading. Why, then, does transitivity look to play such an important role in producing ambiguity in the Korean Progressive? We argue that it is no more than an accidental or at best language specific property in Korean.

3.2. Reflexivity

It is pointed out in section (3.1) that telic transitive verbs are ambiguous in the Korean Progressive. However, not all telic transitive verbs produce ambiguity in the Korean Progressive. There are some telic transitive verbs that do not show ambiguity in the Progressive.

(Korean)

(66) *Jinwoo-ka cip-ul cis-ko iss-ta.*

Jinwoo-Nom house-Acc build-Conn be-Decl

'Jinwoo is building a house.'

- (67) *Jinwoo-ka keli-lul kerne-ko iss-ta.*

Jinwoo-Nom street-Acc cross-Conn be-Decl

'Jinwoo is crossing the street.'

Without regard to transitivity, telic verbs exhibit ambiguity in the Japanese and the Mongolian Progressive forms. But some telic verbs do not show the ambiguity in the two languages, as shown in (68-71).

(Japanese)

- (68) *Taroo-ga ie-o tate-te i-ru.*

Taroo- Nom house-Acc build-Conn be-Pres

'Taroo is building a house.'

- (69) *Taroo-ga to-o ake-te i-ru.*

Taroo-Nom door-Acc open-Conn be-Pres

'Taroo is opening the door.'

(Mongolian)

- (70) *Bat bačin(g)-oo bari-j bai -na.*

Bat house-Refl build-Conn be-Npast

'Bat is building his house.'

- (71) *Bat gudamj-ičg gatal-j bai -na.*

Bat street-Acc cross-Conn be-Npast

'Bat is crossing the street.'

Our assumption is that the semantic ambiguity between the progressive

meaning and the resultative meaning arises due not only to the telicity but also to the reflexivity of the verbs. In the above examples of the three languages that show ambiguity in the Progressives, the action taken by the person denoted by the subject NP is always directed toward the same person so that the person obtains a new state through the event. We propose that the verbs that produce ambiguity in the Progressives of the three languages need to satisfy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72) Conditions for the semantic ambiguity of the Progressive form

- (i) Telicity condition: the event denoted by the verb should have separate stages of process (action) and goal.
- (ii) Reflexivity condition: the entity denoted by the subject NP obtains a new state as a result of an action taken by the same entity or a process the same entity undergoes.

Progressive markers focus the action or the state of the subject. When the verb is active and expresses the subject's action, the progressive marker has the meaning of on-going activity. When the predicate describes the state of the subject, the progressive marker denotes the continuation of the state. Therefore, when the predicate has the property of telicity, there is a possibility of ambiguity in the progressive. The speaker may focus on the process or the goal. However, when the new state obtained through the process brings on a change in the patient of the action (the object) rather than the agent (the subject), one cannot highlight the resultant state of the patient in the progressive. Progressive focuses the agent (the subject) rather than the patient (the object) of the sentence. This is why telic non-reflexive verbs do not show ambiguity in the progressive.

On the contrary, the process of the telic reflexive verbs brings changes on the agent itself. The agent comes to a new state through the event. Here we see the possibility that the speaker can focus on the action of the agent (progressive reading) or the resultant state that the agent comes to obtain through the action (resultative reading).

This assumption provides a good account for why some telic transitive progressive constructions are semantically ambiguous as in examples (36-43, and 60-63) while some are not as in examples (66-71). What is described in (66-71) is that the entity denoted by the direct object obtains a new state as a result of an action by the entity denoted by the subject. These sentences meet only telicity condition but not the condition of semantic reflexivity. On the other hand, examples (36-43, and 60-63) meet not only the telicity condition but also the condition of semantic reflexivity since these sentences entail that the action taken by the person denoted by the subject NP is directed to the same person so that the person obtains a new state. This is why they are ambiguous. Not only in Korean but in Japanese and Mongolian, the sentences that allow the two interpretations are those meeting the two conditions, i.e. telicity condition and reflexivity condition although the three languages show language specific preference to one of the two interpretations.

4. Conclusion

In this paper we discussed semantic functions of the Progressive constructions in Korean, Japanese, and Mongolian. It is observed that they mainly express the progressive meaning, though they can express other aspectual meanings such as resultative, habitual, iterative, or perfect.

It is pointed out that the progressive constructions in the three languages are ambiguous between the progressive reading and the resultative reading if they meet the conditions of telicity and reflexivity.

When the progressive forms in the three languages show the semantic ambiguity, Japanese is constantly biased toward resultative interpretation in comparison with Korean and Mongolian.

Bibliography

- Chafe (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ng Suk-Jin (1973) Sisang-uy yangsang: [Kyesok], [wanlyol-uy sayngsengcek kochal (Some Aspects of Aspect: Duration and Completion), *Language Research* 9-2,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pp. 58~72. (in Korean)
- Comrie (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Nam-Kil (1990) Types of Resultative in Korean, *Korean Language Education* 2.
- Kim, Seok-Deuk (1992) *Wulimal hyengthaylon* (Korean Morphology), Seoul: Tower Press. (in Korean)
- Kim, Young-Tae (1997) *Hyentay-kwuke poco-yongen yerkwu* (A Study on Auxiliary verbs in Modern Korean), Seoul: Mwunchangsa, pp. 86~91. (in Korean)
- Kindaichi, Haruhiko (1950). Kokugo dooshi no ichibunrui [A classification of Japanese verbs]. *Kokugo Kenkyuu*, 15, pp. 48~65. Reprinted in H. Kindaichi (ed.), (1976), *Nihongo Dooshi no Asupekuto* [Aspect in Japanese verbs], pp. 5~26. Tokyo: Mugi Shobou. (in Japanese)
- _____(1976) *Nihongo doushino asupekuto* (Aspects of Japanese Verbs), Tokyo: Mugi Shyobou. (in Japanese)
- Kudou, Mayumi (1995) *Asupekuto, tensu taikei-to tekusuto - gendai nihongo-no jikan-no hyougen* (Aspect, Tense and Text- Temporal Expression of Current Japanese), Tokyo: Hitsuji Shyobou. (in Japanese)
- Lee, Hyo Sang (1991) Tense, aspect, and modality: a discourse-pragmatic analysis of verbal affixes in Korea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ishik (1977) Orčin üyeiñ mongol bičgiñ xelniñ dadlagiñ xel züñ (Experienced Grammar of Current Written Mongolian), Ulaanbaatar: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in Mongolian)
- Ogihara, Toshiyuki. (1999). Tense and Aspect. In N. Tsujimura (ed.), *The Handbook of Japanese Linguistics*. pp. 326~348.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 Okuda, Y. (1977). Asupekuto no kenkyuu o megutte - Kindaichi teki dankai [On the study of aspect - the Kindaichi stage]. *Miyagi Kyōiku Daigaku Kokugo Kokubun* 8. Reprinted in Y. Okuda (1984), *Kotoba no Kenkyuu Josetsu*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Language](pp.85~143). Tokyo: Mugi Shoboo. (in Japanese)
- Park, Deok-Yu (1998) *Kwuke-uy tongsasang yenkwu* (Aspects of Korean Verbs), Seoul: Hankwukmwunhwasa. (in Korean)
- Poppe, N. (1970) Mongolian language handbook, Washington: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Smith, Carlota S. (1983) A theory of aspectual choice, *Language* 59-3, pp. 479~501.
- _____. (1991)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Boston and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on, Se-Mo-Dol (1996) *Kwuke poco-yongen yenkwu* (A Study on Korean Auxiliary Verbs), Seoul: Hankwukmwunhwasa. (in Korean)
- Song, Jae-mog (1995) Progressives in Korean and Khalkha Mongolia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 Phonetics* 5, SOAS, University of London, pp. 251~270.
- _____. (2002). Korean -e iss- and Mongolian -eed bañ-,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ltaic Studies, August pp. 17~18, Central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Peking.
- Street, John (1963) *Khalkha Structure*, Uralic and Altaic Series 24,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 Suh, Cheong Soo (1996) *Kwuke mwunpep* (Korean Grammar), Seoul: Hanyang University Press. (in Korean)
- Teramura, Hideo (1984) *Nihongo-no shintakusu-to imi* (Syntax and Meaning of Japanese) vol. II, Tokyo: Kuroshio Shyuppan. (in Japanese)
- Washio, R. & K. Mihara. (1997). *Voisu to Asupekuto*. Tokyo: Kenkyuushya Shyuppan. (in Japanese)
- Yang, In-Seok (1977) Progressive and Perfective Aspects in Korean, *Linguistic Journal of Korea* 2-1,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pp. 25~40.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 10 호

유럽
Europe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피동문의 특성과 한국어

연재훈

런던대학교 한국학과

1. 머리말

언어 유형론적으로 여러 언어에서 참으로 다양한 구문들이 ‘피동’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넓게는 ‘주어’라는 문법관계가 ‘동작주’라는 의미 역할을 표상하지 않는 구문이면 모두 넓은 의미의 피동 구문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어가 아닌 문법관계 — 전형적으로는 목적어 — 를 주어 자리로 상승시키고 원래의 주어는 주어 자리를 이탈하여 사격보어의 자리로 하강하거나 삭제되는 문법관계 교체 구문을 ‘피동문’이라고 기술해 왔다. 그리하여 피동문의 두 가지 기본적 기능은 ‘수동자(undergoer)’의 문법관계 상승과 ‘능동자(actor)’의 문법관계 하강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능동자’와 ‘수동자’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의 의미역할로서, 능동자는 전형적인 ‘동작주(agent)’ 뿐만 아니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다양한 의미역할을 포괄하고, 수동자는 전형적인 ‘피동주(patient)’ 뿐만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다양한 의미역할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¹

¹ 능동자(actor)와 수동자(undergoer)라는 개념은 Foley & Van Valin(1984)의 술어인데, 자세한 것은 Foley & Van Valin(1984)을 참고할 것.

이 글에서는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피동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살펴보고, 피동문을 원형이론적 관점에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피동문의 유형을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분류한 다음, 한국어 피동문의 특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피동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²

초기의 변형 문법이나 관계 문법에서는 피동문을 대응하는 능동문에서 상승 절 차나 하강 절차를 통해 도출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언어학자는 상승(promotion)을 피동문의 일차적 중요 속성으로 본 반면, 어떤 학자는 하강(demotion)을 더 중요한 속성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비인칭 피동문(impersonal passive)과 같은 구문을 설명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Siewierska 1984). 다른 변수들을 제쳐 놓고 상승이냐 하강이냐의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피동문을 분석함에 있어서 하강 쪽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것이 적어도 비인칭 피동문을 설명함에 있어서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비인칭 피동문의 존재 이외에도 피동문의 하강 분석을 지지해주는 예가 있다. 어떤 언어에서는 피동문에서도 능동문의 목적어가 그대로 대격표지를 갖고 남아 있는 예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목적어의 상승 교체라는 설명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예들이다. 예를 들면, Foley & Van Valin(1984)의 “배경 피동(backgrounding passives)”³이라는 것이 그러한 예인데, 이러한 구문들은 수동자를 상승시키지 않고 능동자만을 하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문들이다. 능동자는 보통 사격 명사구로 나타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예로 민주통구스어의 일종인 올

2 피동문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원형이론적 정의는 연재훈(2005)에도 정리, 발표된 바 있다.

3 Foley & Van Valin (1984)에 의하면, 피동문은 그 기능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Backgrounding passives are those which remove the actor from the core argument of the structure, either presenting it as an oblique NP or suppressing it entirely. Foregrounding passives are those which present non-actor arguments as pivots.” 문장의 축(pivots)이라는 개념과 ‘foregrounding passives’, ‘backgrounding passives’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Foley & Van Valin (1984: 108~186)을 참고할 것.

차Ulcha를 들 수 있는데, 피동 형태소가 나타나는 피동문에서는 능동자가 문장에서 제거되는 것이 능동문과 다를 뿐,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Foley & Van Valin 1984: 155).

- (1) Ti du:se - we ho:n - da ta - wuri,
Dem tiger - Acc how - Q do - Pass
“What's to be done about that tiger?”

(1)에서 보는 것처럼 피동문에 행위자는 나타나지 않지만, 피행위자는 대격표지를 유지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비슷한 경우를 또 다른 만주 - 퉁구스어의 하나인 나나이어Nanai와 (Foley & Van Valin 1984) 핀란드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Comrie 1977):

- (2) a. Nanai: Ej daNsa - wa tej erincie xola - o - xan bicin.
Dem book - Acc Dem time read - Pass - Past Aux (past)
“The book had already been read by that time.”

- b. Finnish: H n - et j tettiin kotiin.
3sg - Acc was left at home
“He was left at home.”

(2)에서도 피동문에 능동자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동자는 능동문에서 와 같은 대격표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통사적 상승이나 하강이라는 개념은 너무 제한적이라서 여러 언어에서 ‘피동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구문들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피동문을 능동문 목적어의 상승이나 대용하는 능동문으로부터의 파생으로 보는 접근은 자동문의 피동 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약점을 갖는다. 또한, 이

접근 방법은 제한적이라서 피동문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구문들을 설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 보자. 먼저, 자동문의 피동이 여러 언어에서 관찰되는데, 이것은 목적어의 상승이나 능동문에서의 파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⁴

(3) a. Latin: Pugnabatur

“It was fought; There was some fighting.”

b. German: Hier wurde den ganzen Abend getanzt.

here was the whole evening danced

“There was dancing here throughout the evening.”

c. Welsh: Dannswyd gan y plant.

was danced by the children

“There was dancing by the children.”

d. Dutch: Er woorden daar huizen gebouwd

it became+3pl there houses built

“There were houses built there.”

(3)과 같이 여러 언어에서 관찰되는 자동문의 피동은 목적어의 상승이나 능동문에서의 파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구문도 피동문이라고 분석되었다.

⁴ 예문 (3)의 (a, b, c)는 Shibatani(1985: 834)에서 인용한 것이고, 예문 (d)는 Foley & Van Valin(1984: 325)에서 인용한 것이다.

- (4) Der Tisch ist gedeckt,
the table is covered
“The table is laid/covered.”

독일어 문장 (4)는 행위가 아닌 상태를 기술하는 표현으로서, 다음 문장 (5)은 (4)에 대응하는 능동문의 짙이 될 수 없다.

- (5) Maria deckte den Tisch,
cover:Past the table
“Maria laid the table.”

일본어의 소위 간접 피동문도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좋은 예가 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Siewierska 1984: 157).

- (6) Taroo ga niwaka-ame ni hur-are-te komatte ita node
Nom sudden-rain Dat fall-Pass trouble
“As it rained suddenly and Taro was in trouble……”

피동문 (6)이 능동문 (7a)나 (7b)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 다 비문법적인 문장이기 때문이다.

- (7) a. *Niwaka-ame ga Taroo ni/o hut-ta.
sudden-rain Nom Dat/Acc fall-Past
“A sudden shower fell to Taro.”

- b. *Taroo no niwaka-ame ga hut-ta.

Gen sudden-rain Nom fall-Past

“Taro’s sudden shower fell.”

사실은 문장 (6)과 관련을 맺고 있는 능동문은 (7c)이다.

(7) c. Niwaka - ame ga hut - ta.

sudden rain Nom fall-Past

“A sudden shower fell.”

간접 피동 (6)은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능동문 (7c)에 비해 명시구 논항의 숫자가 하나 증가했다는 점에서 일반적 피동과는 대조적이다. 일반적 피동문은 능동문에 비해 논항의 숫자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문들은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예가 된다(K. Lee 1993, 이익섭, 임홍빈 1983).

(8) a. 날씨가 풀리었다.

b. *(하늘이) 날씨를 풀었다.

(9) a. 요즘 일이 꾀인다.

b. *요즘 (귀신이) 일을 꼴다.

위 (a)의 문장들은 형태적으로 피동 접사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쓰였지만 그에 대응하는 능동 구문을 상정할 수 없다. (b)와 같은 가상적인 능동문을 설정하더라도 주어 자리에 올 만한 마땅한 주체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동 구문에 쓰인 동사의 의미가 능동문의 동사와 의미상 진리값을 같이 하지 않는다. “풀리다”와 “꼬인다”는 대응하는 “풀다”나 “꼬다”에 비해 더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피동문을 대응하는 능동문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지 않고 한 문장의 의미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할 수도 있다. 보통 능동문이라는 것은 문장의 주어가 행위자를 표시하기 위한 기체인 데 비해서 피동문은 행위자가 문장의 주어로 표시되지 않는 구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통사 충위와 의미 충위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내리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두 충위의 위계(hierarchy)가 일치하는 구문 – 즉, 행위자는 문장의 주어와 피행위자는 문장의 목적어, 그리고 수혜자는 간접 목적어와 일치하는, 등등 – 이 정의상 기본적(무표적)인 능동문이다. 반면에, 피동문은 두 위계가 일치하지 않는, 좀 더 자세히 말해서 행동주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는 구문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는 피동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동사의 형태론이나 피동 조동사의 존재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은 정의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10) a. Il vend la maison.

“He is selling the house.”

b. On vend la maison.

“One is selling the house.” More idiomatically: “The house is being sold.”

두 구문이 모두 동일한 동사형 ‘vend’를 갖고 있지만, Khrakovskiy(1973)는 (10b)의 주어 ‘On’을 ‘의미론적으로 공허한 요소(semantically empty dummy element)’라고 보고 이 구문을 피동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10b)는 비인칭 구문이나 비한정 구문으로 분류되는 능동 구문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구문들을 피동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동문을 정의할 때, 동사의 형태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통사적 관점이나 의미적 관점에서 피동 구문을 분석해옴으로써 우리는 피동 구

문의 형태론적 중요성을 간파해온 듯한 느낌이 있다. 우리는 아무런 형태론적 표시도 없는데, 어떤 구문을 피동문으로 분석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를 우선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피동 구문이라 하는 것은 피동 형태소나 동사구 내의 피동 표시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⁵ 동사의 형태를 중요하게 따지지 않으면 주제화 구문도 피동 구문과 구별해 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나일로 사하라 언어Nilo-Saharan language인 Lango라는 언어에서 인용한 것이다(Foley & Van Valin 1984: 160~1).

(11) a. Dako o-jwat-o loca.

woman 3sgAgt-hit-3sgPat man

“The woman hit the man.”

b. Loca dako o-jwat-o.

man woman 3sgAgt-hit-3sgPat

“The man was hit by the woman.”

위 예문은 Foley & Van Valin(1984)에는 피동문의 한 예로 제시된 것이지만, 수동자 논항이 능동자 논항 앞에 놓임으로써 자리 바꿈을 한 것 이외에는 피동이라고 분석할 만한 동사의 형태론적 차이나 격표지의 교체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단지 수동자가 주제화된 구문의 모습을 하고 있다. 피동문을 분석함에 있어서 통사/의미적 고려 이외에 형태론적 고려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려움에 부딪치게 됨을 알 수 있다.

⁵ 이외는 대조적으로 형태를 중요시하지 않고 의미사전구조를 한국어 피동문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분석한 Stefan Knoob(2002)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3. 원형이론적(전형적) 접근

여러 언어에서 “**파동문**”이라고 간주되어온 다양한 구문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것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만한 일정한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움을 알게 된다. 물론 형태적 기준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중국어에서와 같이 동사 자체는 아무런 형태 변화 없이 파동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 형태적 기준이라는 것도 다양한 구문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 유형론적으로 다양한 파동 구문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Shibatani(1985)에 의해 제안된 전형적 접근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12) Characterization of the passive prototype:

- a. Primary pragmatic function: defocusing of agent
- b. Semantic properties:
 - (i) Semantic valence: Predicate (agent, patient)
 - (ii) The subject is affected
- c. Syntactic properties:
 - (i) Syntactic encoding: agent → (not encoded) or Oblique
patient → subject
 - (ii) Valence of P[predicate]: Active = P/n

$$\text{Passive} = P/n-1$$

d. Morphological property:

$$\text{Active} = P;$$

$$\text{Passive} = P [+passive]$$

이 전형적 접근 방법은 범언어적으로 ‘**파동문**’이라고 기술되어온 매우 다양한 구문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고, 전형적 파동문과 파동의 성질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유사 피동문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유사 피동문들이 가지고 있는 피동적인 특성을 전형성과 정도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형적 피동문의 중요한 화용론적 특성은 ‘행위자의 하강’ 인데, 자동사 문의 피동은 전형적 피동문은 아니지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동 문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Shibatani 1985: 837).

많은 언어에서 피동을 표시하는 형태(소)들이 피동을 표시하는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귀구문(reflexive), 상호구문(reciprocal), 반사동구문(anticausative), 가능 피동구문(potential passive) 등을 표시하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는 경우가 많다(cf. Langacker and Munro 1975, Shibatani 1985). 다른 동사 문법범주들이 상호 관련된 다양한 가능(예: 시제, 상, 양태 등)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피동 형태소도 전형적 피동의 가능 이외에 관련된 다른 가능을 표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많은 언어들에서 피동문이 재귀 구문(reflexives)이나 상호 구문(reciprocals)과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피동문/재귀구문/상호구문 사이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은 예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hibatani 1985 : 826).

(13) Spanish:

a. Se curo a los brujos.

REFL cured-3sg. Dat the sorcerers

“The sorcerers were cured.”

b. Se curaron los brujos.

REFL cured-3pl the sorcerers

“The sorcerers cured themselves.”

c. Juan y Maria se vieron en la calle.

J and M REFL saw-3pl in the street

"John and Mary saw each other in the street."

(14) Russian:

a. Okno moetsja rabochim

window wash,REFL workman-Inst

"The window is being washed by the workman."

b. Ivan moetsja mylom.

Ivan wash,REFL soap-Inst

"Ivan is washing himself with soap."

c. My s nim biliš'

we with him hit-pl-REFL

"He and I hit each other."

위의 예문에서는 동일한 형태소가 피동, 재귀, 상호 의미를 각각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상의 전이는 문법적 주어가 모두 ‘영향을 받는 요소(피영향자: affected entity)’라는 의미적 공통성에 연유하고 있다. 피동문의 주어는 행위자에 의해 – 그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 재귀 구문의 주어는 주어 자신에 의해, 상호 구문의 주어는 그 상대방에 의해 각각 영향을 입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파동성은 또한 자발성이나 가능성과도 밀접한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자발적 사건이나 상태(spontaneous events or states)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행위주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자발적 사건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구문은 행위주를 하강시킨다는 점에서 피동문과 공통점

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피동문의 화용론적 특징으로 행위주의 하장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점에서 피동문은 자발적 사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언어에서 피동을 표시하는 형태가 자발적 사건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데도 사용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Shibatani 1985 : 827).

(15) Spanish:

a. Se abrio la puerta.

REFL open-3sg the door

“The door opened.”

b. Se ven las montanas.

REFL see-3pl the mountains

“The mountains are visible.”

(16) French: La porte s'est ouverte.

the door REFL-is opened

“The door opened.”

(17) Russian: Lekcija nachalas'

lecture began-REFL

“The lecture began.”

(18) Japanese: mukasi - ga sinob - are - ru.

old time-Nom think about-Pass-Pres

“An old time comes (spontaneously) to mind.”

위 예문들에서 보면, 재귀 동사를 표시하는 형태가 자발적 사건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형태들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또한 피동 구문을 표시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형태들인 것이다. 따라서 기능적 관점에서 피동 문은 자발적 사건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구문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도 피동을 나타내는 형태가 의미적으로 자발적 사건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구문과 관련성을 갖는 예를 다음에서 볼 수 있다.

(19) 가. 문이 (저절로) 열렸다.

나. 산이 보인다.

다. 유리가 깨졌다.

(19가)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고, (19나)는 산이 보여서 이제 산을 볼 수 있다는 가능의 의미(The mountain is visible)로, 그리고 (19다)는 유리가 행위자의 개입 없이 저절로 깨졌다는 의미를 강하게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피동문과 자발성/가능성 사이의 기능적/의미적 연관성을 한국어의 예문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자발적 사건/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이 가능 구문이다. 다음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언어에서 피동과 가능 구문의 형태는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20) Hindi (Shibatani 1985 : 828):

larke se cal - aa nahii ga - yaa.

boy Inst walk-PPL Neg Pass-Past

“The boy was not able to walk.”

(21) Turkish (Davison 1980:60):

Cevap yaz - mak icin kagit - la kalem kullan - il - ir.
answer write-Inf for paper-and pen use-Pass-Pres
“Paper and pencil may be used to write the answer.”

(22) Russian: Detjam ne spitsja.

children-Dat Neg sleep-REFL
“The children cannot get to sleep.”

(23) Spanish (Shibatani 1985: 828):

?Se va por aqui a la estacion?
REFL go via here to the station
“Can one go to the station from here?”

(24) Japanese: Boku-wa nemur-are-nakat-ta.

I Top sleep-Pass-Neg-Past
“I could not sleep.”

피동성과 가능성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은 한국어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가능성의 의미는 통사적 피동구문의 경우에도 잘 발견된다. 이 경우, 피동 동사의 의미는 영어로 번역할 경우, 종종 피동사로 보다는 가능의 의미로 옮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25) a. 이것은 연해서 잘 씹힌다/씹어진다.

b. 이것이 저것보다 더 잘 닦인다/닦아진다.

c. 이 문이 (잘) 열리니/열어지니?

d. 이 책은 비교적 잘 읽힌다/읽어진다.

또 많은 언어에서 가능의 의미는 부정문의 경우에 더 잘 드러나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국어의 피동 구문이 부정형으로 쓰이면 종종 가능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 다음 예문을 보자.

(26) a. 이것은 딱딱해서 잘 안 씹힌다.

b. 눈 앞의 사실인데도 잘 안 믿긴다.

c. 어릴 때 그 일이 지금도 안 잊힌다.

d. 이 문은 잘 안 닫긴다.

e. 네 말이 잘 안 들린다.

위 예문들은 가능의 의미를 보여주는데, (26)의 파생적 피동문들은 모두 (27)과 같이 통사적 피동문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가능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7) 가. 이것은 딱딱해서 잘 씹어지지 않는다.

나. 눈 앞의 사실인데도 믿어지지 않는다.

다. 어릴 때 그 일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다.

라. 이 문은 잘 안 닫아진다.

부정형과 함께 쓰인 통사적 피동문 (27)은 파생적 피동문보다도 가능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주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파생적 피동문의 일부가 자발적 사건의 의미를, 그리고 통사적 피동문의 일부가 가능의 의미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유정성의 정도가 능동과 피동의 선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4. 피동문의 유형

피동문의 유형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Siewierska 1984).

- 가. 형태 – 통사적 특성에 따라: 파생적(형태적) 피동과 분석적(통사적) 피동
- 나. 상태를 표시하느냐, 행위를 표시하느냐 하는 의미적 기준에 따라: 상태 피동
과 과정 피동
- 다. 행위자 명사구가 피동문에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위자 있는 피
동과 행위자 없는 피동

한국어에는 형태통사적 속성에 따라 파생적(형태적) 피동과 분석적(통사적) 피동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파생적 피동문은 피동접사가 사용된 것인데, 한국어의 파생적 피동은 일본어나 티어키어만큼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에 반하여 통사적 피동은 아주 생산적인데, 이것은 동사 어간에 피동 조동사를 첨가하여 만들어진다. 이 외에 어떤 학자들은 소위 어휘적 피동을 제3의 유형으로 첨가하기도 한다. 손호민(Sohn Ho-min 1994: 304~6)도 그 중 하나인데, 그는 어휘적 피동도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피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어휘적 피동의 동사는 능동 동사와 형태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동사이다.

(28) 가. 순이가 영수를 때리/치 – 었다.

나. 영수가 순이에게 맞았다.

(28나)에는 피동을 표시하는 형태가 아무것도 없다. 어휘적 피동의 또 다른 예들은 합성동사를 포함하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동작성 명사 – 당하다/받다/되다’에 의해 피동이 실현된다. 다음 문장들이 그 예이다.

(29) 가. 영수가 순이를 협박한다.

나. 순이가 영수에게 협박당한다.

(30) 가. 순이가 선생님을 존경한다.

나. 선생님이 순이에게 존경받는다.

(31) 가. 피카소가 작품을 완성하였다.

나. 작품이 완성되었다.

위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 ‘하 –’ 를 ‘당하 –, 받 –, 되 –’로 대치함으로써 피동의 의미를 얻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휘적 피동을 피동의 실현으로 보지 않는다. 동사 ‘당하다, 받다, 되다’ 등은 독립된 개별 어휘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피동의 의미는 어휘 자체의 의미이고, 피동을 표시하는 아무 형태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구분들도 피동문으로 간주한다면 다음의 영어 예문들도 피동문으로 분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많은 문장들이 단순히 의미 때문에 피동문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32) a. We suffered huge losses.

b. He receives insults.

(32)의 예문들이 실제로 주어가 영향을 입는다는 피동의 의미적 속성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동사 자체의 의미로서, 피동을 표현하는 형태에 일차적 중요성을 두는 우리는 이것을 피동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피동문은 형태통사적 특성 이외에도 의미적 기준이나 행위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는데, 다음에서는 우선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에 대해 살펴본 후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피동문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4.1. 파생적 피동

범언어적으로 파생적 피동은 피동을 표시하는 가장 일반적 방법인데, 특히 인구어를 제외한 많은 언어들에서 이 파생적 피동법이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파생적 피동은 보통 접미사에 의해서 실현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Haspelmath (1990)가 조사한 언어 목록 중에서 파생법으로 피동을 실현시키는 언어가 21개인데, 이 중 14개가 접미사에 의해, 6개가 접두사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한 언어 (Kanuri)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가 모두 사용되는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이 외에도 Tagalog말의 피동은 접조사(infix)에 의해서, 그리고 히브리말은 내적 모음교체(internal vowel change)에 의해 피동법이 실현되는데, 이것은 셈족 언어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한다(Keenan 1985: 251 이하 참고).

한국어의 파생적 피동법은 피동 접미사를 동사어근에 첨가하여 만들어지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산적이지 못하다.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지금보다 파생적 피동형이 생산적이었던 것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현대로 오면서 파생적 피동이 통사적 피동으로 대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권재일 1998 참고). 현대 한국어에서 피동접미사는 ‘-이, -히, -리, -기’의 넷인데, 이를 접미사의 음운론적 분포 환경은 아직은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음운론적인 조건만은 아니기 때문이다(Yeon 2003: Ch 6 참고).

4.2. 분석적(통사적) 피동과 피동조동사 ‘-지다’

범언어적으로 통사적 피동형은 조동사와 타동사의 분사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유형은 특히 인구어에서 아주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슬라브 언어에서는 ‘be’ 동사와 동사의 과거분사형의 조합으로 영어의 피동과 같은 분석적 피동을 형성한다(Siewierska 1988: 245).

- (33) a. Russian: Konservacia byla zakončena rabotnikami
conservation:Nom was finish:Past,Participle workmen:Inst.
“The conservation (works) have been finished by the workmen.”

- b. Bulgarian: L' v' t bese zatvoren ot horatta
lion:Nom was lock up:Ppt by people
“The lion was locked up by the people.”

일반적으로 피동문에 사용되는 조동사는 자연부류(natural class)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논의와 예는 Keenan(1985: 257ff) 참고). 예를 들면,

- 가) 피동 조동사가 'being'이나 'becoming'의 의미를 갖는 언어: 독일어, 페르시아어
나) 피동 조동사가 'get'이나 'receive'의 의미를 갖는 언어: 웨일즈어, 싱할리즈(Sinhalese)
다) 피동 조동사가 'go'나 'come'의 의미를 갖는 언어: 힌디어, 페르시아어
라) 피동 조동사가 'suffer'나 'touch'의 의미를 갖는 언어: 태국어, 베트남어

한국어의 피동 조동사로 쓰이는 '-지다'는 역사적으로 동사 '디다'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원래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였다(배희임 1988: 112). 피동 조동사 '-지다'는 본동사 '지다'와 원래는 같은 동사였을 터인데, 본동사 '지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 이 여러 가지 쓰임에 공통된 의미는 상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Lee 1993: 109~110).

조동사 '-지다'가 타동사에 첨가되면, 동사의 는항수(자리수)에 변화가 온다. 타동사의 목적어는 '-지다' 합성 동사의 주어가 된다. 한국어의 거의 모든 타동사는 피동 조동사 '-지다'를 첨가함으로써 피동화한다. 파생적 피동이 생산적이지 않

기 때문에 생기는 피동의 공백을 통사적 피동이 메꿔주는 것이다.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살펴볼 것과 같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조동사로서 ‘-지다’는 상태동사(형용사)나 자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는데, 우선 형용사에 조동사 ‘-지다’가 결합된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상태동사인 형용사에 조동사 ‘-지다’가 결합하면 아래 예문에서처럼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고 이 경우 술어의 논항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34) 가. 그 물이 맑다.

나. 그 물이 맑아진다.

(35) 가. 그 방이 따뜻하다.

나. 그 방이 따뜻해진다.

(36) 가. 날씨가 흐리다.

나. 날씨가 흐려진다.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상태동사에 ‘-지다’가 첨가되면, 시작의 의미(기동상)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조동사 ‘-지다’가 자동사와 결합하면, ‘가능’의 양태를 표시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두 예문을 비교해 보자.

(37) 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서 잤다.

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서 자졌다.

(37나)는 많은 사람들이 방에서 잤다는 (37가)의 의미 이외에 화자가 생각하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그 방이 좁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화자는 그 방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는 비좁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수 있었다는 '가능'의 양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넓은'과 '좁은'이라는 수식어를 첨가해 보면, 위에서 말한 함축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다음 문장을 보자.

(37') 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방에서 자졌다.

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방에서 자졌다.

가능의 양태와 관련하여 (37 나)가 (37 가)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나)에서는 방이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조동사 '-지다'가 함축하는 가능의 의미와 잘 맞아 들어간다. 그 반면 (가)에서는 방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는 데 어떤 어려움이나 가능의 양태 같은 것이 함축되지 않는다. (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능동 구문이 훨씬 자연스럽다.

(37'')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방에서 잤다.

다음과 같은 '-지다' 구문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38) 가. 트럭이 빙판 위로 지나가졌다.

나. 함께 미니까차가 움직여졌다.

(38가)는 빙판이 얕거나 약해서 트럭을 지탱하지 못하거나 트럭이 빙판 위에서 바퀴가 헛돌아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화자의 예측을 함축하는데, 사실은 그 사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나)에서도 차를 움직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화자의 예측이 담겨 있으나 실제로 그 사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

다는 것을 합축하고 있다.

그럼 이제 자동사의 통사적 피동형이 전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피동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다음 예문을 보자.

(39) 가. 요즘 바빠서, 극장에 잘 안 가진다.

나. 힘을 빼면, 몸이 물에 며진다.

이런 유형의 구문들은 예문 (25~27)과 같이 '가능태'의 의미를 가진다. (39가)에서 주어는 문장 속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동사가 표시하는 행위나 사태를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없는 비의도적 주어로 이해된다. 여기서 주어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가 마치 사태 구조의 피동주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지다' 구문은 의도가 없는 상황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39나)의 구문도 사태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은 가능태를 표현하고 있다. 가능태라는 개념은 자연발생적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사에 '-지다'가 첨가되면, 사태가 자연발생적이거나 가능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동작주의 의미 역할이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동작주가 사태에 대해서 갖는 의도성의 기능이 상실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다' 구문은 피동태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장 (39)는 주어가 의도성을 갖지 못하고 사태에 영향을 입는 것처럼 해석된다는 관점에서 피동태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피동문의 원형이론적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이 구문은 동작주가 털초점화(defocused)했고, 피동문에서와 같은 형태론적 표지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피동문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조동사 '-지다'가 타동사에 첨가되어 전형적인 통사적 피동문을 형성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 타동사의 목적어는 '-지다' 합성동사의 주어가 된다. 즉 분석적 피동문의 문법관계 교체 행태는 파생적 피동의 그것과 같다.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의 차이는 4.3.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다음 예

문을 비교해보자.

(40) a. 영수가 나무로 집을 만들었다.

b. 집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41) a. 영수가 쓰레기를 길에 버렸다.

b. 쓰레기가 길에 버려졌다.

타동사 '만들다' 와 '버리다' 는 파생파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분석적 피동형이 사용된다. 행위자 명사구는 분석적 피동에서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위 예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파생적 피동에서는 행위자 명사구가 '-에게' 나 '-에 의해' 로 표시되는데, 분석적 피동에서는 '-에 의해' 로 표시 된다. 이제 분석적 피동구문이 함축하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 예문 을 보자:

(42) a. 사람들이 강물을 막았다.

b. 강물이 막아졌다.

능동문 (42a)는 단순히 사람들이 강물을 막았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42b)는 강물을 막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의도된 행위였다는 화자의 가정 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상의 함축이 조동사 '-지다' 가 가지 고 있는 가능태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적 차이는 파생적 피동과 분석적 피동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 더 확연하게 관찰할 수 있다. (42a)에서 타동사 '막다' 는 '막히다' 라는 파생파동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 발생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4.3.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동사 ‘-지다’는 모든 유형의 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동사 및 타동사에 결합하는 ‘-지다’의 의미로 가능태라는 의미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지다’가 상태동사 즉 형용사와 결합하면 기동상(indicative)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피동문과 의미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타동사와 결합된 분석적 피동형은 아주 생산적이고, 파생 피동형과 똑같은 문법관계 교체 현상을 보인다. 이제 파생적 피동과 분석적 피동의 차이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4.3.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의 차이

전통적으로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은 의미가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둘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⁶. 다음에서 우리는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의 의미 차이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먼저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가)는 파생적 피동이고 (나)는 통사적 피동의 예이다.

(43) 가. 하수구가 막혔다.

나. 하수구가 (드디어) 막아졌다.

(44) 가. 그 뜻이 뽑혔다.

나. 그 뜻이 (결국은) 뽑아졌다.

(43~44)에서와 같이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을 한 자리에서 대조시켜보면 우리는 그 의미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즉, (가)에 있는 파생적 피동은 사태가 자발적 또는 우연히 일어난 경우를 표시한다. 그 사태는 계획되었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

⁶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이기동(Lee K 1987, 1993)을 참고할 것. 우리의 논의도 Lee(1993)를 많이 참고하였다.

며, 행동주가 암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절로’ 같은 부사는 파생적 피동문과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지만, 통사적 피동문에 사용되면 어색해진다.

- (43') a. 하수구가 저절로 막혔다.
b. ?하수구가 저절로 막아졌다.

- (44') a. 그 뜻이 저절로 뽑혔다.
b. ?그 뜻이 저절로 뽑아졌다.

통사적 피동문은 자발적이 아닌 사태를 표시하므로 ‘저절로’ 같은 부사와 함께 쓰이면 이상해지는 것이다. 통사적 피동은 숨어 있는 행동주에 의해서 계획되었거나 의도된 사태를 표시하며 그 사태가 발생하는 데는 파생적 피동에 비해 일정량의 어려움이 존재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즉 (43나)는 예를 들면, 숨어 있는 행위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하수구가 막아졌고, 이 행위가 의도된 행위였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4나)도 마찬가지로 뜻을 뽑는 행위가 쉽지 않다는 암시와 결국 그것이 계획된 혹은 의도된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날씨의 변화와 같은 자연 현상, 우연한 지리적 환경이나, 인간 행위자가 관여하지 않은 자발적 사건 같은 것은 다음 예문에서처럼 파생적 피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45) a. 날씨가 풀렸다.
b. *날씨가 풀어졌다.
- (46) a. 서울이 산으로 둘러 쌓였다.
b. *서울이 산으로 둘러 쌓여졌다.

또한 지각현상(perception)과 같은 인지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에도 파생적 피동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지각현상은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고 의도가 있든 없든 보이고 들리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47) a. 큰 집이 보였다.

b. ?큰 집이 보아졌다.

(48) a. 피리 소리가 들렸다.

b. ?피리 소리가 들어졌다.

위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듣는 지각행위는 파생적 피동으로 쓰이면 자연스럽지만, 통사적 피동은 이상하게 들린다. 그렇지만 이러한 동사들도 의식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49) a. 내가 그 책을 두 시간 동안 보았다.

b. 내가 그 소리를 열심히 들었다.

위 예문에서는 두 경우 모두 동사가 의도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데 쓰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50)처럼 통사적 피동문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50) a. 그 책이 두 시간 동안 다 보아졌다.

b. 그 음악은 짧아서 십 분 동안 다 들어졌다.

이러한 통제할 수 있는 행위나 사태는 통사적 피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날씨나 자연 현상, 지각행위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사태나 행위들이 파생적 피동으로 표현되었던 것과 대조되는 사실이다. (50)과 같은 통사적 피동의 경우

에는 숨어 있는 행위자에 의해 그 사태가 의도되었고 그 결과를 성취하는 데 일정량의 어려움이 내재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통사적 피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태나 행위가 숨어 있는 행위자에게 바람직하거나 이로운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파생적 피동과는 대조되는 의미적 특성인데, 파생적 피동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이거나 우연히 발생한 사태를 표시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적 대조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의 자연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51) 가. 가시가 목에 걸렸다.

나. ?가시가 목에 걸어졌다.

(51가)의 파생적 피동은 자연스럽지만, (51나)의 통사적 피동은 부자연스럽다. 통사적 피동은 그 사태가 숨어 있는 행위자가 의도했거나 행위자에게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51나)와 같이 의도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묘사하기에는 부자연스럽다. 다시 말해, 아무도 가시가 목에 걸리기를 바라거나 의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통사적 피동을 사용한 (51나)가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52) 뱃줄이 높은 나무에 걸어졌다.

통사적 피동 (52)는 뱃줄을 높은 나무에 거는 것이 숨어 있는 행위자에 의해 여러 번 시도되었고 그것이 행위자가 원하는 행위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행위는 행위자에게 바람직한 행위일 것도 아울러 암시되고 있다. 다음 예문 (53)의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의 차이도 사태의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53) 가. 산사태가 나서 강물이 막혔다.

나. 일 년 동안의 공사로 강물을 막아졌다.

(53가)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강물이 막혔는데, 그것이 불리한 (혹은 적어도 중립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데 반해, (53나)는 강물을 막은 것이 의도되고 계획된 오랫동안의 공사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이루어진 사태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의 의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파생적 피동은 행위자가 보통 암시되지 않으면서⁷ 자발적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통사적 피동은 행위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도 숨어 있는 행위자가 암시되며 비자발적 사태, 즉 행위자에게 바람직한 사태가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일어난 경우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4.4. 결과 피동

피동문은 그것이 상태를 표시하는가 행위를 표시하는가에 따라 상태(결과)피동 (state passives or resultatives)과 과정피동(process passives)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의미적 기준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결과태와 피동태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결과의 의미와 피동의 의미를 포함하는 결과 피동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결과태’ 혹은 ‘결과상’ 이라는 말은 그 이전의 사태까지를 암시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따라서 ‘상태’ 와 ‘결과’ 라는 말의 차이는

⁷ 우리는 이 장에서 주로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켰다. 물론 파생적 피동에서도 행위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자발적 자연적 의미 해석이 사라지고 과정 피동의 의미가 생긴다.

⁸ The stative expresses a state of a thing without any implication of its origin, while the resultative expresses both a state and the preceding action it has resulted from,

Nedjalkov and Jaxontov(1988: 6)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상태란 어떤 사건의 이전 상태를 암시하지 않고 현재 상태만을 표현하는 것임에 비하여 결과는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초래한 이전 행위까지를 표현하는 것이다.⁸ 결과태는 원칙적으로 피동태와 다르다. 어떤 언어에서는 결과태와 피동태가 서로 다른 동사 형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타동사의 결과태는 전형적으로 그 타동사의 피동작주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 피동작주는 결과태 구문의 주어로 나타나고, 동작주는 삭제된다는 점에서 피동태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범언어적으로 결과태는 독자적인 동사 형태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범주와 같은 동사 형태를 공유하기도 한다. 결과태가 다른 범주와 형태를 공유하는 예로 피동태와 결과태가 같은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Nedjalkov and Jaxontov(1988: 47)에 따르면, 러시아어, 아랍어, 영어, 불어, 리투아니아어, 에벤키어 등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다음 영어와 독일어의 예문을 비교해 보자. 독일어에서는 피동태와 결과태의 형태가 다른 반면에, 영어에서는 똑같은 동사 형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4) a. When I came at five, the door was shut, but I do not know when it was shut.

b. Als ich um fuenf kam, war die Tuer geschlossen (resultative), aber ich weiss nicht, wann sie geschlossen wurde (past passive).

한국어에서도 결과태와 피동태는 다른 동사 형태를 사용한다. 한국어에서 결과태는 조동사 ‘-어 있다’에 의해 실현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55) 가. 영수가 앉아 있다.

나. 영수가 누워 있다.

결과 조동사 '있다'는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동사가 제약되어 있다. (56~57)를 보면, 어떤 자동사는 결과 조동사와 같이 쓰일 수 있는 반면, 어떤 조동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6) 가. 영수가 깨어 있다.

나. *영수가 자 있다.

(57) 가. 해가 떠 있다.

나. *해가 움직여 있다.

위 예문에 쓰인 동사들은 모두 행위 과정을 표시한다. 그러나 과정의 끝점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하위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끝점을 가진 과정을 표시하는 동사를 '완성(accomplishment) 동사'라 하고 끝점이 없는 과정을 표시하는 동사를 '행위 activity 동사'라 한다 (cf. Lee 1993). 동사 '깨다'와 '자다'를 비교해보면 동사 '깨다'는 결과태에 나타날 수 있지만 동사 '자다'는 나타날 수 없다. '깨다'라는 동사가 결과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 동사가 점으로부터 점으로 변화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깨는 순간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 이 시점에서 새로운 상태가 시작하는 것이다. '자다'라는 동사는 결과태에 나타날 수 없는데 이것은 이 동사가 어떤 변화나 끝점이 없는 지속적인 과정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아래에 자동사의 두 가지 부류를 분류해 보았다. (58가)는 끝점이 있는 자동사로 결과태에 사용될 수 있고 (58나)는 끝점이 없는 자동사로 결과태에 사용될 수 없다.

(58) 가. 끝점이 있는 동사

1) 위치의 변화: 앉다, 서다, 눕다, 일어나다, 구부리다 등

2) 상태의 변화: 폈다, 낫다, 크다, 지치다, 부풀다 등

나. 끝점이 없는 동사

웃다, 울다, 졸다, 놀다, 쉬다, 일하다, 떠들다 등

보통 피동태와 결과태의 공통점은 피동 주어가 비행동적이고 피동작주가 주어자리에 온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행위성 타동사는 결과태에 사용될 수 없는 반면 타동사의 피동형은 결과태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태라는 범주가 화자의 관점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능동문에서는 능동자가 화자의 관점이고 피동문에서는 수동자가 화자의 관점이다.

(59) 가. *영수가 문을 닫아 있다.

나. 문이 닫혀 있다.

(59나)와 같이 피동과 결과태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피동 결과태라고 부를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피동결과태와 과정피동 사이의 의미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60) 가. 문이 열려 있다.

나. 문이 열린다.

다. 순이가 문을 연다.

(60가)는 결과피동이고 (60나)는 과정피동 (60다)는 능동문이다. (60가)는 누군가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그리고 (60나)는 문이 열리고 있는 과정을 표현한다. 즉, 결과 피동은 피행위자의 관점에서 그것의 결과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고, 피동문은 숨어 있는 행위자에 의해 야기된 사건의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다. 결과 피동에서는 행위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결과 피동에서는 행위자 명사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 예문이 이것을 보여준다.

(61) *영수에게/에 의해 문이 열려 있다.

영어를 포함한 많은 언어에서 'by'로 표시되는 행위자 명사구는 결과 피동구문에서는 쓰이지 못한다. 그 반면에 'thanks to', 'due to'나 'on account of'와 같은 전치사구를 이용해서 행위자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Croft 1991: 248). 이것도 결과 피동에서는 행위자 명사구가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다.

그런데 결과 피동뿐만 아니라, 과정 피동문에서도 범언어적으로 행위자 명사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명시적으로 행위자를 표시해줄 수도 있지만, 행위자 명사구 없는 피동문이 통계적으로 훨씬 많다. Givon(1979: 58)은 문장 사용 빈도에 있어 피동문이 능동문에 비해 훨씬 적게 사용되고(4~18%), 피동문 중에서도 행위자 명사구 없는 피동문이 피동문 전체의 70~9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Shibatani(1985: 831)도 영어에서 약 80%의 피동문이 행위자 명사구 없는 피동문이고, 일본어 신문 잡지에서는 70~80%가, 일본 소설에서는 60~70%가 행위자 없는 피동문이라고 하였다.

한국어에서도 행위자 명사구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위자 명사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다. 더욱이 행위자 명사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62) 가. 영수가 실을 갑았다.

나. 실이 (*영수 –에게) 갑겼다.

(62나)에서는 피동문에 행위자가 나타날 수 없다. 만일 '-에게' 명사구가 피동문에 나타나면 이것은 행위자가 아니라 쳐소 명사구로 해석된다(Lee 1993).

(62) 다. 실이 영수에게 갑겼다.

어떤 양태 부사들은 의도성이 있는 행위자 주어가 있는 능동문에서는 사용되는

반면, 대응하는 피동문에서는 사용되지 못한다. 이것은 주어가 의도성이나 행위성이 없는 피행위자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63) 가. 영수가 실을 부지런히 감았다.

나. ? 실이 부지런히 감기었다.

(64) 가. 영수가 열심히 뜻을 박았다.

나. ? 뜻이 열심히 박혔다.

위 예문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등은 의도성 행위성 주어와 함께 쓰일 수 있는 의도성 부사이다. 이것은 보통 주어의 의도나 행위를 묘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문 (나)에서 주어는 의도성이나 행위성이 없는 수동자 주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동문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한국어의 피동문도 보통 행위자 명사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인물명사가 아닌 행위자 명사구(예를 들면, 자연현상이나, 천체, 또는 기계 등)는 피동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행위자 명사구가 인물명사가 아닌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자(N-K. Kim 1991: 40~41).

(65) 가. 바람에 (의해) 문이 열렸다.

나. *바람이 문을 열었다.

(66) 가. *영수에 의해 문이 열렸다.

나. 영수가 문을 열었다.

(67) 문이 열려 있다.

(65가)와 (66가)는 비인물 행위자 명사구만이 피동문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능동문인 (65나)와 (66나)에서는 인물명사 행위자만이 자연스럽다. 이 것은 한국어의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구가 유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우리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예문 (67)은 행위자 명사구가 생략된 결과 피동문인데, 이 문장은 숨어 있는 인물 행위자 명사구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⁹

5. 결론

한국어의 피동문은 보통 탈행동적인 의미 특성을 보인다. Haspelmath(1990: 26) 도 피동문의 기본적 의미 특성이 동사가 표현하는 사태를 탈행동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동이 탈행동성, 비행동성 혹은 상황의존적 표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이익섭, 임홍빈 1983: 202).

(68) 가. 철수는 뜻이 옷에 걸렸다.

나. 영수는 손에 뜻이 박혔다.

다. 날씨가 풀렸다.

(68가)는 ‘철수가 옷을 걸었다’는 표현과는 그 의미의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68가)는 흔히 ‘철수’가 조심성이 없어서 옷이 뜻에 걸리게 되었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태의 책임이 철수의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68나)도 ‘뜻’이 ‘굳은 살’을 뜻하는 경우 ‘영수가 손에 뜻을 박았다’를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어의 피동은 상황 의존성이나 비행동성의 표현을 그 주된 의미특성으로 가진다고 할 것이다. 피동화의 핵심은 능동 주어의 주어 자리 이탈과 능동사의 피동사화이다. 능동문의 주어가, 그 행동주성을

⁹ JKKim (1991: 41)에서는 예문 (65)와 (67)에서 보듯이 결과 피동의 행위자가 비인물명사이면 피동문에 나타나고, 인물명사이면 피동문에서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주어의 자리를 떠남으로써 피동에는 행동성보다는 비행동성이 강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형론적 관점에서 피동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살펴보고 한국어 피동문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피동문을 대응하는 능동문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비인칭 피동문을 비롯한 예외적 피동문을 설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언어 유형론적으로 다양한 피동 구문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으로 원형이론적(전형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동 구문이라고 하더라도 전형적 피동 구문이 있을 수 있고 멀 전형적이지만 피동 구문의 특성을 가지는 구문 등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문법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있고 없음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체(continuum)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차질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정도 차이라는 개념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전형적 접근 방법은 범언어적으로 ‘피동문’이라고 기술되어온 매우 다양한 구문들을 피동문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게 해주고, 전형적 피동문과 유사 피동문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즉, 피동문이 재귀구문이나 상호구문, 자발 구문, 가능 구문 등과 공유하는 상관성을 의미적 공통성이나 행위주의 하강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한국어 파생적 피동문의 일부가 자발적 사건의 의미를, 그리고 통사적 피동문의 일부가 가능한 의미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피동문의 유형을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파생적 피동과 분석적 피동의 차이와 그 특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 피동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조동사 ‘-지다’는 모든 유형의 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데, 자동사 및 타동사에 결합하는 ‘-지다’의 의미로 가능한 의미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다’가 상태동사 즉 형용사와 결합하면 기동상(inchoative)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피동문과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타동사와 결합된 분석적 피동형은 아주 생산적이

고, 파생 피동형과 똑같은 문법관계 교체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남기심, 고영근(1985)『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권재일(1998)『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 배희임(1988)『국어피동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연재훈(2005)『피동문의 유형론』, 이정민 외 공편,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그리고 그 너머」 pp. 581~606, 한국문화사.
- 이상억(1970) 국어의 사동, 피동 구문 연구, 『국어연구 26』, 서울대 국어연구회.
- 이익섭, 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투고규정

1. 『국제고려학』(이하, 본지)은 고려학에 관한 논문, 서평 등을 게재, 발표함으로써 고려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본지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고려학회(이하, 본학회)의 회원
 - (2) 본학회가 투고를 의뢰한 사람
3. 논문, 서평의 심사는 본지편집위원회가 위임한 심사위원이 하며 채용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4. 한글로 쓴 원고는 정서되어 있어야 하며 영어로 쓴 원고는 티자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한글일 경우는 “한글”, 영어일 경우에는 “Word”로 입력한다.
5. 원고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 한글 원고일 경우 논문은 16,000자 정도로 하며 서평은 2,000자 정도로 한다. 또한 영문 원고일 경우 그 분량을 각각 10,000단어, 1,200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Notes for Contribu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JKS) i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through the publication of articles and book reviews on Korea.

Contributors are Limited to:

- (1) members of ISKS; and
- (2) those who are asked to contribute by ISKS.

All manuscripts submitted will be referred to editorial advisers for careful review. The Editorial Board, however, has the say in those selected for publication.

All manuscripts should be typed by “한글” or “Word”.

Articles should not exceed 16,000 characters in Korean and 10,000 words in English; book reviews should not exceed 2,000 words in Korean and 1,200 words in English.

Proofs will be sent to authors for correction before final publication.

〒543-0024 日本 大阪市天王寺區舟橋町2-2 OIC Center

國際高麗學會「國際高麗學」編集委員會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OIC Center, 2-2 Funahashi-cho, Tennoji-ku, Osaka,

543-0024, Japan

Email : info@isks.org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 쇄를 받으면 조속히 접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해야 한다.

논문모집

『국제고려학』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 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지가 고려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고려학회임원

회장	Edward J. Shultz(미국 University of Hawaii)
부회장	정광(한국 고려대학교)
	James Lewis(영국 Oxford University)
	문영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李先漢(중국 北京大學)
사무총장	宋在穆(일본 大阪經濟法科大學)
특별고문	태형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원장)
	장을병(한국 前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
상임고문	崔應九(중국 北京大學)
	吳清達(일본 大阪經濟法科大學)
	강화용(미국 University of Hawaii)
고문	Mikhail N. Park(러시아 Moscow대학)
	Hao Bin(중국 北京大學)
	安炳浩(중국 北京大學)
	Helga Picht(독일 Humboldt대학)
	김민수(한국 고려대학교)
	瀧澤秀樹(일본 大阪商業大學)

분과회 위원장

언어	김진우(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문학	文日煥(중국 中央民族大學)
역사	Edward J. Shultz(미국 University of Hawaii)
경제	高秉璽(일본 朝鮮大學校)
정치	문정인(한국 연세대학교)
사회	文京洙(일본 立命館大學)
철학/종교	金哲児(일본 朝鮮大學校)
교육/체육	孫啓林(중국 東北師範大學校)
문화/예술	李愛順(중국 延辯大學)
의료	金英一(일본 大阪經濟法科大學)

각지부임원

아시아분회 회장	李先漢(北京大學)
사무국장	崔順姬(北京言語大學)

일본지부

회장	文京洙(立命館大學)
사무국장	高龍秀(甲南大學)
서울지부회장	최광식(고려대학교)
사무국장	정태현(고려대학교)
유럽지부회장	Jae-hoon Yeon(SOAS, University of London)
사무국장	Anders Karlsson(SOAS, University of London)

국제고려학 제 10호

발행일 2005년 8월 31일
발행인 국제고려학회
회장 Edward J. Shultz
편집인 국제고려학회 편집위원회
발행처 國際高麗學會
〒 543-0024 日本 大阪市天王寺區舟橋町2-2 OIC Center
TEL : +81-6-6768-8425 FAX : +81-6-6763-5080
Email : info@isks.org HP : <http://www.isks.org>
만든곳 (주) 문경 Book & Trans

ISSN 1347-7307

2005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0

Seoul

Heroes' Mysterious birth in Korean Classic Epics

- Focused on War Novels Im, Chi-gyun 8

Hypertext – the new Paradigm of Art Kim, Byong-suh 29

Pyongyang

A Study on Hyun, Jin-geon's Historical Novels Han, Joong-mo 58

A Study on Titles and Poetic Characteristics of Sijo Pak, Gil-nam 77

Lee, Gyu-bo and his Epic "King Dongmyeong" Jeong, Hung-gyo 95

Korean between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beginning of 10th Century

Choi, Jeong-hoo 113

Activities of the Korean Assessment Council Sim, Byong-ho 130

A Study on Vowel Harmony Changes in Korean between 17-19th centuries Kim, In-ho 157

Japan

Progressives in Korean, Japanese and Mongolian Song, Nam Sun & Song, Jae-mog 176

Europe

Characteristics of Korean Passive Constructions: A Typological Perspective Yeon, Jae-hoon 204